로잔이란 이름. 원래라면 ‘루카’라고 애칭을 썼어도 됐지만 루드비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사용할 이름으로 고른 어머니, 로자르나의 애칭.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그녀의 이름. 그 누구도 알아차릴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또한 저에게 흘러간 시간이 얼마나 무력하게 흘러갔는지 루드비카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떻게 하면 헤세를 만날 수 있을지 루드비카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저가 죽은지도 7년. 그리고 케시아로 인해 다시 살아났음에도 죽은 사람마냥 빈껍데기처럼 살아있던 시간도 7년. 그야말로 제 존재는 살아있으나 기록조차 없는 죽은 존재와도 같았기에 루드비카는 선뜻 제 정체를 밝히고 라인하르트 가에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간다 해도 저를 막아 세울 아버지의 존재, 라인하르트 후작을 생각하면 더더욱 루드비카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며칠간 수도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루드비카는 별별 사람들을 만났었다. 예전에는 로브를 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지나가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얼굴을 붉히며 흘끗 보는 정도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넋이 나가거나 또는 욕망을 담아 유혹하는 손짓에 루드비카는 슬슬 진절머리가 나던 상태였었다.

그렇게 한창 예민해지고 짜증이 치솟을 쯤, 하필 어깨를 부딪친 질 나쁜 깡패무리에 루드비카는 다시 한 번 대악마 바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제, 제발… 살려주세요!”

제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피 떡이 되어버린 깡패무리들이 바닥에 시체마냥 누워있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인간이 루드비카에게 무릎을 꿇어 온 얼굴이 멍이 들고 부어있음에도 마치 신에게 빌듯 두 손을 싹싹 빌며 간청하기까지 했다. 진득하게 피로 물든 두 손. 그리고 그들을 죽도록 두들김으로서 희열과 쾌락을 느꼈던 자신. 악마의 힘도 힘이지만 그보다 대단한건 생전 느껴보지 못한 희열과 쾌락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루드비카에겐 충격이었다.

케시아를 그렇게 죽였을 때만해도 어느 정도의 희열을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만큼의 피가 들끓을 희열과 쾌락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제정신도 못 차릴 만큼, 두 손은 물론, 입고 있는 옷까지 피에 절일만큼 희열과 쾌락을 느끼며 즐겼다? 루드비카는 칠흑의 창가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분이 무엇인지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억누르고 억눌렀던 제 안의 절제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절제의 끈이 끊어지는 동시에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저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몸소 실감하기까지 했다.

“살려 달라?”

“예에!! 사, 살려만 주신다면!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제발! 사, 살려주세요!”

겉모습만 판단하고 강자인척 약자를 쉽게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역겨웠던가. 결국 이 꼴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인이 이길 수 없는 강자에게 설설 기는 인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눈물, 콧물 흘리며 이젠 다리까지 부여잡고는 살려 달라 왜치는 시답지 않은 인간의 꼴을 보니, 그것이 또 은근히 기분을 가라앉게 하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 루드비카는 한참동안 제 턱을 쓸어내리다 이내 빙긋 웃으며 상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손을 내밀었다.

“그럼, 살려주는 목숨 값을 내놓았으면 하는데.”

“…예? 뭐, 뭘 말이신지...”

“돈. 내가 당장 써야할 돈이 없어서 말이지.”

“지, 지금 가진 게 이것 밖에 없지만… 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 테니까! 모, 목숨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루드비카를 우습게보며 주머니를 털려던 깡패는 오히려 반대로 전 재산을 털리게 되면서 기묘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깡패마냥 진짜 깡패의 돈 주머니를 전부 털어낸 루드비카는 그대로 어둑한 골목을 나와 피로 얼룩진 옷을 바꿔 입고자 옷가게 들려 대충 싼 맛의 옷을 구했고, 옷가게를 나와 최종적으로 향한 곳은 여관이었다.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로브로 가려진 제 얼굴과 몸을 전부 씻어내고 새로 구한 싼 값의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층의 식당으로 내려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대충 메뉴를 고른 다음, 주변에서 떠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였다.

"이곳엔 왜? 정보라도 주워들을 생각인가?"

“...”

루드비카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악마 바알이 보통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술수라도 부렸는지 그 누구도 바알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에 지목하는 이들은 없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계속되는 침묵에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났는지 바알은 한쪽 입꼬리를 짙게 말아 올리며 어디론가 움직였다. 그리고 마치 빙의라도 되는 것처럼 한 인간의 몸에 먼지처럼 스며들은 바알은 조용히 혼자 술을 기울이던 인간의 몸을 일으켜 루드비카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쇠 긁는 인간의 목소리를 냈다.

“나에게 간단히 부탁이라도 했으면 얼마든 들어줄 텐데 말이야. 어쨌든 나도 심심하던 찰나였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 이 인간의 머릿속을 뒤져 충분히 네가 원할 정보를 끌어내줄 테니.”

처음엔 의외의 눈으로 다른 인간의 몸에 들어간 바알을 보았지만, 거부할 필요가 없던 루드비카는 바로 바알에게 질문을 공세하기 시작했다.

“지난 7년 가까이, 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내게 설명해봐. 내가 모르는 7년간의 공백을 어느 정도 알아야겠어.”

“흐음… 7년 전이라… 어디보자, 이 인간은 어느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군.”

바알이 빙의되었음에도 인간의 표정은 썩 좋지가 못했다. 강제로 머릿속을 헤집는 바알 때문인지 점점 일그러트리는 표정에 그것을 감정 없이 쳐다보던 루드비카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 마디 건넸다.

“빨리 설명해.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성급하기는. 일단 대충 기억을 들여다보니 7년 전, 몬테올 왕국과 전쟁은 갑작스레 끝난 것 같군. 그리고… 소문? 왕국 곳곳에 무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소문?”

인간에게 빙의된 바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때 당시의 일을 직접 겪은 것처럼 눈을 감고서 생생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대충은… 왕비의 딸이 원래는 사생아가 아닌, 오래 전 죽은 왕태자의 친 혈육이라는 소문?”

“...뭐?”

“이런, 이 인간의 기억은 여기서 끝이군. 좀 더 자세한 기억을 원하면 다른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고민 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하라는 루드비카의 무언의 눈짓에 바알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하며 이번엔 직접 빙의하는 것이 아닌 몸에서 피어오른 여러 개의 검은 연기를 흩어지게 하여 여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기억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지병이라도 생긴 것처럼 각각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머리를 부여잡는 모습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시 사람들의 몸에서 빠져나온 검은 연기가 바알이 빙의된 인간의 몸으로 흡수되자 인간들의 과거의 기억을 전부 끌어 모은 바알은 하나씩 정리를 하여 루드비카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왕국 내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소문. 그리고 헤르세인의 출생 비밀과 윌리스 왕태자의 탄생일 날 벌어진 카타리아 왕후의 독살사건. 아무리 왕실 내에서 벌어진 소동이라 해도 입이 입을 타고 퍼지는 소문은 견고한 모래성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파도와도 같아 특히나 이야기 거리를 좋아하는 평민들에게 있어, 왕실의 각종 소문이나 추문들은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글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상,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기억의 왜곡도 무시할 수는 없어, 바알은 최대한 루드바카에게 왜곡 되지 않은 기억들을 추려 설명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의 흐름을 짐작하고 감을 잡게 된 루드비카는 이내 손을 들어 바알의 설명을 더 이상 듣기를 거부했다.

“그만, 이제 됐어.”

“그래? 그보다 얼굴 꼴이 말이 아니군. 7년의 간격이 너에게는 그렇게나 충격인건가?”

“닥쳐.”

이마를 짚고서 반쯤 고개를 숙인 루드비카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헤르세인의 출생비밀도 놀랍긴 했으나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왕위 쟁탈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 지금의 왕좌에 앉아있다는 것이 루드비카에겐 놀라우면서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래도 평범히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그녀는 너무나 높은 곳에 앉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저가 오랜 빈껍데기의 생활동안 모든 것이 바뀌고 이제는 함부로 마주할 수도,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도 없는 머나먼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 루드비카는 어쩐지 그 7년이란 시간이 저주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만약 멀쩡히 정신을 차리고 저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녀가 왕위 쟁탈 싸움을 할 때, 왕좌에 앉을 때, 그 모습을 전부 곁에서 지켜봤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저 혼자만 잃어버린 7년의 시간. 7년이란 시간동안 몰라보게 바뀌었을 헤르세인이 그리운 동시에 루드비카는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는 불안이 머릿속을 잠식했다.

“불안에 떨고 있군. 겁이라도 나는 건가? 네가 찾는 그 여인이 너를 잊었을까봐? 아니면 네가 보지 못한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가 존재할까봐?”

“...”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던 루드비카에겐 중요치 않았다. 그녀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바알의 말처럼 그녀가 저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루드비카를 가장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나를… 헤세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나 말고 다른 놈을 곁에 두었다면… 난...”

생각만 했을 뿐임에도 끔찍하고 가슴이 미치도록 아프기까지 했다.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루드비카는 아랫입술을 강하게 깨물며 옷깃을 부여잡았다.

만약 이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단순히, 사랑에 아파하는 비련의 한 남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바알이 보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사랑에 아파하는 것은 맞으나, 본인을 잊어버렸을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동시에 은연히 묻어있는 진득한 집착이 바알의 입꼬리를 절로 끌어올리게 만들었다.

“뭘 그렇게 걱정하나. 그야말로 단순한 문제 아닌가?”

“...뭐?”

“그녀가 널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게 만들면 되고, 그녀의 옆자리를 다른 놈이 빼앗았다면 네가 그녀를 빼앗고 그 옆자리를 차지하면 그만인 것을. 애초에 그녀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네 것이 아니었나?”

그 누구의 것조차 될 수 없는 온전한 저만의 것. 바알의 말투가 어쩐지 헤르세인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루드비카는 방금 전까지의 불안을 전부 잊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바알의 말처럼 이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닌 단순한 문제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헤르세인이 저를 잊었다면 다시 예전의 기억을 되찾아주면 그만. 또 그녀의 옆자리를 누군가 차지했다면 빼앗고 누구도 두 번 다시 감히 앉지 못하게 만들면 그 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니 개운하면서도 저를 다시 볼 헤르세인을 생각하면 두근거리기까지 했다.

“객실로 돌아갈 생각인가? 주문한 식사는 안하고?”

딱히 배가고파 메뉴를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루드비카는 식사 따윈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 낸지 오래였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헤르세인을 만날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은 루드비카는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기 전, 바알에게 간단히 대꾸했다.

“왕성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헤세를 만나려면 왕성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군, 그럼 나는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 네가 어떻게 왕성으로 들어갈지 곁에서 구경이나 해야겠군. 물론, 언제든지 내 힘이 필요하면 마음껏 써도 좋다.”

빙의한 인간의 몸에서 다시 검은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온 바알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연기의 형태로 루드비카의 육체 안에 다시금 흡수되었다. 그리고 빙의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초점이 없던 무의식에서 깨어났는지 바알에게 빙의되었던 사내는 아주 잠깐 눈을 깜박이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무표정을 짓고 있는 루드비카를 향해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제가 자리를 잠시 착각했나 봅니다.”

눈앞의 사내가 어떤 모습으로 후다닥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던 루드비카에겐 중요치 않았다. 그저 헤르세인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에 루드비카는 깡패에게서 빼앗은 잔금으로 입에도 대지 않은 식사를 계산하며 조금은 피로해진 몸을 쉬기 위해 객실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을 찾은 루드비카는 광장의 벽보에 걸린 수십개의 종이들 중, 유독 눈에 들어온 하나의 종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칸탄테 악단에서 피아노 연주 지원자를 급히 구합니다.

모집인원은 1명.

이틀 뒤, 왕실에서 주최되는 환영식 날.

연주회를 도와줄 피아노 연주 지원자를 급히 구합니다.

실력에 따라, 사례금은 충분히 지급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해주시며

칸탄테 악단이 있는 광장 근처의 칸탄테 악단 건물로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회라...”

신이든 악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운과 하늘이 저를 돕고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나 쉽게 벌써 왕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생겨난단 말인가. 이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다. 하지만 칸탄테 악단을 찾기 전, 루드비카는 짧은 준비가 필요했었다.

그것은 제 정체를 알아보지 못할 하얀 가면을 준비한 것. 한눈에 보아도 수상쩍어 보이는 눈만 뚫린 새하얀 가면을 얼굴에 씀으로써 루드비카는 로잔이란 이름과 함께 칸탄테 악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환영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또 어떻게 베르디올의 황제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헤르세인은 제대로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 오히려 환영식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강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헤세.”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웠던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숨 한 번 토해낼 때마다 심장이 못이 박힌 것처럼 아리고 아프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가슴깊이 파고드는 그 목소리를 또 다시 듣는 순간, 헤르세인은 숨을 쉰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헤세...”

“...”

감히 솔직하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당신은 그날, 7년 전 죽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올 수 있냐고.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저가 그의 존재를 마치 부정할 것 같아 헤르세인은 제 입을 틀어막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눈동자 색도, 머리색도 예전과 달라졌을 지언정 부정할 수는 없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도, 목소리도, 표정도, 손짓도, 전부 오랫동안 보아왔던 루드비카의 모습이었으니까.

왕좌에서 일어나, 계단 하나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헤르세인의 심정은 딱 하나였다.

사무치는 그리움.

여전히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로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좁혀질수록 7년 동안 어떤 때도 흔들리지 않던 가슴이 미친 듯이 떨리고 심장이 아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완전히 그의 앞에, 루드비카의 눈앞에 멈춰선 순간 헤르세인은 파르르 떨리는 손끝을 뻗었다.

“…루... 카...”

한 글자,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입술을 모아 힘겹게 끌어내어 마침내 부른 단 한사람의 이름.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뺨의 온기를 온전히 느낀 순간, 헤르세인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살아있다고. 살아 돌아왔다고. 정말로 눈앞에 있는 이는 틀림없는 루드비카임을.

“정말… 정말로… 당신이야? 정말로… 당신… 인거야?”

“...예, 보고 싶었어요. 나의… 헤세….”

환청이 아닌, 너무나 선명히 들린 그의 목소리.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뻗은 손을 치워내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손을 잡아 뺨에 제 손을 얹으며 기대는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의 메말라 있던 눈가는 끝내 한줄기의 눈물을 떨어트렸다.

“아...”

인정해야만 했다. 그가 정말로 루드비카임을. 그가 정말로 살아 돌아왔음을.

제 손을 끌어당겨 살아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그의 심장 고동까지 얼마나 생생히 들리고 느껴지던가.

하지만 사무치는 그리움도 떨리는 감정도 거기까지였다.

만약, 그가 7년 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다면 그 누구보다 기뻤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7년이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듯 헤르세인 역시, 예전의 감정은 남아있을 지언정, 예전처럼 루드비카를 대할 수도, 똑바로 볼 수조차 없었다.

어쩌면 철이 없었을 지난날의 기억. 생애 처음이자 첫사랑이었기에 그토록 사랑이란 것에 목을 맸던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리고 풋풋했던 사랑의 기억까지. 지금처럼 또 다시 가슴이 떨린다 해도 헤르세인은 그 시절로, 그때의 기억처럼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고독한 왕좌의 자리. 그리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마음조차 품을 수 없는 외로운 자리에 앉은 지금의 현실. 왕의 자리에 앉은 이상, 누군가를 품는 다는 건 다시 철부지의 왕녀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았다.

권력이 고픈 건 아니었다. 하지만 복수의 일념 하에 힘겹게 얻은 자리. 단지 그것을 다 내려놓기엔 어깨에 짊어진 것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전부 풀어놓기 위해선 결국 권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사무치는 그리움의 재회가 더 깊어지기 전에 다시 예전의 감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헤르세인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외면하고 억눌러야 했다.

“...헤세?”

간신히 그의 뺨에서 떼어놓은 손. 손바닥은 여전히 그의 온기로 가득 찼지만 그 온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헤르세인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숨을 삼키며 혼신을 다해 루드비카를 밀어냈다.

“당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건 이제 알았어. 하지만 난, 당신을 예전처럼 대할 수는 없어.”

“그게… 무슨 말인가요? 헤세는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게 기쁘지 않은 건가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나 기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다면 그는 믿어줄까? 하지만 매정히 등을 돌린 헤르세인은 제 감정을 죽이고 또 죽였다. 자신은 더 이상, 풋풋하게 그를 사랑했던 왕녀가 아니니까. 한 없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은근히 목마르던 시절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오직 이곳에 남아 있는 건,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 뿐.

“날이… 날이 늦었으니 침실은 따로 내어주겠다, 그러니 내일, 날이 밝거든 그대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왕으로 돌아온 그녀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냉혹함마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냉혹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루드비카의 외침은 7년 전, 헤르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던 그때처럼 애틋하고 절실했다.

“헤세!”

외면했다. 그런데 왜 이다지도 그는 애절히 저를 부르는 걸까….

그가, 루드비카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좋았다. 오직 루드비카만이 부를 수 있는 애칭의 다정함이 좋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이, 현실이 헤르세인에게 속삭였다. 루드비카를 밀어내라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관계와 이 현실을 돌아보라고.

“헤세!!”

또렷이 들리는 그의 절절한 외침. 헤르세인은 힘겹게 눈을 감으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혹시라도 다시 루드비카에게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여전히 등을 진채 목소리에 힘을 주어 소리쳤다.

“나는──!”

“...”

“나는… 더 이상, 그대의 헤세가 아니다.”

“헤세...”

“나는, 이 나라의 하나 뿐인 유일한 왕.”

“...”

“그러니 그 누구도…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순 없다. 그대가 나를 불러야할 호칭은 내 이름이 아닌 폐하일 뿐. 나는 더 이상 그대의 헤세가 아닌, 왕이자 폐하일 뿐이다.”

“헤세──!”

두려웠다. 혹시라도 그가 제 손을 다시 붙잡을까봐. 무서웠다. 그가 실망과 원망을 담아 저를 보고 있을까봐. 미안했다. 제 자신 때문에 또 다시 상처를 준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까봐. 그래서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붙잡기 전에 그대로 회장을 빠져나와 침실로 돌아갔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는 건 없었다.

그저 돌아와 정신을 차렸을 땐, 거울에 비친 제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것과 눈물로 얼룩진 제 모습을 드디어 깨달았을 뿐. 그렇게 한참동안 라즐리와 모든 시녀들을 침실 밖으로 물리며 혼자의 시간을 원했던 헤르세인은 새벽이 지나고 서서히 해가 뜨는 여명이 찾아왔을 때, 오랫동안 시야를 가리고 있던 축축이 젖은 손을 떼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호흡을 진정시킨 그녀는 라즐리를 불러 들여 급히 라인하르트 공작가에 전갈을 보낼 것을 명했다.

“라인하르트 공작에게 전하라.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아침 해가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 하지만 진즉에 습관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있던 클로드는 갑작스레 왕실에서 찾아온 전갈로 인해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웬만하면 다급한 전갈을 보낼 일이 없는 그녀. 하지만 그것도 다급히 전갈을 보냈다는 건 분명,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과 같았기에 클로드는 서둘러 의복을 챙겨 입고 직접 말을 몰아 왕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폐하께서는?”

“폐하께서는 침실에 계십니다.”

“그럼 주무시고 계신다는 건가? 그럼 전갈은 왜...”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아끼는 시녀장 라즐리의 모습, 그리고 왕성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온몸을 타고 느껴지는 가라앉은 분위기에 클로드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엇이라도 간략히 설명해주면 좋으련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라즐리의 모습은 생소하기까지 했다.

“이곳입니다.”

“이곳은…?”

고요한 침묵 속에 한참을 걸어 도착한 굳게 문이 닫힌 어느 장소. 클로드는 어서 설명해보라는 차가운 눈짓을 줬지만 여전히 라즐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오히려 직접 상황을 보고 느끼길 원하는지 어느새 그녀의 손은 문을 열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달칵, 하고 거친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린 무음의 문소리. 그리고 한 짝의 문밖에 열리지 않았음에도 볕이 가장 잘 드는 장소였는지 빛 무리가 열린 문을 통해 세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빛 무리보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실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집중된 클로드는 성큼성큼 큰 다리를 움직여 안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잠시였지만 빛이 강렬했는지 아주 잠깐의 눈부심으로 클로드는 눈을 찌푸리며 빛에 눈이 적응되길 기다리던 찰나였다.

얼핏 빛 속에서 보이던 긴 은발을 지닌 누군가의 뒷모습. 잿빛머리칼을 가진 저와 달리, 빛 무리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누군가의 은발은 무척이나 신비로울 만큼 보기 드문 머리색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이 차츰 빛에 적응되고 은발의 누군가가 창가에서 걸음을 떼어 서서히 고개를 마주보게 돌린 순간, 클로드는 난생처음 보는 붉은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우면서도 마치 석류석을 연상케 하는 새빨간 붉은 눈.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짙은 피의 색에 물든 것과도 같아 한편으론 이질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느낌을 전부 느끼기도 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하나의 호칭을 들은 순간, 클로드는 붉은 눈동자가 아닌 붉은 눈동자를 지닌 사내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제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클로드 형님.”

“...”

“그동안 못 본 사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형님은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시네요.”

“...루드비카?”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내는 틀림없는 루드비카였다. 하지만 익숙한 호칭과 별개로 저가 알고 있는 붉은 머리와 호박 빛의 눈동자를 갖지 않은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올라와 허릿춤에 걸려 있을 검을 찾았다. 아니, 찾으려 했지만 오랜 습관이었을까. 제 허릿춤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헛 손짓에 클로드는 미간을 좁히며 루드비카를 향해 경고했다.

“누구냐, 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죽은 내 아우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거지?”

클로드의 경고를 예상하고 있었는지 루드비카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곤 한발자국 씩 가볍게 제 이복형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의 다섯 발자국 쯤 거리가 좁혀졌을 때, 루드비카는 쓰게 웃으며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직이 입술을 떼었다.

“너무 그렇게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누가보아도 형님께서 그토록 싫어해 마지않은 라인하르트 가의 사생아이자 아버지의 욕심으로 둘째의 자리를 차지한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이니까요.”

“정말로... 루드비카… 너인 것이냐?”

“예, 보시다시피 저,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형님.”

새하얀 백지장마냥 클로드는 그 어떤 말도 뱉어낼 수 없었다. 기쁨보단 놀라움, 그리고 익숙한 루드비카의 모습임에도 어째서인지 클로드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루드비카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오랫동안 죽은 줄 알았던 루드비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거칠고 평범한 옷을 입어서 인지, 라인하르트 가에 돌아오자마자 루드비카가 제일먼저 한 일은 제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다. 하지만 7년 동안이나 비워진 자리여서 일까. 제 몸에 맞는 옷들로 가득 찬 옷장은 전부 텅 비어진 덕분에 루드비카는 클로드의 의복 중, 그나마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갈아입어야 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곁에서 계속 루드비카를 지켜보던 클로드. 결국 셔츠의 단추를 전부 채우기도 전에 루드비카는 고개를 틀어 갈아입던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구경이라도 났나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뭐가 말인가요.”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해.”

“...”

아주 잠깐 루드비카의 입술은 살짝 벌어졌지만 이내, 미소로 가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클로드였으나 이미 다시 고개를 틀어 단추를 전부 채우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조용히 침묵으로 치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루드비카의 성격이라면 무조건 셔츠의 목을 장식했을 크라바트.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크라바트 대신 얇은 검은색 리본으로 대충 묶어낸 루드비카의 모습은 어쩐지 낯설었다.

거기다 잠차고 제 옷을 불만 없이 입는 모습은 클로드가 상상한 루드비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재킷까지 걸쳐 입고 옷을 완벽히 갈아입은 루드비카의 모습은 흠잡을 곳이 없었다. 때문에 옷 문제 보다 중요한 대답을 듣고자 클로드는 다시 한 번 루드비카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나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을 것이냐?”

“그게 꼭 중요한가요?”

언제 다가왔는지 루드비카는 이미 짙게 입꼬리를 올리며 바로 근처에 멈춰있었다. 거기에 무슨 자신감이 그토록 넘쳐나는지 한쪽 손은 허리에 얹은 채,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클로드가 알고 있던 루드비카의 이미지를 단숨에 바꿔놓기까지 했다.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면 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가 형님께서는 꼭 이유가 중요한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게 아니라, 난...”

“형님은 제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지 않은 건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솔직하게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투와 다르게 저를 보고 있는 붉은 눈동자가 깊숙한 곳의 죄책감을 끌어내는 것 같아 클로드는 결국 루드비카를 외면하며 마른세수를 반복했다.

“아니다. 그래… 네 말처럼 이유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해야할 일이지.”

“그럼,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 볼까요?”

먼저 식사를 요구하는 모습이나, 이 상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클로드에게 낯선 기분을 느끼게 했다. 분명 눈앞에 있는 존재가 루드비카임을 알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이 낯섦. 결국 이 낯섦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이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뒤를 따라 식당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저택에 돌아오자마자 클로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방을 총 동원해 루드비카의 입맛에 맞을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아무리 미운 아우라 할지라도 클로드에게 있어 루드비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제 아버지의 또 다른 핏줄이었다. 더욱이 한번은 잃었던 아우의 죽음.

이렇게 살아 돌아온 이상, 클로드는 또 다시 과거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은 마음껏 루드비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생각을 하며 루드비카는 서둘러 집사에게 어서 요리를 내올 것을 명했다.

“루드비카가 배고파 하니, 어서 음식을 내오도록.”

집사가 의자를 끌어주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의자를 끌어 이미 자리에 앉은 루드비카는 턱에 손등을 괴어 주변을 은근히 훑었다. 7년과는 전혀 다른 식당의 외관이며, 모든 장식품들 할 것 없이 많은 것이 바뀐 식당의 모습은 루드비카에게 재미난 구경거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처음 보는 하녀들의 모습과 집사의 모습에 그들을 대놓고 훑던 루드비카는 피식 웃으며 클로드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집사가 바뀌었네요.”

“헨드릭을 말하는 거면 아버지를 따라 별장으로 내려갔다가 1년 전, 정식으로 은퇴했다.”

“은퇴요?”

새로운 젊은 집사가 따라주는 와인으로 목을 잠깐 축인 클로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드비카가 모를 이야기를 알려주었다.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7년 전 아버지께서는 내게 작위를 넘겨주시고 바로 은퇴하시어 라인하르트 가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다른 지방의 별장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필하러 헨드릭이 이곳의 집사를 그만두고 함께 내려갔고.”

“...”

“그러다 2년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이 생기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헨드릭과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고자 이름난 의사란 의사는 전부 찾아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게 했지. 하지만 치료한 의사들이 전부 그러더군. 아버지께서 일부로 그 병을 오랫동안 감추고 계셨다고. 무려 4년 동안이나 말이다. 결국 병의 증상은 아버지가 그것을 함구하시는 동시에 많이 깊어지셨고 1년 전… 아버지께서는 끝내 돌아가셨다.”

7년 전, 클로드에게 작위를 물려주고 조용히 별장으로 떠났던 아슬란. 하지만 여느 때처럼 단순한 검진을 하다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그는 클로드에게 알리지 않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저 이제 막 공작이 된 클로드의 앞길을 고작 병으로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병세를 악화시키게 되면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안, 헨드릭은 서둘러 클로드에게 전했고, 당시 헤르세인이 왕권강화 목적으로 한창 귀족들을 솎아내던 시기였던지라 클로드는 남들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헤르세인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클로드를 돕기 위해 왕실 어의까지 보내어 아슬란을 진찰하게 했지만 더 이상 치료가망이 없던 그의 병세에 클로드도 헨드릭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막 겨울이 지고 봄꽃이 피어날 무렵, 해가 바뀐 어느 날. 누구보다 가장 오래 살 거라 예상한, 아슬란 반 클라인 라인하르트는, 대귀족 중에서도 가장 젊은 중년의 나이에 일찍이 눈을 감고 말았다.

“상상조차 못했다. 누구보다도 오래사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고작 못 고칠 병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로 한마디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군요.”

조금은 목이 답답해져서 인지, 답답할 만큼 크라바트를 꽉 매고 있던 클로드는 목의 단추와 크라바트를 살짝 풀어 다시금 와인으로 갈증 난 목을 축였다. 하지만 지금 식탁에 있는 두 사람 중, 루드비카만이 슬픔이나 안타까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 악연 아닌 악연이라 할 수 있는 아슬란과의 부자관계.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클로드는 굳이 이야기를 덧붙이진 않았다.

만약 제 아버지가 살아있고, 루드비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온 소식을 알았다면 유언하나 남겼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제 동생이 그렇게 죽고 본인의 죽음조차 초연히 받아들인 그였기에 클로드로선 루드비카에게 무언가를 남길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

“...”

아버지의 얘기로 식당의 분위기는 한창 가라앉혀진지 오래. 그리고 언제 왔는지 모를 샐러드 접시를 포크로 쿡쿡 찌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더 이상 이 분위기를 유지하면 안 되겠다 싶어, 아주 짧은 헛기침으로 분위기를 없애고자 했다.

“아무튼 라인하르트 가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도록. 그리고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던 결국 네가 판단해야할 일이니까. 너와 아버지의 오랜 묵은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

“그럼 집안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좋다.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는 선에서 설명은 해주마.”

그때, 한참동안 포크로 잘 찍어지지 않은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은근히 장난치고 있던 루드비카는 그 손짓을 완전히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있는 클로드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듣고 싶었던 미소를 그리며 망설임 없이 루드비카는 본론을 꺼냈다.

“헤세... 아니, 폐하에 관해 제가 모르는 모든 걸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 얘기하기 꺼려지신다면 폐하께 다른 사내가 있는지 그것만 말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오직 그것뿐이니까.”

“루드비카… 너...”

일부로 얘기를 꺼내지 않은 거였지만, 설마 이렇게 본론으로 꺼낼 줄은 몰랐기에 클로드의 표정은 단번에 일그러지고 말았다. 7년. 짧지도 않은 아주 긴 시간임은 부정할 수 없었다. 루드비카의 마음이 일방적일지 몰라도 헤르세인은 달랐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위치와 권력을 가진 그녀. 만약 여전히 권력구도에서 가장 먼 왕녀였다면 지금에라도 두 사람을 위한 자리를 다시 만들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그녀는 권력구도에서 가장 먼 왕녀이긴 커녕 선선대 국왕의 직계혈통이자 지금은 지위가 복귀된 죽은 에른스트 국왕의 핏줄이기까지 했다. 더더욱 지금 그녀의 입지를 생각하면 그녀는 더 이상 함부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함부로 귀족가의 사내조차 맞이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태양과도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그 현실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클로드로선 루드비카의 일방적인, 여전히 일직선인 그 마음을 예전처럼 헤아려줄 순 없었다.

“포기해라 루드비카. 이제 그분은 네가 함부로 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전의 왕녀전하가 아니신, 이 나라의 유일한 국왕폐하이시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네 마음을 접어라.”

“…형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군요.”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덜 익힌 스테이크 조각을 포크에 꽂은 채, 반은 장난삼아 휘휘 젓던 루드비카의 입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한참동안 스테이크 조각에 가있던 핏빛의 눈동자가 클로드에게 시선을 꽂은 순간, 루드비카의 입꼬리는 여전히 맑게 웃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르게 싸늘히 클로드에게 향하고 있었다.

“형님의 의사를 물은 것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부족할 위치인가요? 더 이상 후작가문의 차남도 아닌 이제는 공작가문의 서열2위일 텐데?”

“루드비카!”

클로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두 손으로 내려쳤지만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한 루드비카는 빙그르르 웃으며 눈웃음까지 짓고는 방금 전에 뱉은 마지막 말에는 한 치의 진심이 없음을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농담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설마 제가 진짜로 형님의 자리에 탐을 내어 살아 돌아왔을까요? 하지만 반은 사실이기도 하지요. 형님께서는 아직 자식을 보지 않으셨고 공작부인의 자리도 공석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진 서열2위의 자리는 고스란히 제 차지겠지요.”

“...”

“하지만 형님께서 그것조차 진심으로 거부하신다면 지금의 이 자리도, 라인하르트 란 성도 전부 버려드리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의 진짜 친모가 썼던 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마르세유 남작의 성으로.”

“너──!”

클로드가 더 할 말이 남았는지 서둘러 입을 벌렸으나 루드비카가 클로드를 제지하듯 손을 올리는 들어올렸다. 그리고 아직 완벽히 얘기를 끝내지 않은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님이 원한다는 전제일 뿐이지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라인하르트 가의 성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님, 부탁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부탁?”

마치 이것을 위해 모든 밑밥을 푼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 그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나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잠시 숨을 고르다, 이내 고개를 주억이며 일단 들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루드비카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예. 다시 살아난 하나 뿐인 아우를 위해 형님께선 제가 죽기 직전 가지고 있던 기사의 작위를 복귀 시켜주는 것.”

“다시 기사가 되겠다는 말이냐?”

“예, 그 뒤로 제가 기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던 형님께선 일절 상관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절 상관 말라니? 그게 무슨...”

“제 부탁, 꼭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아우의 부탁하나 정도 들어주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요?”

루드비카의 말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하나 뿐인 아우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너무나 쉬울 정도로 제 말 한 번에 그 말을 따를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으니까. 하지만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부탁이 꺼림칙하면서도 어쩐지 거부할 수가 없었다. 단순히 다시 살아 돌아온 아우이기 때문에? 아니, 다시 살아 돌아온 루드비카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끝내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정면으로 부딪치는 시선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나 뿐인 아우이기 이전, 아무리 어머니의 피가 다를 지언정 루드비카의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죄책감과 동시에 가여운 생각이 가장먼저 들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알았다, 너의 기사 작위가 복귀 될 수 있도록 폐하께 아뢰마.”

“고맙습니다, 형님. 이로써 마음 편히 형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한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겠군요.”

손뼉을 치며 빙긋 웃는 루드비카의 얼굴은 이미 배부른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본격적으로 스테이크를 썰어 요리를 먹기 시작한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식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까 하는데 그쪽의 의견은 어떠한가?”

“...”

“아까부터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군.”

환영식이 끝난 지, 이틀째 되던 날. 헤르세인과 리카르도는 본격적이 무기 협상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여러 개의 의논이 오고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환영식 이후로 숙면을 제대로 취하기는커녕 식사도 거르며 어떤 일이든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헤르세인은 결국 리카르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주 잠깐 이었을 뿐, 아무리 손에 들린 종이 뭉텅이를 보아도 도무지 집중되지 않아 헤르세인은 결국 자리를 짚고 일어났다.

“구체적인 협상까진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때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게 좋겠소.”

“알았소, 아무래도 그대의 상태를 보아하니 제대로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할 것 같군.”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

헤르세인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접객 실에 홀로 남게 된 리카르도는 그녀가 떠난 빈자리를 오랫동안 물끄러미 보고 있을 쯤 이었다. 노크소리가 들리면서 빌헬름이 들어오자 리카르도는 금방 입을 떼어 빌헬름에게 물었다.

“네가 보기엔 어떻지?”

“사브레의 국왕 말입니까?”

“그래, 분명 누구보다 이 자리를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집중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혹시 요 이틀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알아볼 기색으로 빌헬름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다시 홀로 남게 된 리카르도의 표정은 썩 좋지 못했다. 협상이기 이전, 나름 이 자리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이른 아침부터 제법 헤르세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였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고 서로 의견을 나눠도 모자를 판에 그녀의 집중이 협상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리카르도는 퍽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내라도 생각하는 건가?”

그때, 리카르도는 제가 말하고도 그 말이 웃겼는지 어이없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녀에게 흥미가 있는 건 사실이나, 한나라의 국왕이 사내를 품던 말든 자신과 무슨 상관이던가. 혼인을 치루든 치루지 않던 왕이 사내이든 여인이든 여럿을 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헤르세인이 다른 사내를 품는 것을 생각하니 리카르도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못했다.

“별 시답지 않은 생각을 해버렸군.”

제 자신에게 향하는 조소인지 누군가를 향한 조소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나온 삐딱한 조소에 한참을 침묵하며 팔짱을 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리카르도는 정확히 한 시간 후, 다시 접객 실로 돌아온 빌헬름을 볼 수 있었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폐하.”

“설명하도록.”

“구체적인 건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지만, 환영식 날 이후부터… 정확히는 환영식 날, 대단한 연주를 보였던 악단에게 노고의 선물을 지급한 후부터 국왕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냈습니다.”

“악단?”

“연주회를 지루해하시는 폐하께선 제대로 듣지 않으셨겠지만 그날 환영식에서 연주했던 악단의 솜씨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사브레의 국왕은 그 솜씨를 대단히 칭찬하고자 악단을 따로 불러 특별 선물을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사브레 국왕의 상태가 이상해졌다? 말이 안 되는 군.”

빌헬름에게 향한 리카르도의 시선은 탐탁지 못했다. 설마 그것밖에 못 알아냈냐는 힐난의 시선이 지속되자 곧바로 빌헬름은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 누가 보아도 선물을 준 것만으로 상태가 이상해진 건 말이 안 되지만 그 직후, 악단 중 한명이 사브레의 국왕에게 독대를 청했다고 합니다.”

“독대?”

“말씀드렸지만 자세한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대가 이뤄지고 난 후, 그때부터 사브레 국왕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녀들의 떠드는 소리까지 전부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일개 악단이 국왕과의 독대라….”

귀족이면 몰라도 일개 악단일 뿐인 평민이 국왕과 독대를 한다? 전혀 상상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버리듯 평민일지 모를 자와 독대가 이뤄졌고 그 이후부터 그녀가 이상해졌다는 것은 분명, 단순한 독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아, 참고로 국왕과 독대한 이는 가면 쓴 사내라 합니다.”

“가면?”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영식의 연주회 때, 워낙 피아노 연주가 인상 깊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자가 있긴 있었지….”

빌헬름이 말하지 않았다면 리카르도는 전혀 기억해내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빌헬름의 설명 덕분에 환영식 날의 기억을 되짚은 리카르도는 분명히 가면 쓴 사내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오히려 기억에 잊는 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리카르도에게 어떤 의미론 인상 깊었었다.

마치 피에 얼룩진 것 같던 가면 속 너머의 붉은 눈동자.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불손한 감정을 담아내던 그 눈동자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지 않았기에 리카르도는 더 이상 가면 쓴 사내를 기억 속에 남기지 않았었다. 그런데 가면 쓴 사내와 만난 이후부터 헤르세인이 이상해진 것이 틀림없다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었다.

“지금 당장 그 사내를...”

자리에서 일어나 빌헬름에게 당연하듯이 명령을 내리려던 리카르도의 목소리는 도중에 멈춰지고 말았다. 오히려 인상까지 일그러트린 덕분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빌헬름이 다가왔지만 리카르도는 손을 저으며 빌헬름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대는 나가 있어라.”

“그럼,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빌헬름이 조용히 나가고 다시 혼자 있게 된 리카르도는 연거푸 마른세수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과 함께 편한 자세로 소파에 등을 기대었다. 그리고 한참을 가는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던 리카르도는 나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설마… 그런 시답지 않은 감정을 품은 건 아닐 테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어디까지나 호기심에 비롯된 관심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일도 그렇고 그녀의 행동이나 저도 모르게 나온 말들을 곱씹어 보면 의심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때문에 리카르도는 확신과 확인이 필요했다. 자꾸만 이 거슬리는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녀가 이상해진 원인에 이토록 신경이 쓰이는지.

자리에서 일어난 리카르도는 오랫동안 앉아 있던 접객 실에서 나와 바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빌헬름에게 전했다.

“지금 당장, 사브레의 국왕에게로 간다.”

맞춤 제복이 아님에도 신기하게 딱 들어맞는 기사의 제복을 입으며 루드비카는 준비를 마쳤다. 어느 곳 하나, 얼룩진 곳 없이 새하얀 고결을 상징하는 것 같은 백색의 제복. 그리고 어깨에 걸쳐진 붉은 망토는 유독 화사하여 루드비카의 눈동자만큼이나 강렬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된 것이냐?”

“예, 형님.”

“...그래, 그럼 출발하자.”

클로드가 먼저 자리를 비우고 루드비카는 떠나기 전,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붉은 리본 끈으로 정갈히 묶은 머리와 완벽히 갖추어진 제복의 모습. 먼지하나 털 것 없이 각이 제대로 잡힌 제복의 모습을 전부 확인한 루드비카는 이내 거울에서 시선을 떼어 클로드의 뒤를 쫓았다.

클로드와 함께 마차를 타고 루드비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왕성. 그리고 마차가 왕성에 도착한 순간, 루드비카는 여전히 클로드의 뒤를 따라 조용히 목적지를 향해 따라가고 있었다.

“폐하께서는 안에 계시는가?”

현재 두 사람이 멈춰 선 곳은 왕의 집무실. 하지만 집무실에 있어야할 헤르세인은 자리를 비웠는지 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고개를 저었다.

“폐하께선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가?”

“레인 궁으로 가셨습니다.”

“레인 궁?”

그때 오랫동안 입술이 닫혀 있던 루드비카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면서 클로드가 말릴 새도 없이 루드비카는 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루드비카! 어딜 가는 것이냐!”

“레인 궁으로 가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폐하를 뵈러 제가 직접 갈 수 밖에요.”

“돌아와라! 그곳은 네가 멋대로 가야할 곳이─! 루드비카!!”

하지만 붙잡기도 전에 저 멀리 거리를 벌린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더 이상 뒤 쫓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신하이기이전, 루드비카의 형으로서 같은 혈육으로서 생각하면 클로드는 루드비카를 말릴 명분이 없었다. 더군다나 현재 그녀가 있는 곳은 레인 궁. 그녀의 오랜 쉼터이자 허락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녀만의 개인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루드비카가 침범한다? 불가능 할 것 같으면서도 두 사람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클로드는 어떻게 두 사람을 지켜봐야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먼저 선객이 있었군.”

낮선 인기척에 화들짝 놀랄 것도 없이 클로드는 반대편을 돌아 정면으로 저를 마주하고 있는 리카르도를 볼 수 있었다. 그 역시 그녀에게 볼일이 있는지 보좌관을 이끌고 행차한 듯, 싶었으나 아쉽게도 집무실은 텅 비어진 상태이기에 클로드는 제법 예를 갖추어 황제에게 대신 전달했다.

“현재 국왕폐하께서는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럼 어디에 있지?”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다음에 찾아오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러고 보니, 얼굴만 익혔을 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군. 라인하르트 공작. 단도직입적으로 그대에게 묻지. 그대는 사브레의 국왕과 무슨 관계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클로드의 얼굴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클로드를 몇 번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을 뿐, 저 혼자 결론을 내렸는지 더 이상 클로드에게서 관심을 끊은 리카르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집무실의 경비병에게 헤르세인의 위치를 물었다.

“거기 경비병,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야할 것이다. 국왕은 어디에 있지?”

“예? 그, 그것이...”

“내 긴히, 국왕과 급히 나눠야할 말이 있어 그런 것이니 서둘러 대답해라. 물론, 이곳에서 목이 잘려지고 싶지 않다면”

“레, 레인 궁에 계십니다!!”

리카르도의 낮게 깔린 목소리와 분위기에 압도 되었는지 제 목숨이 아까웠던 경비병은 가장 큰 목소리로 헤르세인의 위치를 단숨에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클로드가 아니었다. 경비병이 어쩔 수 없이 실토한 건 어쩔 수 없으나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의 만남을 깨버리고 싶지 않던 클로드는 걸음을 옮기려던 리카르도의 앞을 가로 막아섰다.

“이게 무슨 짓이지?”

“현재 폐하께서는 레인 궁에서 중요한 독대 중이십니다. 그러니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군, 공작. 일개 왕국의 공작 주제에 제국의 황제를 감히 막을 수 있다, 생각하나? 이 일을 문제 삼아 내가 국왕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 해두는 편이 좋겠군.”

굵은 핏대가 보이도록 주먹을 움켜쥔 클로드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리카르도의 말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제 사심으로 타국의 황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물론, 레인 궁에서 곧 만나게 될 그녀와 루드비카의 만남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전부였을 뿐.

결국. 클로드는 두 발자국 옆으로 물러나 황제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일은 결코 개인적인 마음으로 황제의 앞을 가로막아선 안 되는 일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를 생각하면 클로드는 다시 눈앞이 아찔했다. 많은 정을 주지 않은 아우이자 기껏해야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 전, 그나마 형제로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그때가 클로드에겐 전부였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루드비카를 다시 죽음으로 밀어 넣고 싶지 않은 건, 혈육이기 때문인지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이 남게 된 미약한 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건 클로드 역시, 누구보다 살아 돌아온 루드비카의 모습에 기뻤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저는 또 다시 제 아우를… 하나 뿐인 동생을 이 이상, 잃을 순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루드비카를 위해 무엇을 해도 가문에 해를 끼치지 않은 선에서 루드비카를 도울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복도. 황제의 모습은 진즉에 사라진지 오래였다. 한참동안이나 텅 비어진 복도의 끝을 멍하니 보던 클로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르게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헤르세인에게로 향하는 걸음이 빨라질수록 루드비카의 심장은 미칠 듯이 요동 뛰었다. 어찌 보면 7년 만에 다시 밟게 된 레인 궁전. 레인 궁전에 가까워질수록 헤르세인과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이 마치 현실처럼 다시 새록새록 피어올랐다. 하지만 두 걸음 더 나아가기도 전에 루드비카의 추억을 방해한 건 다름 아닌 대악마 바알의 목소리였다.

"이곳이 인간들의 왕이 사는 곳인가? 생각보다 별거 없군."

“튀어나오지 말고 이대로 꺼져.”

단호하면서도 낮게 깔린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바알을 향했다. 그러나 돌아가기는커녕 어느새 완전한 모습으로 공중에 떠 있던 바알은 짓궂은 얼굴을 하며 루드비카의 어깨를 짚고는 키득키득 웃기 바빴다.

"왜?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나? 어차피 다른 인간들은 내 모습을 보지도 못 할 텐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꺼지라고.”

"흐음, 감격의 재회에 제 삼자는 빠지라는 소리군. 하지만 그녀가 널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감동의 재회를 했음에도 결국 그녀는 결국 너를 밀어냈는데 말이지."

오랫동안 루드비카의 육체에 깃들어 바알은 잠이 든 상태였으나 그의 몸에 깃들어 있는 이상, 싫어도 바깥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바알이었다. 물론 일부로 자신의 양쪽 귀를 차단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의 만남을 전부 지켜본 바알은 사악한 악마처럼 킥킥 웃으며 그의 신경을 은근히 건드렸다.

"그렇지 않나?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인데… 정작, 애타게 찾던 그녀는 너를 거부하니…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너를 밀어내는 그녀가 너무하다 생각되지 않나?"

“...”

"뭣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녀를 마력으로 유혹하여 너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겠끔 만드는 것쯤이야 쉬운 일이지. 어때? 루드비카.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할 말은 다 끝난 건가?”

조용히 바알의 말을 듣고 있던 루드비카는 싸늘한 눈으로 바알을 노려보며 가차 없이 거부의 의사를 드러냈다. 아니, 거부할 것도 없이 바알의 말을 끝까지 듣기는커녕 한귀로 흘러듣던 루드비카의 입꼬리는 어느새 바알을 향한 조소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해. 그러니 나를 돕고 싶거든 내 일에 나서지 마. 악마 따위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니까.”

"악마 따위라…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좋다. 네가 그렇게 바라니 원하는 대로 입 닥치고 물러나주지. 하지만 명심해라 루드비카. 인간의 감정은 변덕이 심한 만큼 부서지는 것 역시 쉽다는 것을."

그 말을 끝으로 바알은 검은 연기가 되어 다시 물처럼 스며들 듯 루드비카의 육체에 깃들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던 루드비카의 기분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알의 헛소리만 아니었다면 추억을 되새기는 기분으로 다시금 헤르세인의 앞에 설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지금 여기서 끝나 버린지 오래였다.

“쓸데없는 말을.”

만약 이곳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바알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행이도 사람한명 지나지 않는 실외의 복도. 루드비카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며 헤르세인이 있는, 이제 몇 걸음 채 남지 않은 레인 궁전을 향해 걸어갔다.

라즐리가 내어준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헤르세인은 멍하니 정원의 전체를 눈에 담아내고 있었다. 작은 새들의 지저귐과 아주 작은 산뜻한 바람의 소리. 그리고 바람에 스치는 풀잎과 꽃잎의 소리. 한동안 바짝 서있던 오감을 전부 내려두며 그녀는 눈을 감아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기 전에 라즐리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다시금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폐하.”

“무슨 일이냐.”

“그, 그것이… 라인하르트 경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경?”

그게 무슨 말이냐며 헤르세인의 눈이 라즐리의 뒤편으로 움직인 순간, 어째서 라즐리가 라인하르트 공작이 아닌, ‘경’이라고 불렀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사브레 왕실 기사단의 상징이자 또 고결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백색의 제복. 그리고 그것을 갖춰 입은 한 남자의 모습.

기껏 마음을 비워내려 할 때, 타이밍이 또 다시 나쁘게도 루드비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헤르세인은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서둘러 정면으로 고개를 돌려 눈을 꾹 감고는 라즐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은 피곤하니, 돌아가라 해라.”

“예, 폐하.”

헤르세인의 명령을 받고서 라즐리는 서둘러 거리를 벌려 멀찍이 떨어져 있는 루드비카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차갑게 내려진 명령과 다르게 루드비카의 대답은 라즐리를 당황시키는 일방적인 기다림이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 폐하께 전해주게. 나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라고.”

이쪽에 눈치를 보자니, 또 이쪽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니. 라즐리는 직감했다. 분명 오늘 하루는 만만치 않게 힘이 들 것이라고. 서둘러 헤르세인의 곁으로 다시 다가간 라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루드비카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했다.

“폐, 폐하. 라인하르트 경께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어찌할까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으나 헤르세인에게선 여전히 그 어떤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지길 몇 분이 흘렀을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은근한 눈치를 받던 중, 라즐리는 드디어 침묵을 깬 헤르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라즐리.”

“예! 폐하!”

“지금부터 이곳에 있는 시녀와 병사들, 전부 정원 밖으로 물려라. 그리고 누가 오거든 절대로 안으로 들이지 마라.”

“하, 하지만 폐하!”

“부탁하마.”

“…예, 폐하.”

만약 명령이었다면 그녀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라즐리는 결코 안 된다고 거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명령이 아닌,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은 그녀의 부탁어린 목소리에 결국 라즐리는 시녀들과 병사들을 전부 정원 밖으로, 제 자신까지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아주 작게 불던 바람이 잎사귀를 뒤흔들며 두 사람밖에 남지 않은 정원의 모든 잎들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잎사귀의 흔들림이 마치 제 떨림과도 같아 오랫동안 말을 아끼던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스듬히 고개를 튼 것이 전부였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인가. 라인하르트 경.”

“일단 폐하께 예를 갖추겠습니다.”

옷이 스치는 소리와 굽이 땅과 부딪치는 움직이는 소리까지. 양쪽 귀를 틀어막고 싶음에도 들릴 수밖에 없는 루드비카의 움직이는 소리에 헤르세인은 결국 몸을 완전히 틀어 예를 갖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정확히 한쪽 무릎을 꿇어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그 누가보아도 단숨에 시선을 빼앗길 아름다운 기사의 모습이었다. 제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아찔하기 짝이 없는 아름다운 사내.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과거의 사람. 환영식 이후, 헤르세인은 일부로 루드비카를 떠올리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이틀 만에 다시 루드비카의 모습을 본 순간, 그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헤르세인은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 과거에 얽매일 수 없는 법. 그가 살아 돌아왔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고개를 들라.”

“예, 폐하.”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켜버렸다. 그토록 밀어내고 있음에도 결국은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의 눈동자. 차라리 눈을 마주하지 않은 편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랐다. 이렇게 다시 제 가슴이 요동치고 흔들릴 줄은 몰랐으니까. 헤르세인은 최대한 제 마음을 꾸역꾸역 억누르며 혹시라도 손끝의 떨림을 그가 눈치 채기라도 할까봐 소매로 가려진 손에 꽉 힘을 준 채, 가까스로 입을 열 수 있었다.

“나를 굳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지?”

“다시 한 번, 폐하께 저의 충성의 맹세를 새기고자 함입니다.”

“맹세?”

“예, 제가 다시 기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폐하가 아니십니까.”

헤르세인은 하루 전,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클로드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부탁은 다름 아닌 루드비카의 기사 복귀. 클로드는 하나의 서류를 내밀어 간곡히 헤르세인에게 부탁했다.

"루드비카가 다시, 기사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그리고 루드비카의 신원 역시 다시 복구할 생각입니다."

"그대의 아우에 관한 신원의 복구는 잘 생각한 일이네. 하지만 어째서 다시 살아온 그대의 아우를 기사직에 복귀시킬 생각을 한 건가? 기사직에 복귀가 되면 또 다시, 위험에 처할 일이 생길지도 모를 터. 그걸 알고서도 복귀시키겠다는 건가?"

"루드비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폐하."

기사직을 정말로 원해서인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헤르세인은 선뜻 물어볼 수 없었다. 하지만 클로드의 현재 입지나 위치를 생각하면 루드비카를 다시 기사직에 복귀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리고 혹시라도 루드비카가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기사라는 작위는 유리하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망설이지 않고 루드비카의 기사 복귀를 허락했다.

그런데 하루 전의 일이 벌써 후회가 된다면? 이 일을 아주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가 기사직에 복귀되면 하루에 한번쯤 마주치는 일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 거라 가볍게 생각하고 말았으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다.

기사의 제복을 입고 오직 저만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헤르세인은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더 모질고 강하게 그를 밀어내기로 결심한 건지도 몰랐다.

“그대가 다시 기사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분명히 나다. 하지만 그대가 나를 충성하는 건 당연한 것인지 몰라도, 나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대를 포함하여 충성스러운 시녀장도 그대의 형도 귀족들도 모두,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왕이란 것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누구든 의심하고 경계하며 굳건히 왕좌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란 존재니까.”

“...”

“그러니 내 말뜻을 알아들었다면 이런 허울뿐인 맹세는 그만두고 돌아가라. 나는 그대를 상대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이대로 루드비카를 지나쳐 꼿꼿이 허리를 피고 걸어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를 완전히 지나치기도 전에 어쩌면 무례하게 손끝을 붙잡은 그의 행동에 헤르세인은 그 손을 내치려 했다.

“저를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폐하께서 저를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불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7년 전 그날. 저는 폐하께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는, 당신만의 기사로서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헤르세인은 더 이상 루드비카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시선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토해내지 않기를 바랐다. 이명처럼 들리는 과거의 목소리. 7년 전, 루드비카가 제게 했던 과거의 맹세가 헤르세인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곁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는 당시만의 기사로서 제 목숨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길 바랐다. 제발, 당신과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으로 저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랐다.

"헤세. 아니 헤르세인 왕녀전하. 이 보잘 것 없는 저의 목숨과 제 일생을 왕녀전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폐하, 이 보잘 것 없는 저의 목숨과 일생을 다시 한 번 폐하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영원히 전하의 곁에 저를 귀속시켜 주십시오. 전하의 하나 뿐인 검이 되고, 전하의 하나 뿐인 방패가 되어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폐하의 곁에 저를 귀속시켜 주십시오. 아니, 폐하의 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멀리서라도 좋습니다. 폐하께서 명하신다면 그 어떤 화살 받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전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몫의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제 검을 받아주십시오. 이 검은 오직 나의 주인 헤르세인…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폐하의 곁을 온전히 지킬 오직 당신만의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그때처럼… 놓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육체, 나의 숨, 나의 심장,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제 충성심이자 당신만을 향한 온전한 제 진심임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입안에서 맴도는 수십, 수백 개의 말들. 하지만 끝내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향해 그 어떤 말도 뱉어낼 수 없었다. 제 손끝을 소중히 잡아 조심스럽게 끌어당긴 루드비카의 모습은 여전히 보기 힘들 만큼 아찔했다. 저를 단단히 옭아맨 붉은 눈동자. 그리고 시선을 옭아맨 채, 손끝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입김과 손끝을 저리게 하는 입술을 감촉까지.

솜털이 바짝 설 만큼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눈짓과 손짓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저 손끝만을 잡은 것뿐임에도 전신을 타고 느껴지는 저릿함과 열기는 그녀를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방심할 틈도 없이 그대로 손끝을 타고 뜨겁게 입술을 움직이던 루드비카의 입술은 완전한 목적지를 찾은 하나의 지워낼 수 없는 인두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릿함을 담아 깃털처럼 손등에 내려앉았다.

“기억해주십시오, 이 맹세의 의미를… 그리고 폐하를 향한 제 충성심을.”

그때,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에게 온전히 신경이 집중되어 눈치 채지 못했다. 그곳에 제 마음을 확인하러 온 리카르도가 전부 지켜보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런 리카르도의 모습을 눈치 채고 일부로 손등에 제 입술을 찍어 내린 루드비카의 소유욕으로 비롯된 의도적인 행동이었음을.

달이 뜬 깊어진 밤. 촛불 하나를 켜놓고서 오랫동안 미동조차 않던 리카르도는 짙은 붉은 색의 와인을 유리잔에 따라냈다. 그리고 마시는커녕, 오랫동안 유리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바라보던 리카르도의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 아닌 사선으로 비틀어진 입꼬리를 만들어내어 단숨에 유리잔에 담긴 액체를 비워냈다.

마셔도, 마셔도 취하기는커녕 정신이 되레 번쩍 들것 같은 지금, 리카르도는 다시 와인 병을 들어 올려 마지막 남은 붉은 액체를 유리잔에 채워 넣었다.

톡, 톡, 하고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붉은 와인 방울. 아무리 흔들어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와인 병을 내려두고서 리카르도는 유리잔을 들어 올려 이번에는 누군가를 노려보듯 잔에 담긴 액체를 쳐다보았다.

“...”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레드 와인 특유의 색. 하지만 오늘부로 리카르도의 생각은 바뀌게 될지도 몰랐다. 레드 와인을 볼 때마다 저절로 떠올리는, 그리고 저를 도발한 한 남자의 모습을.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어.”

낮에만 해도 리카르도의 기분은 불쾌하긴 커녕 조금은 들떠 있던 상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을 만나고자 찾아간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라인하르트 공작. 그때만 해도 별거 아닌 인물이라 단순히 생각했지만 뜬금없이 제 앞길을 막은 공작의 행동 덕분에 리카르도는 그때부터 생각도 기분도 점차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한낮 왕국의 공작 따위가 감히, 제국의 황제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만약 이곳이 왕국이 아닌 제국이었다면 그는 이미 제 손에 처형당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곳은 협상을 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동맹국. 거기에 저를 보던 공작의 표정과 기세가 제법 제국에서 보기 힘든 대담함이었던지라 리카르도는 봐준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협박과 함께 공작을 가볍게 물려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생각한건지도 몰랐다. 그녀만, 헤르세인만 만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제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그러나 라인하르트 공작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리카르도는 레인 궁에 도착하고 나서야 인지 할 수 있었다.

레인 궁에 도착하자마자 정원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제 앞을 가로막은 시녀장의 모습. 어째서 시녀장이 정원 바깥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리카르도는 당장 헤르세인을 만나야만 했었다.

"사브레의 국왕을 보러왔다, 비켜라."

"송구하오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일개 시녀 장 따위가 감히, 황제의 앞길을 막는 건가?"

집무실 앞에서도 그러더니, 정원에서조차 리카르도의 앞길을 막았다. 마치 무언가 헤르세인과의 만남을 일부로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벌써 두 번째로 길이 막힌 리카르도의 기분은 좋아질 수 없었다. 이제는 기분이 가라앉기 보단 차게 식고 목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차가운 분노에 리카르도의 눈빛은 매섭게 시녀장을 내려다보며 재차 입을 열었다.

"비켜라."

"송구합니다. 현재, 국왕폐하께서는 중요한 손님과 독대를 나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누구냐."

"...예?"

"황제의 앞길을 막을 만큼 나보다 귀한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다."

중요한 손님이라. 여전히 분노가 들끓었지만 이젠 궁금하기까지 했다. 대체 제국의 황제를 가로막을 만큼 저보다 중요한 손님이 대체 누구인지 리카르도는 두 눈으로 확인해야 성미가 풀릴 것 같았다.

"그것이..."

하지만 중요한 손님치고는 어쩐지 시선을 회피하며 말을 흐리는 시녀장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리 중요한 손님이라 해도, 저보다 신분이 낮은 중요한 손님 따윈 존재할 리가 없음을. 그래서 리카르도는 시녀장을 무시하고 정원에 들어서기로 마음먹었다.

"화, 황제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원으로 들어가시면──!"

시녀장을 밀치고 리카르도는 성큼성큼 걸어가 완전히 정원의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헤르세인의 머리가 보일 쯤,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지만 그 이상으로 리카르도는 나아갈 수 없었다.

언제나 저를 볼 때마다 무표정이나 일그러진 표정이 전부였던 그녀. 특히 누구에게나 무표정이었던 그녀의 모습을 제 생각대로 파악한 리카르도는 그녀의 지금까지 모습들이 당연한 모습이라 여겼었다. 제 농담에 미간을 좁히거나 일그러진 표정을 빼곤 무수한 감정들이 섞인 그녀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단 한 번도 리카르도가 본적이 없던 얼굴이자 상상한적 조차 없는 얼굴이기도 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일그러짐과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임에도 자칫 잘못 건들다간 부셔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위태로움의 분위기. 그리고 일부로 거부하듯 무언가에 시선을 외면하는 그녀의 행동은 리카르도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저조차 드러나게 할 수 없는 감정을 만들어냈는지 리카르도는 그 원인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눈동자를 재빨리 주변을 향해 굴렸고 리카르도는 단번에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멀리서보아도 눈이 부시던 특이한 머리색인 은발. 그리고 옆모습만 보았음에도 여인이라 착각을 일으킬 것 같은 외모는 아찔하면서도 동시에 리카르도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인… 은 아닐 테고, 그저 계집처럼 생긴 사내인건가?’

제국에서조차 본 적 없는 외모를 지닌 사내는 틀림없었다. 저조차 아주 잠깐 보았음에도 이 세상에 저런 얼굴을 지닌 사내가 있나, 착각이 들만큼 매혹적인 얼굴을 지닌 사내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내가 그녀의 시선을 흔들고 저조차 본적 없는 표정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 리카르도는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듯 리카르도는 은발의 사내가 그녀의 손끝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손등에 입술을 지그시 맞춘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마치 소중한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제 존재를 그녀의 손등에 남기기라도 하듯 하나의 흔적처럼 입술을 맞추는 그 행위가 리카르도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입술을 손등에 맞춘 그 상태로 말갛게 끌러 올리던 입꼬리. 그리고 비소가 담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붉은 눈동자와 부딪친 순간, 리카르도는 은발의 사내가 환영식 때 불손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던 사내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을 앗아간 것도 표정도 감정도, 그 원인의 전부가 은발의 사내임을 깨닫게 된 순간, 리카르도의 입술은 기가 막힌 비틀림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놈이었군.’

목 끝까지 차오르는 수 십 개의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리카르도는 끝내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기 보단, 오히려 오직 은발의 사내를 노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붉은 눈동자가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명백한 비웃음. 그리고 저가 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그의 오만과 자만이 느껴졌다면?

이것을 과연 굴욕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리카르도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붉은 눈동자가 말하는 것처럼 리카르도는 그 자리를 저가 낄 수 없을 분위기임을 판단했기에 그대로 뒤돌아 조용히 정원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원을 빠져나와 리카르도가 향한 곳은 고작해야 왕실에서 마련한 침실.

덕분에 그때 이후로 밤이 깊어지도록 침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리카르도는 벌써 와인 2병을 비워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손에 들린 붉은 액체가 담긴 유리잔을 거의 노려보고 있던 리카르도는 이내 마지막인 잔을 비워내는 것을 끝으로 대충 손등으로 입가를 닦아냈다.

‘거슬리는 건, 당장 눈앞에서 치워내야 될 터.’

대충 입가를 닦다가 어느새 곰곰이 생각에 빠져 턱을 쓸어내리고 있던 리카르도의 눈은 매서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습관이기도 했다. 수풀에 숨어 사냥감이 방심하는 틈을 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물어뜯어 숨을 끊어낼지 상황을 계산하고 지켜보는 한 마리의 흑사자. 하지만 겉모습만 판단하고 사냥감을 다짜고짜 물어뜯기에는 장소가 고르지 못했다.

이곳은 엄연히 동맹국인 타국의 땅. 저를 지켜보는 수 백 개의 눈들이 많은 이상, 흑사자는 평소처럼 당당히 초원을 거닐 되, 사냥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생각해둔 계획들이 머리에 그려진 이상, 바로바로 실천해야 성미가 풀리는 리카르도는 깊은 밤중에 종을 울려 시녀를 불러 빌헬름을 데려올 것을 명했다.

“보좌관 빌헬름을 데려오도록. 지금 당장.”

몇 분 후. 아직 잠에 들지 않았는지 빌헬름은 여전히 제복차림으로 저를 부른 리카르도를 향해 불만하나 없이 예를 갖추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은발의 사내.”

“예?”

다짜고짜 알 수 없는 말을 뱉은 황제의 모습에 빌헬름은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리카르도는 빌헬름이 자신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가 기억하고 있는 짧은 정보를 토대로 빌헬름에게 설명했다.

“한눈에 보아도 가장 눈에 띄는 외모와 은발을 지닌 사내가 이곳에 있다. 옷차림을 보건데 기사제복이 틀림없겠지. 이름도 작위 따위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러니, 은발의 사내에 대한 정보를 당장 알아내도록.”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못 찾겠다, 이 말인가?”

리카르도의 눈썹이 불쑥 산처럼 솟아오르자, 빌헬름은 그대로 고개를 저어 명을 수행할 것을 대답했다.

“폐하께서 내리신 명을 감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오후 중으로 반드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다는 눈짓으로 빌헬름을 밖으로 보낸 뒤, 슬슬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카르도는 완전히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말끔한 모습으로 다시 제복을 갖춰 입어 빌헬름이 정보를 들고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침실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브레 왕국에 온 이후로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리카르도는 결국 산책이란 핑계로 대충 마땅한 장소를 찾아 검술 훈련할 생각으로 제국 호위 기사들을 이끌며 적당한 장소를 찾던 도중이었다. 한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익숙한 굉음의 소리. 리카르도는 어느새 소리를 따라 굉음의 소리가 들리는 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격 훈련장이군.”

코를 찌르는 탄약의 향과 새소리조차 없는 뻥 뚫린 사격 훈련장소. 그리고 리카르도의 등장으로 일제히 사격준비 훈련을 하고 있던 왕국의 기사들과 훈련병들은 전부 행동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예를 갖추었다. 제국은 물론 황성에서조차 흔히 갖춰진 환경이기에 금방 흥미가 식은 리카르도는 대충 훈련장을 훑고서 이대로 다시 검술 훈련의 장소를 찾으러 떠났다.

아니, 떠나려 했었다.

몸을 완전히 틀기도 전에 제 눈에 띄어버린 한 사람의 모습. 마치 고대하던 사냥감을 찾기라도 한 것처럼 짙은 녹안은 오직 은발의 사내에게 향하고 있었다.

“...”

저가 왔음에도 두려움을 갖기는커녕, 마치 신기하듯 탄환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내의 붉은 눈동자에 리카르도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 작은 코웃음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저가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는지 붉는 눈동자와 부딪친 순간, 리카르도는 한 가지 깨달았다.

계집처럼 보이는 겉껍데기와 다른 무언가가 그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으나 저가 보고 있음에도 여유로운 분위기나 빙긋 웃기까지 하는 얼굴을 보니 리카르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대로 긴 다리를 움직여 어느새 은발의 사내 앞까지 멈춰 선 그는 똑같이 입꼬리를 끌어올려 목소리를 냈다.

“지금 내가 몸을 풀, 대련 상대가 필요한데… 어떤가. 자네가 내 상대가 되어 줬으면 좋겠군.”

“송구하지만, 감히 황제폐하를 상대할 그릇이 못됩니다.”

얼굴만큼이나 목소리조차 달콤하기 그지없다니. 리카르도는 이대로 크게 헛웃음을 뱉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와 별개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일부로 도발하듯 의도적으로 저를 보던 사내의 붉은 눈동자를 리카르도는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상대할 그릇이 못된다? 하지만 그것은 도발의 시작 전에 불과했는지 다시 이어지는 사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리카르도의 눈빛은 이미 맹수처럼 매섭게 변해있었다.

“하지만 폐하께서 먼저 제게 요청하신 대련인 이상, 거절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제국의 황제폐하께서 한낱 왕국의 기사 따위에게 대련에서 지게 되면 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내 손으로 함락한 수십 개의 왕국 중, 자네만큼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도발하는 이는 본적이 없지. 좋다, 그 도발을 받아들이되 결국은 그 발언이 얼마나 어리석은 도발이었는지 금방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영광입니다. 황제폐하, 그럼 전력을 다해 폐하의 무릎 하나정도 꺾어보도록 하지요.”

겁을 내기는커녕 여전히 도발을 하며 빙긋 웃고 있는 은발의 사내, 루드비카와 정복전쟁이후로 한 번도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지 않았던 리카르도의 대련은 그렇게 갑작스레 시작되었다.

기사직에 복귀하고 나서부터 루드비카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사 훈련장에 출근 도장을 찍자마자 줄곧 따라붙는 시선들. 어쩌면 당연한 시선인지도 몰랐다. 죽은 줄 알았던 라인하르트 가의 차남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누가보아도 눈과 귀가 번쩍하는 이야깃거리였다.

하지만 정말로 죽었다 되살아나서 인지 루드비카를 보는 시선들은 하나같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꺼려지는 물건을 보듯 하는 시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죽었다가 멀쩡히 되살아난 사람은 정말로 어디에도 없으니까. 오죽하면 고대서적의 오랜 신화에서조차 전설의 영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한 구절조차 존재하지 않던가.

더욱이 인간에겐 두 가지의 수명이 있었다. 정해진 수명내로 살거나 혹은 병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수명. 설사,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신조차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수명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예상을 깨고 되살아난다? 이것은 역사기록에 적어도 이상하지 않을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살아난 것은 살아난 것. 죽었다 되살아났어도 루드비카를 영웅처럼 보거나 신격화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죽다 되살아났기에 보통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루드비카를 보는 기사와 병사들의 눈은 하나 같이 괴물을 보는 눈과도 같았다.

“죽다 되살아난 게 말이 돼? 알고 보니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아닐까?”

“에이, 설마. 너무 상상을 지나친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죽을 뻔,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태까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난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럼 대체 왜? 왜 여태까지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건데?”

모두가 루드비카를 보며 하는 말은 비슷했다. 괴물이라거나 혹은 죽은 척을 하고 어딘가에 숨어 지냈다거나. 모두 자신들의 상상을 펼치며 각자의 추리를 시작했지만 정작 루드비카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빙긋 웃어주기만 할 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의 관심과 시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기에.

곧 그 관심도 머지않아 지금보다 덜할 것을 예상하며 루드비카는 사격 훈련장에 들어와 머스캣을 들어 사브레 왕국의 신식 무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흐음, 이게 인간들이 새로 만든 무기인가? 기묘하게 생겼군. 그런데 이런 무기로 인간을 죽일 수 있긴 한 건가?"

루드비카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제멋대로 육체 밖으로 검은 연기처럼 나온 대악마 바알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한참동안 머스캣을 구경하던 루드비카는 다시 총을 내려놓아 이번엔 상자에 가득담긴 탄환 하나를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고작 이딴 게, 내 목숨을 끊을 줄은...’

손가락 하나의 길이조차 되지 않는 동그란 탄환. 루드비카는 저가 죽기 직전의 과거를 다시금 떠올렸다. 분명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은 긴박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오히려 사브레 왕국이 불리할 만큼 신식의 무기를 갖춘 몬테올 왕국의 전력에 밀릴 때마다 얼마나 애를 먹었던가.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면서도 무리하게 병사들과 기사들을 전쟁으로 내몬 위스턴 국왕의 실책이었다.

물론, 케시아와의 약혼식이 거행되기 전, 그것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일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루드비카 제 자신조차 예상할 수 없었던 전쟁의 전란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총으로 인한 죽음.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하필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심장에 저격되었던 지라, 루드비카는 제 심장이 다시 살아 뛰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루드비카, 저쪽의 검은머리 인간이 아까부터 계속 너를 쳐다보고 있군. 설마 계속 무시할 생각인건가? 그보다 저 인간, 환영식에서 너의 그녀와 함께 있던 그 괘씸한 인간이 아닌가?"

바알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루드비카는 어렴풋이 저를 보고 있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단지, 탄환에 집중하여 과거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잊어버렸을 뿐. 하지만 바알 덕분에 과거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을 볼 수 있게 된 루드비카는 말끔히 입꼬리를 올려 저를 쳐다보고 있는 황제와 당당히 부딪쳤다.

‘어제, 내 눈과 분명히 마주쳤음에도 물러나기는커녕 싸울 기세로 달려드는 꼴이라니.’

어제의 일을 루드비카는 잊을 수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온전히 제 충성심을 바쳐 맹세를 하려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은연중 나타난 황제의 존재에 루드비카는 제 의식을 방해한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로 보란 듯이 헤르세인의 손등에 제 입술을 맞추기까지 했다. 물론 후회는 없었다. 다만 황제가 사라졌을 때, 매섭게 내친 헤르세인의 모진 목소리만 들었을 뿐.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감히 내 허락 없이 이딴 짓을 저지르다니! 라인하르트 경! 그대는 나를 우습게 알고 능멸하기까지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한 번도 우습게 생각하지도 능멸할 생각조차 추호도 없음을 루드비카는 전부 제 속을 꺼내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설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녀의 외침과 매정히 뒤돌아가던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가. 저도 모르게 차오르는 원망은 보답 받지 못한 소유욕이 되어 한 번도 헤르세인에게 표현한 적이 없던 뒤틀린 본심을 입 밖으로 외치게 만들었다.

"폐하께서 아무리 저를 밀어내셔도 그저 미는 대로 물러나는 예전의 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물러나지도 폐하를 위한답시고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은 부를 수 없는 그녀의 이름. 그리고 혼자 속으로 밖에 부를 없는 하나 뿐인 그녀의 이름. 입이 근질거릴 정도로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가 불러주길 원한다면 그때까지 루드비카는 참을 수 있었다. 단지 예전과 다르다면 그녀가 먼저 부를 수 있겠끔 모든 사력을 다해,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흔들고 유혹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7년 사이, 그녀의 주위에는 시답지 않은 인간들이 널리고 널린 것이 문제였다. 아직까지 국서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를 노리고자 움직이는 귀족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던가. 바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왕성을 돌아다녔지만 마주친 귀족들마다 국서의 자리를 탐내는 사내들이 한 두 명이 아니란 것이었다.

가당치도 하물며 어울리지도 않은 같잖은 것들이 감히, 그녀의 옆자리를 노린다니. 마음 같아선 국서의 자리를 노리는 인간들의 눈이란 눈은 전보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루드비카는 그 목표를 귀족들이 아닌, 제일 먼저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에게로 목표를 정해야 했다.

환영식 때부터 그녀의 옆자리를 꾀고 앉은 황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거기에 제국의 황제랍시고 동등하게 옆자리를 차지한 그가, 헤르세인을 보고 있는 황제의 시선이 루드비카의 신경을 몹시 거슬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놓고 황제를 향해 도발하고 그가 검을 들게 만들었던 건지도 몰랐다.

본래의 대련이라면 목검을 가지고 대련을 하는 것이 정석. 하지만 목검이 아닌 살짝 피부에 스쳐도 핏방울이 맺힐 진검을 들고서 루드비카와 리카르도는 서로 마주보며 대련 장, 한 가운데에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련이 시작되기 전, 아직까지 검 집에서 뽑지 않은 묵직한 검을 가지고 루드비카를 마주하던 리카르도는 먼저 대련의 첫 규칙인 통성명을 걸고 넘어졌다.

“이름이 뭐지? 본격적인 대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련 상대는 자신의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방적인 규칙임을 모르진 않을 텐데?”

본래라면 그냥 넘어갔어도 될 시원찮은 규칙이나 굳이 첫 규칙을 강조하는 리카르도의 목소리에 결국 루드비카는 제 소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라인하르트 가의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어제 막 기사 작위에 복귀한지라 아직까진 검술이 서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를 볼 생각이 없으시다면 잘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검술은 서툴면서도 피하긴 피하라? 아까의 도발도 그렇고 자네는 상당히 겁이 없나보군. 아니면 머리가 아둔해서 겁을 상실한 건지... 알고 있나?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는 내 손에서 목숨을 붙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준비를 알리는 신호 없이 여전히 진검을 잡고서 한발자국 앞으로 먼저 나온 리카르도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매섭게 가라앉아 있었다. 살짝만 건드려도 언제 목이 베일지 모를 정도의 냉기와 살벌함까지 갖춰 있어 주변에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기사들과 병사들은 일제히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키기 바빴다.

하지만 빙긋 웃고만 있을 뿐, 제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던 루드비카는 이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지 언제 튀어나왔는지 모를 바알의 목소리가 흥미에 젖어 있었다.

"제국의 황제와 대련이라. 누가 이길지 너무 기대 되는 군. 어때? 황제를 이길 수 있겠나?"

“...”

"뭐, 내 힘을 쓰고 있는 이상, 네가 패배할 일은 거의 없겠지."

바알의 목소리에 대꾸할 가치도 없이 루드비카는 사뿐히 움직여 망설이지 않고 검 집에서 검을 뽑아 리카르도를 향해 돌격했다. 그리고 먼저 돌격할거라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리카르도역시 검을 뽑아 그대로 검을 받아쳤지만 부딪치는 강한 힘에 한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검을 내치는 것과 받아치는 엇갈린 타이밍. 리카르도는 그것을 정확히 노려 이번엔 본인이 검을 휘둘렀다.

캉―! 하고 부딪치는 날카로운 날과 날이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날이 부딪칠 때마다 공중으로 아주 잠깐 흩어지는 불꽃이 일어날수록 두 사람의 대련을 지켜보는 모두의 시선은 두 사람의 검술을 쫓기엔 일반 눈동자로는 따라 잡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과 공기를 베어내는 검 날의 움직임. 그리고 바람을 가르는 매서운 소리. 찌르고 베는 힘에 있어, 가장 높이 손을 들어준다면 리카르도 라 할 수 있으나, 날렵함에 있어선 루드비카가 월등했다. 덕분에 검을 휘두르는 족족 날렵하면서도 우아하게 피하는 루드비카를 볼 때마다 리카르도는 더욱 이를 갈며 검을 거의 내려찍다 시피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휙, 휙 하고 바로 귀의 근처까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루드비카는 여유롭게 피하고 있음에도 제게 검을 휘두르는 리카르도의 검이 거의 죽일 듯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겉보기와 다르게 검을 휘두를 때마다 보이는 그의 성격. 루드비카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도발로 하여금 리카르도의 속을 고묘히 긁어내렸다.

“정복전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신 분 치고는 생각보다 도발에 쉽게 넘어가시고 몸이 둔하신 것 같은데….”

“그러는 자네야 말로 내가 휘두르는 검마다 족족 피하기만 할 뿐, 첫 돌격과는 다르게 대담함도 배짱도 사라졌나 보군.”

그리고 다시 한 번 부딪친 일격. 서로의 어깨가 부딪칠 만큼 엇갈린 날붙이를 바짝 세우며 바짝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은 이 순간만큼 똑같은 마음으로 입꼬리를 비틀었다.

“감히 황제를 이렇게 도발하고도 무사할거라 생각하나?”

“그 도발을 알고도 넘어가신 분은 폐하이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네 놈이 거슬렸다. 그리고 지금도 무척이나.”

“동감입니다. 그래서 생각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본국으로 폐하를 돌아가게 만들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황제의 몸을 망가트려 이곳엔 얼씬도 못하게 만들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가 막혀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왔음에도 리카르도는 그를 향한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감히 황제의 면전에서 대놓고 헛소리를 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제 목숨이 아깝기에, 하물며 지나가는 어린애조차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제국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제국도 아닌, 한낱 왕국의 기사나부랭이 따위가 미쳐도 이딴 망발을 한다?

이것은 고문을 넘어 황제를 모욕한 사형감 수준의 발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당장 목을 쳐도 시원치 않을 상대를 리카르도는 제 뜻대로 검을 내리칠 수 없었다.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 난다 긴다 하는 검의 실력자들과 검을 부딪쳤지만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던 그였다. 구론대 처음으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이었다. 아무리 상대의 힘으로 억누르려 해도, 억눌러지기는커녕 미꾸라지마냥 얍삽하게 빠져나가는 날렵함. 그리고 검을 부딪치는 동시에 손을 타고 흐르는 상당한 저릿함은 오랫동안 전장에 목말라 있던 리카르도의 또 다른 본능을 끌어내게 만들었다.

제 수준의 실력자와 부딪쳐 끝까지 검을 맞대고 있다는 희열. 피가 들끓고 이대로 대련을 마치기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었다. 하지만 검술의 실력을 떠나 상대는 도발을 넘어 황제를 우습게 아는 기사나부랭이. 희열과 반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리카르도의 피는 다시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서 더욱 리카르도는 이 대련을 패배하고 싶지 않았다. 어떡해서든 승리하여 눈앞의 계집 같은 기사를 직접 그녀가 보는 앞에 무릎 꿇리고 제게 용서를 구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싶었다.

“황제를 모욕한 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지 마라. 내 눈에 뜨인 이상, 나는 반드시 네 놈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루드비카는 더 이상 정면으로 검을 맞대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리카르도가 눈치 채기 전에 이대로 그가 검을 물리기 전에 루드비카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검을 잡고 있던 손을 비트는 동시에 주먹 쥔 손으로 그의 아랫배를 가격하면서 몸을 한 바퀴 옆으로 회전하여 바로 발차기로 옆구리를 내리찍어 리카르도를 완전히 대련장 경계 바깥으로 날렸다.

콰앙─!

포환이 대련장 바깥의 폭발을 일으키기라도 한 것처럼 거센 먼지바람과 함께 무기상자들이 잔뜩 무너진 곳에는 리카르도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하지만 약간의 피해를 입었는지 입가에는 옅게 피가 흐르고 있었고 시선은 마치 괴물 한 마리를 보는 것처럼 루드비카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줄은 몰랐지만… 상당히 얼굴만큼이나 비겁한 수를 쓰는 군. 네 놈은.”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뱉으며 리카르도는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움켜잡은 채, 조금은 휘청 이며 걸음을 옮겼다. 아무리 정복전쟁이후로 오래 쉬었다 해도, 검 하나에 체력에 자신 있는 그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이 꼴이라니. 덕분에 리카르도는 찬물을 맞은 것처럼 번쩍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힘 조절을 한다고는 했는데… 꼴이 말이 아니군요. 황제폐하.”

“그런가? 하지만 이번엔 네 놈 차례임을 아는 게 좋겠군.”

그 순간, 검을 바르게 세워 호흡을 멈춘 리카르도는 눈을 감고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 그리고 은색의 날붙이에 불과했던 그의 검이 푸른 기운을 띄우며 검압에 둘러져 보다 날카로운 힘이 실리자 리카르도의 눈이 번쩍 떠진 동시에 어느새 루드비카의 바로 눈앞에 검을 난폭하게 휘두르는 그가 있었다.

콰앙──!

거대한 폭음의 소리와 절로 눈을 감게 하는 먼지 폭풍. 그리고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기사들과 병사들, 또 제국의 기사들까지. 기침과 동반한 가늘게 뜬 눈으로 모두가 두 사람의 모습을 찾기 바빴다.

바람과 함께 서서히 가라앉는 먼지 폭풍과 조금씩 드러나는 두 사람의 인영. 먼지가 전부 가라앉고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루드비카와 리카르도는 서로의 거리를 벌리며 여전히 검을 세운 채, 멀쩡히 서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멀리서 구경하는 이들의 시선에 그렇게 비칠 뿐, 검을 세우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팔의 소매가 반쯤 베인 리카르도와 뺨에 사선의 생채기가 새겨진 루드비카. 각자 맞부딪친 증거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두 사람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리카르도와 달리 생각보다 뺨의 생채기가 깊었는지 상처를 타고 눈물처럼 붉게 흐르던 핏방울은 이내, 루드비카의 입가에 스며들었다.

살짝 입가를 적셨음에도 입안에서 조금씩 느껴지는 특유의 향과 맛. 루드비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붉은 혀끝을 살짝 드러내 입술에 스며든 피를 핥아냈다. 달지도 그렇다고 쓰기는커녕 어느 정도의 미간을 찌푸려질 쇠 맛이 느껴지는 특유의 피 맛.

제게 뺨의 상처는 물론, 제대로 된 피 맛을 느끼게 해준 리카르도를 향해 루드비카는 뺨에 난 상처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씨알도 먹히지 않을 웃음기 섞인 한탄을 뱉어냈다.

“아아, 하필 상처자국을 남겨도 얼굴에 남기다니… 아무리 힘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얼굴까지 공격하는 건 너무합니다, 황제폐하.”

“너무하단 말투치곤 얼굴은 여전히 여유만만이군.”

여유를 떨면서도 제 모습을 잃지 않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리카르도는 다시 검을 세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최후의 일격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루드비카 역시, 검을 바로 세워 돌격 자세를 가다듬었다. 처음과 다르게 완전한 정막이 감싸인 대련장. 그 피 말리는 긴장감 속에 두 사람은 마지막을 향해 일격을 가하기 위해 이제 막 앞발을 움직이려던 찰나였다.

“지금 두 사람 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한발자국 나아가기도 전에 한 사람의 외침으로 멈출 수밖에 없던 두 사람의 살벌한 움직임. 어느새 두 사람이 서 있는 곳까지 가까이 다가온 헤르세인의 모습에 루드비카와 리카르도는 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승패를 결정짓기도 전에 끝이 나버린 대련. 그렇게 두 사람의 대련은 어느 누구의 승부 없이 막을 내렸다.

헤르세인이 대련의 소식을 접한 건 클로드와 길버트, 두 사람과 국경강화 문제로 회의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평소처럼 각자의 앞에 물 잔을 두고서 잠깐씩 목을 축이며 왕실의 경비강화까지 의견을 나누며 그것을 조율하고 있을 때였다. 한참 동안 이야기가 오고가던 중, 다급한 노크소리에 헤르세인은 목소리를 멈추고 조심히 들어와 저가 보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는 라즐리의 급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크, 큰일 났습니다! 폐하!”

“무슨 일이지?”

“어서, 서둘러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련장에 황제폐하와 라인하르트 경이 진검으로 대련중이라 합니다!”

안 그래도 황제가 왕국에 발을 들이민 것만으로도 헤르세인이 신경써야할 것은 많았다. 제 목숨보다 황제의 목숨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 우스웠지만 안타깝게도 황제는 그야말로 제국의 황제이자 소수의 왕국을 빼곤 모조리 정복전쟁으로 제국의 땅을 넓힌 황제. 싸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에 이곳에서 타국의 암살로 황제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건 사브레 왕국에게도 좋지 못한 이야기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고작 대련으로 신변에 위험이 생긴다? 말은 이상했지만 어찌됐든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려 하자, 마찬가지로 근처에서 루드비카의 소식을 들은 클로드 역시 뒤따라가고자 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곳에 남아있겠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집무실에 대기하는 길버트를 두고서 클로드와 함께 헤르세인은 평소보다 발걸음을 더욱 서두르며 금방 대련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련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변이 엉망진창인 것은 물론, 대포에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평평한 바닥이 이곳저곳 패여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대련장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도 문제는 바로 대련장에 칼부림을 하려는 두 사람의 모습.

이윽고 헤르세인은 배에 힘을 주어 두 사람을 향해 비난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베르디올의 황제! 그리고 라인하르트 경! 당장 그만 두지 못하겠소!? 지금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이오!!”

그녀의 노기 띤 목소리가 닿은 탓일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던 두 사람은 왜인지 살짝 풀이 죽은 얼굴을 하며 은근히 눈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눈치를 보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던 두 사람의 대련 문제를 당장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던 헤르세인은 여전히 미간을 좁힌 채, 두 사람에게 싸늘히 목소리를 냈다.

“상세한 이야기는 집무실에서 듣도록 할 테니, 두 사람은 날 따라오시오. 그리고 미안하지만 라인하르트 공작, 내 대신 이곳의 일을 수습해주었으면 하네.”

“알겠습니다.”

매정히 등을 돌려 먼저 앞서가는 그녀의 모습을 따라, 검을 완전히 내린 루드비카와 리카르도는 조용히 쫓을 수밖에 없었다.

집무실로 돌아와 자리를 지키던 길버트도 시녀도 경비병들도 전부 물린 채, 제일 상석이 아닌 황제와 마주볼 수 있는 맞은편 소파에 앉은 그녀는 이제 막 들어온 루드비카를 향해 단호히 명령을 내렸다.

“라인하르트 경은 그곳에 서 있도록.”

“...예.”

그에겐 눈길조차 주기는커녕 바로 맞은편에 앉은 리카르도에게로 시선을 부딪친 헤르세인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련의 이유를 물었다.

“대련을 한 이유가 무엇이오.”

그녀의 노기 띤 음성이 의외로 기를 죽이는 것 같아 은근한 눈치를 보던 리카르도는 조금은 망설이다 결국 대련의 이유를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따분했소. 그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몸을 풀 겸, 훈련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소. 그리고 우연히 사격훈련장을 발견하면서 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럼, 목검이 아닌 진검으로 대련한 이유는 무엇이오.”

“그건...”

얼핏 리카르도의 짙은 녹안이 뒤에 있는 루드비카에게로 향한 것 같았으나 다시 정 방향으로 시선을 부딪친 그는 옅게 숨을 뱉어내며 약간의 거짓을 섞어 털어놓았다.

“그건 내 실책이긴 했소. 하지만 목검보다 진검으로 대련하고 싶더군. 특히 저자와 붙으면 불을수록 오랫동안 검을 잡지 못한 욕구와 피가 끓더군. 검을 맞부딪치면 부딪칠수록 읽고 싶지 않아도 상대의 심리가 어떤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기분… 사브레의 국왕도 그 기분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상황을 즐기면서도 내 본능대로 열을 내어 달려들었던 건지도 모르오.”

“이제 보아하니, 베르디올의 황제는 앞뒤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군. 베르디올의 황제. 이곳은 사브레 왕국이자 그대가 스스로 땅을 밟고 들어선 동맹국이기도 하오. 그런데 황제라는 위치를 저버리고 아무리 동맹국의 기사라 할지라도 황제는 결코 타국에서 유혈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는 않을 터.”

“알고 있소, 내가 생각이 짧았군.”

그녀의 말처럼 타국에서 유혈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막상막하로 싸운 동맹국의 기사라면 더더욱. 또한 저를 향한 시선이 수십, 수백임을 어찌 모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타국에서 대련이란 잠깐의 칼부림으로 만약 누구라도 경악할 유혈을 보였다면? 물론 지금도 루드비카에게 아랫배와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당하기는 했으나 리카르도의 상태는 멀쩡했다. 그동안 키운 체력이 좋았기에 망정이었지 만약 평범한 기사였다면 그의 주먹이나 발차기에 벌써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멍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베어버린 찢긴 팔소매에 그녀의 시선이 오랫동안 닿고 있자, 리카르도는 망토로 그것을 대충 가리며 다시 한 번 진중한 목소리로 이번엔 제대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어리석음에 사과를 전했다.

“다시 한 번 사과하도록 하지. 잠깐 황제의 신분을 잊고 왕국의 대련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과 왕국의 기사에게 목검 대신 진검으로 승부를 유도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하는 바이오.”

“나는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도, 이 문제를 빌미로 삼아 베르디올 제국이 움직이는 것 역시 원치 않소.”

“그건 걱정 마시오. 제국에서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거든 내가 협박을 해서라도 입을 다물게 만들 테니.”

입단속도 아닌, 협박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말을 덧붙이려다 이내 그만두기로 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강한 파급력이 있을지, 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예상이 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으니 말이다.

‘역시, 제국의 황제는 황제라는 건가….’

호칭이 다른 왕일지라도 결국 왕국은 대국을 이길 수 없는 법. 황제의 말 한마디는 그만큼 국왕의 열 마디 보다 파급력이 강했고 황제의 한 마디에 아직 제국으로 편입되지 않는 왕국들은 결국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병권과 국력이 약한 왕국일수록 더더욱.

“무기에 관한 협상문제는 일주일 뒤로 미루겠소. 아무리 대련에서 상처하나 없다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진 이상, 베르디올의 황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소. 궁정의사를 따로 보낼 테니 생채기 하나조차 남기지 말고 치료받길 바라오.”

“배려, 고맙게 받아들지.”

리카르도가 집무실을 완전히 떠나고 어느새 두 사람만 남게 된 정적의 실내.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미동조차 없던 헤르세인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래전부터 쫓고 있던 루드비카가 이윽고 침묵을 깨트렸다.

“...폐하.”

조심스럽게 부른 루드비카의 나직한 목소리. 그러나 헤르세인은 뒤를 돌아보지도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창가 밖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또 다시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폐하….”

두 번째로 퍼진 그의 목소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건지 끝까지 루드비카를 무시하려던 헤르세인은 결국 살짝 고개를 트는 것으로 입술을 떼었다.

“왜 그랬지?”

“폐하….”

“왜 그랬냐고, 물었다.”

강압적이면서도 위압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던 루드비카는 이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치의 거짓 없이 그녀를 향한 눈짓과 저를 다시 돌아보겠끔 만들고 싶은 간절함. 루드비카는 매 순간, 헤르세인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갈증이 났다.

“질투가 났습니다.”

“...”

“폐하의 곁에 있는 황제가 무척이나 거슬리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국의 황제와 대련을 한 건가? 본인의 위치가 어떤지 잘 알고 있음에도?”

루드비카를 향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헤르세인의 표정에는 한겨울의 북풍처럼 매섭고 얼어붙을 노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을 보았음에도 루드비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 한쪽 무릎을 꿇어 변하지 않을 제 뜻을 대답했다.

“예, 제 위치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똑같은 일이 다시 온다, 해도 저는 황제폐하와의 대련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이 오랫동안 밑바닥에서 끓고 있던 용암이 폭발하는 것처럼 헤르세인의 감정은 화산처럼 분노를 담으며 루드비카를 향해 소리쳤다.

“그만! 지금 그대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알고 있는 건가?! 만에 하나 그대와의 대련으로 베르디올의 황제가 자칫 유혈을 보였다면 7년 동안 견고했던 사브레 왕국은 다시 흔들리고, 제국도 이 사태를 가만두지 않겠지! 그런데… 제국으로 인해 나라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를 텐데 그깟 알량한 마음하나 때문에 거부하기는커녕, 이 같은 일을 또 하겠다? 그대는! 그대가 나고자란 왕국이 우스운 건가!?”

“...제게 있어, 사브레 왕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살아 숨 쉬고 밝고 있을 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만큼 제겐 폐하가 더 우선이고 제 충성은 폐하에게 오롯이 향할 뿐입니다.”

“충성? 아니… 그대는 여전히 나를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여인으로서 보고 있을 뿐, 그대의 충성심은 고결한 것이 아닌, 사심으로 얼룩진 고결하지 못할 기사일 뿐이다!!”

아무리 왕에게 사심을 품는다 해도, 기사는 결코 그 사심을 충성보다 우선시 할 수 없었다. 기사란 무엇이던가. 자고로 고결하며 명예는 물론 충성심은 기사들에게 있어 지워낼 수 없는 규칙이자 근본, 그리고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한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충성심이었다. 지금에야 그 충성심이 예전보다 덜 하다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충성심은 목숨이자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충성심보다 사심을 앞세운다? 어찌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구절이 적힌 소설에서 볼법한 낭만적인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과 달랐다. 그의 사심으로 비롯된 질투가 계속 이어진다면 왕국이 흔들리는 것을 떠나, 그의 뒤를 따라붙을 추문과 각종 뒷담은 끊임없이 황제에게도 그리고 저에게까지 향하고 말 것이었다.

“폐하께서는… 제가 미우십니까?”

“...”

“이토록 저를 밀어낼 만큼 폐하께서는 제가… 미우십니까?”

“...”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 다시 한 번 폐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돌아온 저를 보는 폐하의 눈빛은 차갑고… 아픕니다. 저는 여전히 변치 않고 폐하를 사랑하고 있을 뿐인데 폐하께서는 제 충성심을 고결하지 못한 사심으로 보실 뿐이고 그저 저를 치기어린 아이마냥 보시는 겁니까? 저를 왜… 이해해주지 않으십니까?”

입안이 너무나 썼다. 그러나 입술만 몇 번이고 달싹일 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향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이토록 가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울 만큼 헤르세인에게 가혹히 속삭일 뿐이었다. 루드비카만은 결코 안 된다고. 7년 전의 첫사랑이자 풋사랑을 떠나 루드비카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뤄질 수 없는 불가능이었다.

오직 국왕의 뒷받침이 될 만한 권력의 기반자만이 앉을 수 있는 국서의 자리. 그리고 반려의 자리. 왕의 자리가 단순히 사심으로 욕심만으로 앉을 수 없는 자리이듯, 국서의 자리 역시, 권력도 기반도 없는 자는 결코 앉을 수 없는 자리나 다름없었다. 설령, 그의 마음을 다시 받아들인다 해도, 그 끝은 결국 귀족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할, 정부의 자리. 라인하르트 란 성을 달고 있음에도 권력이 없는 차남인 그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정부의 자리, 그곳 뿐 이었다.

왕의 정부라며 손가락질 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제 앞에선 멀쩡히 웃고 뒤에선 손가락질을 감내할 그의 모습을 과연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앞에서 빙긋 웃을 그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설령 그가 상관없다, 할지라도 헤르세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결국 고작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것이었으니까. 더더욱,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루드비카를 더 이상 저 하나 때문에 다시 죽음을 자처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순 없었다.

그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저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도록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온전히 밀어낼 각오를 이미 다지고 있었다. 다만… 이토록 애틋하게 간절하게 저만을 보며 아픔을 토해내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그 각오 흔들릴 뿐.

긴 소매로 가려진 주먹을 움켜쥐며 헤르세인은 각오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일부로 더 모질게 가시 돋친 말로 루드비카를 찌르고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

“내게 이해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그대가 내게 미우냐고 물었지? 그래… 나는 그대가 밉다. 내 일을 이런 식으로 치기어린 질투로 방해하는 그대가 밉고, 감히 황제와 맞서려는 그대가 미우며, 7년 가까이 지금의 왕국을 안정시킨 이곳을! 그대의 질투하나로 망칠 것 같은 그대의 어리석음이 밉다!”

“폐──!”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 이 이상! 그 어떤 짓도!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

“그대가 지금 이곳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그대의 형인 라인하르트 공작 때문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지난 7년 전, 미처 주지 못한 온정이다. 그리고 더 이상, 불손한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이건 왕으로서 명령이다. 라인하르트 경.”

또 다른 주먹을 움켜쥔 루드비카의 손에 강한 악력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지라도 그녀가 원한 것이기에, 그녀의 명령이 내려진 이상 따를 수밖에 없던 루드비카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안에서 맴도는 가장 하고 싶은 말들. 하지만 입술만 달싹이다, 결국 조용히 나가기로 선택한 루드비카는 그렇게 소리 없이 집무실에서 벗어났다.

현재, 리카르도는 제 앞에 우뚝 서 있는 빌헬름을 볼 수 있었다. 표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딴엔 불만이 가득했는지 빌헬름의 비난어린 목소리가 고요히 침실을 울렸다.

“어째서 그자를 봐주시는 겁니까? 그자는 감히 황제폐하께 검을 들이밀고 폐하의 몸에 해를 끼친 자입니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됩니다.”

“대련이었다. 단순한 대련.”

빌헬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대련은 결국 목검을 가지고 제 실력을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카르도의 대련은 남들이 생각하는 보통 대련이 아니었다. 누가보아도 사람 목숨하나 끊어낼 생존의 결투였었다. 그런데 단순한 대련이라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부터 어쩐지 대련 이야기를 회피하려는 주군의 모습에 빌헬름은 제법 속이 탔다.

“그 어떤 대련에도 진검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또한 대련 중에 비겁한 수를 쓰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련을 하는 자 역시 없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길게 꼬리를 무는 빌헬름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나직한 한숨을 뱉어냈다. 빌헬름의 말처럼 처벌을 했으면 진즉에 대련장에서 황제의 권한으로 처벌하고도 남았을지 몰랐다. 그러나 굳이 처벌하지 않은 까닭은 황제라는 체면도 있지만, 제게 물리적인 타격을 입힌 그의 행동을 고작 그런 이유로 처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별거 아닌 사내의 자존심? 물론 자존심이 없잖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로 처벌을 내린다면 얼마나 황제로서 치졸해보이던가. 누가보아도 둘 중 하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던 결투. 하지만 대련으로 시작했고, 그 도발을 받아들인 것 역시 제 자신이 아니던가.

빌헬름이 하고자하는 말은 잘 알겠으나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리카르도는 귀찮은 표정을 하며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명령을 내렸다.

“그만, 그 이야기는 이제 됐다. 그자의 제안을 무시했으면 그만이었겠지만 나는 그자의 도발을 받아들였고 어찌되었든 명목상의 대련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자도 나도 멀쩡히 숨은 붙어있게 되었지. 그러니 이 일을 더 이상 크게 벌릴 생각은 마라. 다 끝난 일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만하라 말했을 텐데?”

결국 입을 꾹 닫은 빌헬름의 모습에 만족한 리카르도는 푹신한 소파의 등받이에 등을 기대어 편하게 다리를 꼬았다. 대련은 대련이고, 일단 리카르도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편한 자세를 취한 채로 빌헬름에게 서둘러 물었다.

“내가 알아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종결 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주군이 더 이상 언급하기를 거부하는 이상, 빌헬름은 따라야만 했다. 이내 빌헬름은 옅은 한숨과 함께 저가 알아온 정보를 토대로 설명을 시작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은발의 사내, 그리고 오늘 대련장에서 폐하와 상대한 그자가 바로 라인하르트 가의 자제입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지금 말한 이름이 그자의 이름입니다.”

“그러고 보니 본인 소개를 할 때, 라인하르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전에 폐하께서 집무실 앞에서 만난 그 공작이 라인하르트 가의 가주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형제이나 생모가 다른 이복형제입니다.”

“이복형제? 이복형제치고는 상당히 우애가 좋은가 보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복형제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않을 텐데… 특히 대 귀족이라면.”

은발의 사내가 라인하르트 가의 사람이란 것도 놀랐지만 라인하르트 공작과 이복형제라는 점이 더 놀라운 리카르도는 간만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빌헬름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다.

“유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복동생을 계속 가문에 두고 있는 거 보면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인하르트 가를 조사하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

빌헬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7년 전 과거의 이야기로 거슬러 가야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7년 전, 사브레 왕국과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 기억하고 있다. 신생 왕국치고 무척이나 저돌적인 면이 있었지. 그 발판이 아마 사브레 왕국과의 전쟁이었나? 하지만 그 저돌적인 면이 주제파악을 못했던 건지 베르디올 제국의 국경을 계속 간보듯이 침범한 덕에 아마 내가 몬테올 왕국으로 군대를 보내라고 했었지?”

사브레 왕국과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 신생왕국답게 영토를 확장하고자 정복전쟁을 일으킨 몬테올 왕국의 기세는 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당시, 베르디올 제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화승총으로 몬테올 왕국이 얼마나 기세 좋게 사브레 왕국을 꺾으려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나 여러 발의 소식통으로 그렇게 사브레 왕국이 몬테올 왕국에게 흡수되나 싶던 찰나였다.

말은 신생왕국이지 대량으로 수입한 화승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걸까. 한두 번 정도야 국경에 침범한 그들을 눈감아준 리카르도였으나, 사브레 왕국과의 전쟁이라는 빌미로 보급로를 넓힌다는 이유로 제국의 국경을 아예 침범한 몬테올 왕국의 어리석음에 리카르도는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베르디올 제국의 쉬운 승리. 리카르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지휘관이었던 빌헬름에게 가장 빠른 파발을 보내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었다.

『매를 번 죗값은 톡톡히 쳐야하니 군대는 그대로 몬테올 왕국의 중심부까지 쳐라.』

사브레 왕국과의 전쟁으로 모든 병력이 사브레 쪽으로 향해 있어, 당시 몬테올 왕국은 거의 왕국을 지킬 병력이 없다시피 했다. 아무리 타국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라 해도, 왕국의 중심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승리한 전쟁도 결국 이름뿐인 승리에 불과했다. 결국 몬테올 왕국의 중심부까지 단숨에 몰아치게 되면서 몬테올의 국왕은 뒤늦게 깨닫기로 했는지 사브레 왕국과의 전쟁을 급히 접어버리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중심부까지 올라온 빌헬름에게 호소했다.

"내가 어리석었네! 잠시 눈이 해까닥 한 게야! 그, 그러니 제국의 황제에게 내 말을 전해주게! 하, 한 번만 봐달라고!!"

어리석은 몬테올 국왕은 모르고 있겠지만, 리카르도가 몬테올 왕국의 선 넘는 행동을 봐준 횟수는 한 번 아닌 총 세 번이었다. 그런데도 몬테올 국왕은 선을 또 다시 넘어버렸고 리카르도는 선택한 것이었다. 도른 넘는 선 넘는 자에겐 응징이 답이라는 것을.

하지만 7년 전, 사브레 왕국과 몬테올 왕국의 전쟁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리카르도는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그런데 그 전쟁과 라인하르트 가의 이상한 점이 대체 무슨 관계이지?”

“당시, 라인하르트 가의 두 형제가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몬테올 왕국이 물러나기 직전 큰 전투가 벌어지던 도중, 형제 한 명이 깊은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했다고? 하지만 공작도, 그자도 멀쩡히 살아있지 않나? 그리고 총상을 입은 건 누구이지?”

“총상을 입어 사망한 쪽은, 아까 전 폐하께서 보신 은발의 사내… 라인하르트 경입니다.”

“사망했다는 증거는?”

빌헬름은 당연하듯이 준비한 한 장의 종이를 그에게 건넸다. 리카르도는 그 종이를 받으면서 그의 훌륭한 정보 수집력에 감탄과 동시에 어떻게 이토록 빨리 정보를 알아내는지 수 십 년 동안 곁에서 보아온 부하를 다시 한 번 경이로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정보를 캐오는 이는 그대가 유일할거다, 빌헬름. 혹시, 나모르게 세력을 키우는 건 아니겠지?”

빌헬름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목소리만큼은 진중했다.

“폐하께 충성을 받친 몸입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정보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폐하의 보좌관이 될 자격 역시 없겠지요.”

“맞는 말이군.”

피식 웃으며 리카르도는 종이에 적힌 글씨에 집중하고자 다시 미소를 지워 한 글자 또박또박 글을 읽어 내렸다. 그리고 빌헬름의 말처럼 정말로 사망처리가 되어있는 루드비카의 기록에 리카르도의 눈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가늘게 떠져 있었다.

“확실히, 사망기록으로 되어있군. 혹시 사망처리 해두고서 어딘가 숨어 지냈다는 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숨어 지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자의 존재가 당시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숨어 지낼 만큼 중죄를 저지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아, 그러고 보니 그자는 당시에 약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대 귀족이라면 흔히 이루어지는 정략결혼 문제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당시의 폐후 소생인 케시아 왕녀입니다.”

“캐면 캘수록 사연한번 복잡하군.”

이 이야기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그물에 걸리는 먹이마냥 줄줄이 엮여 있었다. 겉모습과 다르게 이렇게나 이야기가 복잡한 사내 일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리카르도는 노을 지는 하늘처럼 주홍빛으로 타오르는 촛불에 종이를 불태웠다.

하얀 종이가 점점 검게 물들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종이는 그렇게 불꽃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심히 쳐다보던 리카르도는 이내 촛농을 흘러내리는 뜨거운 촛불을 가볍게 검지손가락으로 짓이겼다. 마치 누군가를 짓이기는 것처럼 촛불을 꺼트렸을 때, 리카르도의 눈빛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다.

“폐하?”

무언가를 느꼈는지 빌헬름은 주변 공기가 서늘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짙은 녹안을 빛내는 제 주군의 모습을 본 순간, 빌헬름은 저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말은 대련이라는 핑계로 그냥 넘어간다고 한, 주군이었으나 그것은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또 다시 은발의 사내가 선을 넘을 시, 그때는 정말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주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몬테올의 국왕처럼 그 꼴이 될지, 아닐지 두고 볼 일이군.’

제 주군이 가라앉은 눈으로 의지를 굳힌 이상, 은발의 사내는 선을 넘으면 정말로 끝장날지도 몰랐다. 설령, 그것을 계기로 사브레 왕국과 전쟁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으나, 결국은 그 사내가 선을 또 다시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사브레 왕국의 운명이 달려있을지도 몰랐다.

간만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왕성에 돌아온 로렌드는 다급히 집무실이 아닌, 기사들의 훈련장으로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로렌드는 단번에 기사들과 동떨어진 루드비카를 찾아낼 수 있었다.

“루드비카!”

어째서 루드비카의 머리색과 눈동자색이 변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누가보아도 루드비카임을 가리켰기에 누가보아도 틀림없는 제 하나 뿐인 친우임이 확실하기에 로렌드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다.

“너! 너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나한테 얘기라도 하던가!!”

“안녕, 로렌드?”

“안녕? 얼어 죽을 안녕이다! 그 빌어먹을 안녕 따윈 집어치우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설명하라고 이 새끼야!!”

루드비카의 멱살을 꽉 잡아 인형의 먼지를 털어내듯 강하게 흔드는 로렌드의 손짓에는 기쁨과 울분이 뒤섞여 있었다. 덕분에 뜻하지 않은 모두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시선이 부담스럽기 보단, 오랜만에 보는 로렌드의 일그러진 표정을 봐서 일까. 루드비카는 방긋 웃기보단 로렌드를 진정시키듯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정말로, 오랜만이야. 로렌드.”

“너… 정말로 루드비카가 맞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루드비카가 확실해?”

“응. 돌아왔어, 정말로.”

그날 이후로, 얼마 만에 보는 친우와의 만남이던가. 이내 로렌드는 처음으로 오글거리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멱살을 풀어 루드비카를 끌어안았다. 기억 속 밖에 떠오르지 않던 유일한 친우.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로렌드의 앞에는 살아있는 루드비카가 서 있었다.

훈련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은 루드비카와 로렌드는 한동안 주고받는 이야기가 없었다. 감격의 재회이전, 서로에게 무엇을 말해야할지 두 사람 모두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침묵을 오래 이어갈 생각이 없던 로렌드가 먼저 입술을 떼면서 침묵은 끝나버렸다.

“어떻게 된 거야? 넌 분명히 그날 죽었… 잖아….”

본인이 말하고도 이상할 어감이었다. 그러나 거부감 없이 오히려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친우의 모습은 여전히 로렌드에겐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다.

“응. 죽었지. 그날.”

“그딴 대답 말고! 너 대체! 아니… 그래 아무튼! 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건데? 당사자인 넌 모르겠지만, 그날 분명 내 두 눈으로 네가 묘지에 묻히는 것까지 확인했었어. 분명히! 근데 어떻게...”

“…글쎄.”

“루드비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가 중요한 로렌드와 그게 중요하냐는 루드비카의 묘한 무심함이 부딪쳤다. 하지만 로렌드가 얼굴을 일그러트리고 있음에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함에도 루드비카는 말할 생각이 없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로렌드가 악마의 존재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악마에게서 다시 목숨을 받고 살아 돌아왔다는 말만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할 제 친우의 성격을 모르지 않았다.

물론 하나 뿐인 친우이기에 믿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대악마 바알의 존재를 그 누구에게도 밝힐 생각도,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는 루드비카였다. 때문에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자 루드비카는 일부로 다른 질문을 꺼냈다.

“그보다,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옷차림을 보아하니 상단에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주 왕성에 드나드는 것 같은데.”

“너,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이야기를 회피할 생각인거야?”

“음? 내가 뭘?”

어깨를 으쓱이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루드비카의 뻔뻔함에 로렌드는 이마에는 진한 핏대가 섰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이야기의 흐름을 일부로 바꿀 만큼 아직은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에 로렌드는 결국 제 친우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줄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말하기를 거부하는 이상, 아무리 물어봤자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후우….”

이 선택이 올바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루드비카를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기에 로렌드는 작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들과 현재 왕성에서 외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를 차근히 설명했다.

“아클레아 상단은 필립스에게 맡겨둔 상태야. 물론 내가 완전히 상단 일을 접은 건 아니지만 외교단의 일도 겸하면서 상단에서도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의 폐하께서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신 덕에 상단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 어쩐지 표정이 예전과 다르게 달라져 보인다했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것도 왕실과 황실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이 네 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거기에 더 나아가 네가 밟지 못한 대륙을 전부 돌아다니며 네가 접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보고 느끼고 상단 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확실히 예전에는 귀족들만 상대했던 것보다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나라를 상대로 협상해야한다는 점이 좀 더 피곤해지긴 했지만 즐겁긴 해. 긴장감도 있고.”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다시 굳게 닫힌 침묵에 어떤 말을 꺼내야할지 로렌드가 고민하던 찰나,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로렌드.”

“왜?”

“혹시,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어?”

“갑자기 그건 왜?”

“그냥, 단순한 궁금증? 타국의 황제가 생각보다 왕국에 오래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된 걸까. 바로 얼마 전까지 베르디올 황제의 뒤를 따라 그것도 함께 사브레 왕국으로 돌아온 그였다. 때문에 많은 걸 알지는 못하더라도 베르디올 제국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로렌드는 살짝 코에서 내려온 안경을 바로 고쳐 올리며 저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대답했다.

“나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해. 정복전쟁이 아닌 이상, 황제가 직접적으로 동맹국에 발을 들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선구안이 타고난 건지, 총이라는 무기 하나로 베르디올 제국은 무기수출국이 될 만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면 능력 면에선 뛰어난 게 확실해. 물론 나도 왕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주 잠깐 본거라 어떤 황제인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단 베르디올 제국과의 협상이 불발되면 사브레 왕국은 불리해질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루드비카의 물음에 고심이 생각하듯 습관처럼 턱을 살살 쓸어내리는 로렌드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진지하게 바뀌어 있었다.

“현재 왕실에서 쓰고 있는 무기들은 전부 동맹국인 베르디올 제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지. 특히 화승총과 대포 쪽으로 무기들이 전면 교체된 건 알고 있지? 7년 전, 몬테올 왕국이 갑작스럽게 일으킨 전쟁도 있지만, 그때 당시 사브레 왕국은 다른 왕국보다 병력이 약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폐하께서 왕좌에 오르시고 기사단을 포함해 왕실내의 병권을 전면으로 개편 하셨지. 낡은 검과 방패를 버리고 새로운 총이라는 무기로 다른 왕국들처럼 병권을 강화시키는 것. 하지만 왕실의 자금을 생각하면 수입에도 한계가 있어. 특히나 총은 검 한 자루를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편이고. 그래서 폐하께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무기 제조법과 그것을 만들어낼 대장장이 인력들을 협상으로 얻어내실 생각이시지.”

“그래서 폐하께서는...”

루드비카의 소식만 들은 로렌드는 제 친우가 제국의 황제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깊이 생각에 빠진 루드비카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명백한 자신의 실수. 질투에 눈이 멀어 황제에게 대놓고 도발한 제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두 번이나 맨바닥에 제 손으로 직접 구르게 만들었다는 것이, 루드비카는 후회되기는커녕 즐겁기까지 했다.

제 손에 얻어맞아 바닥을 구르고 입가가 터졌던 그 꼴을 어떻게 보고도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젠 악마의 힘이 경이로우면서도 제 손으로 황제를 꿇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루드비카는 서서히 희열에 물들고 있을 때였다.

“루드비카, 너 표정이 왜 그래?”

“표정?”

“그래, 표정. 뭐에 쓰인 사람마냥 즐겁다는 듯이 웃고 있는 네 모습. 이상해.”

“그럴… 리가….”

루드비카는 자연스럽게 제 얼굴을 가리듯 움찔거리는 미소를 억누르려 했다.

‘언제부터 내 감정이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되지 않았다. 되살아나기 전까지만 해도, 루드비카는 제 성격이 어떤지, 저가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저도 모르게 제어가 되지 않는 감정들. 그리고 제어되기는커녕 더 불에 타올라 제 욕망을 부추기는 것 같은 치미는 분노와 질투.

루드비카는 현재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로렌드의 말처럼 제 모습이 이상하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혹시… 바알의 힘을 사용해서?’

만약, 바알의 힘 때문이라면 설득력이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악마의 힘을 쓸 때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감각들과 분수처럼 제멋대로 터지는 이 감정들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혼자 있을 때, 바알을 불러 얘기해봐야겠어.’

아무리 바알의 모습이 로렌드에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당장은 불러낼 수 없었다. 거기다 현재 바알은 깊이 잠들어 있는지 평소라면 바알이 나타날 때 생기는 예민한 감각들이 잠잠했다. 루드비카는 얼굴을 가린 제 손을 치워냄으로서 다시 가면처럼 만들어진 미소 띤 얼굴로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로렌드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짓으로 로렌드의 호기심과 의문을 잠재웠다.

“그러고 보니, 아까 좋은 일이 있었어. 아마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이상해보였던 건지도 모르겠지. 지금도 내 표정, 이상해보여?”

“아니,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응?”

안경을 벗으면 진짜 루드비카의 모습이 드러날지, 그것도 아니면 안경을 계속 씀으로서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할지 로렌드는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분위기며 웃고 있는 입꼬리며, 로렌드의 안경너머로 비치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위화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로렌드는 외면을 택하기로 했다. 솔직하게 물어도 대답해줄 것 같지 않은 루드비카의 모습이 보여 로렌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무것도.”

“...그래? 그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루드비카를 따라 로렌드도 무릎을 펴 번듯하게 허리를 세웠다. 루드비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로렌드는 궁금하기 보단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7년 전의 루드비카였다면 오히려 저를 귀찮게 했을지도 몰랐다. 그만큼 수다를 좋아하고 공녀들처럼 달짝지근한 차 마시기를 좋아하던 그였으니까.

그러나 다시 만나게 된 루드비카는 어쩐지 재잘재잘 떠드는 수다를 원치 않아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귀찮도록 눌러 붙어 차 마시자는 권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루드비카에게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떠나, 어찌됐든 루드비카가 살아 돌아 왔다는 것만이 로렌드에겐 기쁨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기쁨이고, 루드비카가 없었던 7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게 만들었다. 특히나 하나 뿐인 친우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녀. 그리고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앉은 그녀를 생각하면 로렌드는 당연하게도 루드비카가 제일먼저 떠올랐다. 그래서 먼저 앞서 느릿하게 걸어가는 친우를 다시 붙잡은 것이지도 몰랐다.

“루드비카, 너 아직도 그분을… 폐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냐?”

그리고 마치,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것처럼 로렌드의 예상대로 루드비카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응.”

“하지만 폐하는...”

“폐하께서 나를 몇 번이나 밀어내고 거부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있잖아, 로렌드. 한 가지 알려줄까?”

“…무엇을?”

“내가 이렇게 다시 멀쩡히 살아 숨 쉬고 여기까지 온건, 이미 내 모든 것을 폐하께 전부 바쳤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돌아올 곳은 오직 여기뿐이고,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야. 폐하의 존재. 그녀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녀가 죽는다면, 그때의 나도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그럼, 조심히 돌아가 로렌드. 시간나면 언제든 날 불러도 좋고. 그리고 정말로 기뻤어. 네가 아직도 나를 기억해줘서, 여전히 친우로 생각해줘서.”

로렌드는 침묵했다.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순수한 애정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차마 루드비카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루드비카, 네가 말하는 그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목구멍에서 걸리는 그 말을 차마 뱉어내지도 못한 채, 로렌드는 손을 휘휘 저으며 헤어지는 인사와 함께 점차 멀어져가는 루드비카의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침의 정무를 보기 위해 이제 막 침실에서 나오려던 헤르세인의 발걸음은 다시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거울에게 향했던 시선. 그리고 제 두 눈에 담긴 귓불에 걸린 루비 귀걸이를 본 순간, 이제야 헤르세인은 그의 유품을 오랫동안 몸에 지니고 있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한 눈에 보아도 가장 먼저 눈에 띌지 모를 붉은 루비 귀걸이. 마치 그의 눈동자처럼 시선을 뗄 수 없는 루비만의 화려함이 또 다시 굳은 결심을 흔들게 만들었다.

“폐하?”

제자리에 요지부동인 그녀의 모습에 라즐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시녀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한동안 꼼짝 않던 헤르세인은 결국 정무의 시간을 좀 더 미루고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했다.

“잠깐 생각할 일이 있으니, 조금 더 있다가 집무실로 가겠다.”

라즐리와 시녀들을 전부 침실 밖으로 내보낸 뒤, 완전히 혼자가 된 헤르세인은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제 손을 들어 여전히 귓불에 걸린 루비 귀걸이를 손끝으로 건드렸다.

“...”

오랫동안 귓불에 걸려 있던 차가운 금속의 장식. 그리고 루비 귀걸이를 건드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사람의 모습. 이내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어 양쪽 귓불에 걸려 있던 루비 귀걸이를 완전히 떼어냈다.

입안에서 몇 번이고 맴도는 그의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을 끝까지 입 밖으로 토해내지 않았다. 그 이름을 토해내는 순간, 지금까지 버틴 마음이, 굳은 결심이 강한 파도처럼 흔들릴 것 같아 헤르세인은 루비귀걸이를 들고 있는 손을 주먹으로 움켜쥐어 그것을 완전히 외면했다.

‘이제는 돌려줘야해, 내가 아닌 본래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

설령 귀걸이를 다시 돌려줌으로서 그가 받지 않는다 해도, 헤르세인은 더 이상 루비 귀걸이를 가질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귀걸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하게 만들 오해를 만들게 될지도 모를 테니까.

‘잘 된 거야, 이걸로 전부.’

여전히 손에 움켜쥐어 형체를 가려버린 루비 귀걸이. 그리고 라즐리를 불러 작은 케이스에 담아낼 때까지 귀걸이에 시선을 외면하던 헤르세인은 이내 그것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넘겨줄 것을 명했다.

“그것을 라인하르트 경에게 보내도록.”

“정말로… 폐하께서 이걸 내게 보내라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전날의 당직이 잡혀 공작 저로 돌아가지 못한 루드비카는 조금 늦은 아침에 저를 찾아온 시녀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반가운 아침인사보다 다짜고짜 제 앞으로 내민 작은 케이스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그것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굳어진 입매는 좀처럼 풀어지지 못했다.

“...”

시녀장이 떠나고서도 한참동안 손에 들린 내용물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러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지 검은 안개가 되어 모습을 드러낸 바알이 신기하다는 눈으로 그의 손에 들린 귀걸이에 강한 호기심을 띄웠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건… 그녀가 하고 있던 귀걸이가 아닌가?"

루드비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바알은 이미 귀걸이의 정체를 확신하고 있었다. 빈껍데기인 루드비카를 단숨에 이끌었던 귀걸이. 그리고 반쪽이 혼이 담겨 있었던 귀걸이이자 그의 눈을 완전히 세상에 뜨게 한, 루비 귀걸이. 인간의 눈으로 보나 악마의 눈으로 보나 루드비카의 손에 들린 귀걸이는 확실히 화려하고 세공조차 정성을 들인 티가 날만큼 영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걸려 있을 귀걸이가 어째서 루드비카의 손에 쥐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는 바알로선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너의 반쪽 혼이 담겨 있던 귀걸이가 어째서 그녀가 아닌 너에게 온 거지? 그녀가 네게 돌려준 건가?"

“네가 알 거 없어. 그러니 내가 부르기 전까진 닥치고 돌아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루드비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음을 바알은 눈치 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짓궂게 놀리는 것 보단 조용히 관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바알은 이내 어깨를 으쓱이곤 도로 루드비카의 육체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어가 버렸다.

방해되는 바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루비 귀걸이를 보며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던 루드비카는 저가 쓰게 웃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루비 귀걸이를 보며 잠시 동안 잊고 있던 추억에 젖어들게 되었다.

‘어머니...’

살아생전 어머니가 자주 꼈던 귀걸이.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귀걸이를 끼었다지만 저조차 감히 낄 수 없던 어머니의 유품. 너무나 소중해서 헤르세인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녀를 사랑하기 전까지 루드비카는 어머니의 유품을 그 누구에게도 선물로서 준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 누구도 모를 그녀의 상처를 알게 되고, 그녀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된 순간, 루드비카는 결심에 서게 되었다.

어머니가 남긴 하나 뿐인 유품을, 저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비록 죽기 전까지 그녀가 직접적으로 루비 귀걸이를 낀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7년 후, 그녀가 귀걸이를 끼었음으로 루드비카는 반쪽의 혼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살아 돌아와 그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매일 하루하루가 쓰라린 고통이자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닿지 못할 신분의 차이로 그녀는 왕이 되어 저를 밀어내고만 있었다. 물론,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모난 말을 뱉어낼 때마다 그것을 그저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자꾸만 상처가 되는 그녀의 모진 목소리가 루드비카의 이성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며칠 전, 베르디올의 황제와의 대련으로 얼마나 더 거부를 당했던가. 치기어린 질투로 어린아이처럼 황제를 도발하여 대련을 한 것은 사실이나 후회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가 다시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절실했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루비 귀걸이가 다시 제 손에 돌아온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완전한 거부이자 외면.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루드비카는 젖어 있던 추억에서 빠져나와 당장 헤르세인이 있는 집무실로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당연히 저를 거부할 거라 생각한 집무실의 문은 활짝 열려,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차분히 맞이했다.

“무슨 일이지? 라인하르트 경.”

“제게 루비 귀걸이를 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그대의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을 이유 따윈 없었으니까. 그게 전부다.”

“저는 이것을 폐하께 뇌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담아 폐하께 드린,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수했던 그 시절의 제 마음까지 짓밟고 외면하시는 겁니까?”

루드비카의 말투가 평소보다 거칠었지만 헤르세인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을 창가 밖의 풍경에만 모든 신경을 쏟아냈다. 이렇게라도 억지로 무언가에 신경을 쏟아야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대가 내게 주었던 순수한 마음까지 짓밟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그대가 불손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이상, 나는 그것을 온전히 내 귀에 걸 수는 없다. 나를 향한 그대의 욕망이 젖어 있을 귀걸이를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욕망? 지금 욕망이라 하셨습니까?”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여전히 등을 진 채, 창가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던 헤르세인은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발소리를 따라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한쪽의 팔을 쭉 뻗어 유리창을 거칠게 짚은 그의 돌발 행동에 헤르세인은 숨을 멈춰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가까운 숨결을 느껴야 했다.

“폐하께서는 전혀 모르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내가 어떤 욕망으로 당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욕망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지...”

당장 숨을 뱉어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조금씩 거칠게 그리고 간드러지게 숨결로 목덜미를 괴롭히는 욕망이라는 열기가 이내 헤르세인의 눈을 질끈 감게 만들어버렸다.

“헤세.”

번쩍하고 눈이 떠졌다. 당장 뒤돌아 허락하지 않은 이름을 부른 그를 향해 소리치고 응당 비난해야 했다. 하지만 목덜미에서 다시 타고 느껴지는 가늘고도 뜨거운 숨결. 그리고 이제는 손끝을 타고 천천히 겹쳐지는 온기에 헤르세인의 모든 사고가 멈춰져 버렸다. 어떻게 호흡 하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신경이 그가 스치는 열기에 집중이 되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예민한 감각들이 그녀의 눈을 다시 질끈 감게 만들었다.

“...느껴지십니까?”

“...”

“고작… 손끝 한마디 스쳤을 뿐임에도 당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싶은 내 욕망을.”

“그만...”

처음에는 불에 댄 것처럼. 그리고 가시에 찔린 찰나의 쓰라린 아픔처럼 그녀의 손끝과 루드비카의 손끝이 미세하게 스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불타오르는 화마처럼 그녀의 손등을 완전히 감싸, 꼼짝할 수 없도록 손가락 틈 사이사이 마다 파고든 루드비카의 손짓은 이내 소유욕을 강하게 드러냈다.

절대로 제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담대함과 엉켜 있는 손가락 사이로 진득히 느껴지는 욕망. 헤르세인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하게 손을 쳐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의식하기도 전에 유리창에서 팔을 떼어낸 루드비카의 손끝이 느릿하게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올라가 어쩌면 더 예민할지 모를 말랑한 귓불을 살살 어루만지고 천천히, 또 아주 천천히 붓끝처럼 쓸어내렸다.

“폐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밉다고. 어린아이처럼 치기어린 질투 따위를 하는 내가 너무도 밉다고.”

“…그… 만...”

귓가에서 바짝 들리는 그의 숨소리와 피부를 달콤하게 녹일 뜨거운 숨결. 그리고 등에서 바짝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육체가 헤르세인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두 다리를 덜덜 떨리게 만들었다.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거부해도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귓가를 뜨겁게 녹아내릴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자꾸만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자극들. 헤르세인은 창가에 어스름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도 모를 달뜬 숨을 토해내며 완전히 녹아내릴 것 같은 얼굴로 루드비카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반사되는 창가의 빛을 통해 제 눈을 단단히 옭아매는 그의 붉은 눈동자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적인 악마와도 같았다.

“하지만, 헤세.”

“...”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내 전부를… 과거를… 부정하지도, 거부하지도 말아주십시오.”

그때, 그의 품에서 숨을 힘겹게 토해내던 헤르세인은 귓불에 걸리는 금속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 귀걸이를 손에 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끼어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녀는 다시 제 귓불에서 흔들리는 귀걸이의 무게를 느끼며 외면하듯 아랫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전부 끼워진 순간, 여전히 열기에 젖은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의 헛숨을 삼키게 만들었다.

“이 루비 귀걸이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내 모든 것을 바친 나의 모든 것. 그러니 두 번 다시 이 귀걸이를 내게 돌려주지도 빼지도 마십시오.”

“...”

“하지만, 만약 또 다시 이 귀걸이를 내게 돌려준다면 그때는… 이렇게 봐주지도 끝내지도 않을 겁니다.”

나직한 속삭임 속에 깃든 은근한 경고. 그리고 루비 귀걸이가 걸린 그녀의 귓불에 뜨거운 인두를 찍어 내리듯 제 입술에 정염을 담아 맞춘 루드비카는 마치 이곳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방 그녀에게서 떨어졌지만 짙은 소유욕만을 남긴 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

“하아… 하아….”

루드비카가 떠나고 온전히 혼자 남게 된 현재. 헤르세인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야 폐에 신선한 공기가 차오르듯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지만 사그라지지 않을 낮선 감각들이 헤르세인을 아직까지 괴롭혔다.

“흑...”

어쩌면 오랫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낮선 자극들. 헤르세인은 양 팔로 제 몸을 감싼 채, 그 감각들이, 자극들이 사라지기를 닿지 않을 하늘에게 빌고 또 빌었다.

오랜만에 왕성을 찾아온 빈센트, 그리고 아이르리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헤르세인은 간만의 소소한 평온을 느꼈다. 물론 이야기 도중에 두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로 루드비카의 이름이 아주 살짝 언급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이끈 빈센트 덕에 살짝 어색해진 분위기는 다시 풀어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곧 수확제가 다가오는데 이번 수확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폐하.”

1년에 한 번씩은 꼭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브레 왕국의 축제와도 같은 날. 하지만 작년 수확제는 좋지 않은 가뭄으로 인해 농가와 과수원의 흉년이었던지라 처음으로 수확제 없이 지나간 제 작년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이도 올해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서류들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 헤르세인은 마음 놓고 이번 수확제는 모두를 위해 크게 진행시킬 생각이었다.

“이번 수확제는 크게 진행하려한다. 기간도 조금 늘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 되도록 빨리 서둘러야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귀족들을 위한 자리도 만들 생각이다.”

“그럼 폐하. 혹시 생각해두신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건 어떠십니까?”

이번 수확제에 무언가 생각하고 왔는지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 하는 빈센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기까지 했다. 대공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정치나 학문에 게을리 하지 않는지 전혀 생각지 못한 다양한 구상들 덕에 헤르세인은 조용히 경청하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냥대회라면 나쁘지 않겠구나.”

“예, 폐하. 이번 사냥대회를 열어 폐하를 향한 귀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냥대회라는 특별한 사교모임을 주최하게 된다면 몇 달간은 귀족들의 움직임이나 방정맞은 입들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또, 제국의 황제폐하께 말씀드려 참석하게 하신다면 보는 눈들도 많아 백성들의 민심이나 동맹국의 의리를 확고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국서의 문제로 한동안 귀족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것을 헤르세인은 모를 리 없었다. 결국 올해 중으로 국서를 맞이하겠다는 선언에 귀족들의 불만은 쏙 들어갔지만 그 잠잠함이 지속될 일은 없었다. 결국 몇 달 동안 그들의 입을 봉인시킬 방법은 사교모임을 만들어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 특히나 나서길 좋아하고 자신이 가진 재력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귀족들의 특성상 이런 특수 모임일수록 입을 가만두지 않을 그들이었다.

그러니 한동안 사냥대회라는 이야기만으로 몇 달은 길게 가도록 그들의 흥미와 상금이 걸려있는 성취감까지 만들어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더욱이 사냥대회를 틈 타, 빈센트와 어울릴 짝을 눈 여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헤르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눈 여겨만 보는 것이지 결국 짝을 정하는 것은 빈센트의 몫이기에 헤르세인은 깊게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 얘기는 라인하르트 공작과 그레이스 공작에게 잘 얘기 해보겠다, 그러니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날 도와주거라 빈센트.”

“물론입니다, 폐하.”

빈센트와 아이르리스가 돌아가고 레인 궁의 정원에 다시 혼자 남게 된 헤르세인은 이제 막 집무실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언제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라즐리의 옆에는 베르디올의 황제가 조용히 서 있었다. 헤르세인은 서두를 것 없이 라즐리를 자리에서 물리며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황제에게 대답했다.

“여긴 무슨 일로… 내게 할 말이라도 있소?”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무기의 협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온 황제를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마침 황제에게 사냥대회에 관해 이야기를 해두는 편도 좋을 것 같아,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주앉아 차를 마시는 대신, 산책 겸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쪽으로 선택한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나란히 황제와 정원을 걷고 있었다. 제 사람이 아니고선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레인 궁의 정원. 그의 위치를 생각하면 타인이나 다름없는 그를 이곳에 발을 들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져서 일까. 멀리 떨어져 있는 집무실 보다, 이렇게 조용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 헤르세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황제의 모습에 결국 먼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곧 왕국의 수확제가 열릴 예정이오.”

“수확제?”

“아마, 무기 협상얘기가 끝나고 나면 수확제가 시작될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베르디올의 황제만 괜찮다면 사브레 왕국의 수확제에 초대하고 싶소.”

“나를 말인가?”

딱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헤르세인은 말을 덧붙였다.

“만약 초대에 응하게 된다면 사냥대회가 아닐까 싶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으나 사냥대회로 하여금 베르디올 제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이어가고 싶은 내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오.”

“그렇군.”

전혀 생각지 못한 제안이기 때문일까. 처음으로 동그란 눈을 하며 헤르세인을 보고 있는 리카르도의 표정은 평소에 볼 수 없던 묘한 감정들이 겹쳐 있었다. 물론, 감정보다 그녀가 먼저 건넨 제안이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던 리카르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대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처음으로 그대가 개인적으로 건넨 초대이니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 좋소, 사냥대회이든 무엇이 되었든 수확제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도록 하지.”

“그렇게 쉽게 초대에 응해도 괜찮겠소? 그래도 베르디올 제국에선 황제가 협상을 끝내고 빨리 돌아오길 바랄 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았군, 그대는. 내 한마디에 반대의 손을 드는 자가 있다 해도 나는 제국의 황제이오. 내 선택이 제국을 위한 것이고, 내 한마디는 제국을 위한 것이 될 것이오.”

“...”

이래서 제국의 황제라 칭하는 걸까. 아무리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해도, 제국과 왕국의 힘의 차이가 좁혀질 수 없음을 헤르세인은 깨달을 수 있었다. 물론, 황제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가 정복전쟁을 통해 거대한 땅을 넓힌 것과 수많은 왕국을 복속시킨 것, 그리고 감히 귀족들조차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제국의 황제이기에 그의 오만은 당연한 것이자 타고난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였을까.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옅게 입꼬리가 올라간 헤르세인의 모습에 그 모습을 똑똑히 본 리카르도의 표정과 입매는 어느 순간부터 굳어져 있었다.

“지금...”

리카르도는 소리 내어 물어보고 싶었다. 지금, 당신이 미소를 지은 것이 맞느냐고.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이 되었든 저를 통해 미소가 나온 것이 맞느냐고, 묻고 싶었다.

왜일까. 이상하게도 욕심이 나는 건. 애초에 레인 궁까지 온 목적은 하나였었다. 무기 협상을 조금 앞당기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리카르도는 이곳까지 기어코 찾아온 것이었다.

루드비카와 목숨을 건 대련이 있었던 그날 이후. 리카르도는 침실에 틀어박혀 많은 생각을 했었다. 황제로서의 체면과 황제로서 이성적으로 또 우선시해야할 일들을. 애초에 본래 목적은 단순했었다. 동맹국인 사브레 왕국을 향한 호기심이자 왕녀로서 최초의 여왕이 된 그녀를 보기 위한 단순한 발걸음.

하지만 첫인상과 다르게 리카르도의 시선은 쭉, 이미 처음부터 그녀를 쫓고 있었다. 최초의 여왕을 처음 보았다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그녀에게선 시선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게 거짓된 미소는커녕 북풍한설의 겨울마냥 매서움과 차가움 밖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 그래서 괜히 그녀의 시선을 제게 주목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 얼음 같은 얼굴에서 저로 인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러나 첫 시작이 잘못 된 것이었을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자꾸만 관심이 갈수록, 리카르도는 전쟁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다. 어떤 감정인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답답하면서도 뭉글뭉글한 처음 느껴보는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을 손바닥 뒤집듯 제게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해준 은발의 사내, 그가 나타난 순간 리카르도는 어린아이들이 넘어갈 법한 도발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물론, 분노란 감정을 이번에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갖은 감정들을 느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리카르도에겐 생소한 일이었다. 그리고 목검이 아닌 진검을 가지고 목숨이 오고가는 대련 도중, 리카르도는 분명 느꼈었다. 저를 상대하는 은발의 사내를 죽이고 싶다고. 그의 건방진 도발과 비겁한 주먹질이 있기 이전, 한 사람을 그토록 죽여내고 싶은 감정을 가진 건 리카르도로선 처음이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등장으로 승부조차 없이 끝나버린 대련. 그리고 살아생전 본적도 없던 어머니, 황후에게조차 제게 모질기만 했던 아버지, 선황제에게조차 비난을 받아본 적 없던 리카르도는 헤르세인에게 처음으로 비난을 받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보좌관인 빌헬름의 말처럼 지금 자신이 벌이는 행동들은 전부 황제로서 보인 적이 없던 행동들. 그리고 황제로서의 판단과 체면을 다시 생각해야할 때. 그래서 대련의 일은 말끔히 잊고 정말로 이제는 제국의 황제로서 리카르도는 본래의 목적대로 움직일 생각이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모두 무너트리듯 고작 아무런 의미도 담겨있지 않은 미소이자 웃음일 뿐임에도 그것에 사로잡힌 리카르도는 비로소 이 감정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헤르세인, 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잠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 그녀의 이름. 하지만 그토록 거부했던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오히려 갑작스럽게 헤르세인은 흔들리는 눈을 하며, 리카르도의 양팔을 꽉 붙잡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시, 실례인줄 알지만 또… 미안하지만 나를…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도와달라니? 대체 무엇을...”

“아주 잠깐… 아주 잠깐이면 되오. 그러니 딱 한번, 나를 밀어내지 말고 참아주시오.”

“대체 무슨 말을...”

그때였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리카르도의 양팔을 붙잡은 헤르세인이 먼저 움직인 건. 그녀가 붙잡은 손에는 절박함이 담긴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분명 한참 아래에 있던 그녀의 정수리가 솟아오르며 여전히 시선은 위 아래로 엇갈려 있지만, 리카르도는 아직까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

“...”

숨결이 바짝 느껴질 정도의 비좁은 거리. 그리고 둘 중 누군가 잘못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분명 입술을 맞부딪칠 아슬아슬한 거리감. 이건 틀림없는 서로간의 입술을 부딪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행위를 깨닫고 저도 모르게 떨렸던 떨림도 잠시, 서로의 얼굴을 훑는 숨결만 바짝 느껴질 뿐, 입술의 감촉 따윈 전혀 느껴지지 않는 더 이상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에 리카르도는 비로소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주도아래 입술만 부딪치지 않았을 뿐, 지금 이 상황은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의 입맞춤임을.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줄곧 저가 아닌, 어깨 너머의 누군가에게 향해 있음을.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온 정신을 그녀에게 쏟아 붓기엔 등 뒤에서 아주 점점 사라지는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때, 리카르도는 드디어 이번에는 제대로 헤르세인을 볼 수 있었다.

제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녀의 손끝.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던 힘이 실린 나머지의 손이 떨어진 순간, 리카르도는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하나는 심장이 터지도록 떨렸던 두근거림과 하나는 바닥으로 치닫는 실망감. 특히, 그 실망감이 너무나 컸기에 리카르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다.

“한 가지만 묻지.”

“...”

“그대에게 있어, 그 사내의 존재는 대체 무엇이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면… 하지만 필요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하면 나를 이해해줄 텐가?”

헤르세인의 푸른 눈동자에는 리카르도를 향한 미안함을 담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이기적이었다 해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해도 결국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은 것도 저였음을 리카르도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차마 뺄 수 없었던 루비 귀걸이. 귀걸이의 작은 흔들림이 일어날 때마다 헤르세인은 제 몸이 그날을 기억하는 떨림을 멈춰낼 수 없었다. 아직도 그날의 감각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의 숨결과 피부를 스쳤던 열기의 손짓들과 그 손짓 속에 묻어 있던 강렬한 욕망까지. 마치 각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날 하루 동안 제대로 된 정무를 못 볼 만큼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감각들을 어떡해서든 지워내고자 했다.

하지만 하늘은 마치 그 감각들을 지워내선 안될 천벌처럼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었다.

그가, 루드비카가 제 시야에서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그가 제 몸에 새긴 감각들은 결코 지워질 수 없음을.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왜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실천했는지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제 자신이 일으킨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누가보아도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 하지만 정원 너머의 그의 모습을 본 순간, 황제 어깨너머의 붉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를 밀어내기 위해, 그가 새긴 감각들을 지워내기 위해, 어쩌면 본능적으로 행동한 짓일지도 몰랐다.

있는 힘껏 황제에게 닿고자 들어 올렸던 발뒤꿈치.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닿을 만큼의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좁은 거리. 절박하게 황제를 붙잡고 있던 다른 손은 어느새 또 다른 벽을 세워 황제의 입술을 가로막았고 제 손끝을 향해 헤르세인은 제 입술을 맞추었다.

누군가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입맞춤의 행위이자 그것도 황제가 아닌 한 나라의 국왕이 먼저 상대를 향해 입술을 맞추는 형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그가 먼저 실망을 하고 뒤돌아 설 때까지 제 손 끝에 맞춘 입술을 떼어내지 않았다.

여전히 시선은 그를 향한 채, 제발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실망해주기를 바라며 헤르세인은 끝내 눈을 감아버렸다.

‘제발… 내게 실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대로 돌아가 줘. 제발...’

그 간절함이 하늘에게도 그에게도 드디어 닿았던 걸까. 다시 눈을 떴을 땐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정원에서 빠져나갔음을 완전히 확인한 순간 헤르세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황제의 곁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저가 보인 행동보다 실망어린 표정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를 내는 황제의 물음은 헤르세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대에게 있어, 그 사내의 존재는 대체 무엇이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면… 하지만 필요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하면 나를 이해해줄 텐가?”

차라리, 왜 이런 짓을 벌었느냐고 다그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저를 다그치는 것이 아닌 그의 존재의 여부를 묻는 황제의 질문은 다시금 애써 지워내려 했던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다.

완벽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

그 사람… 루드비카는 제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자, 사랑이자 고통이었다. 만약 누군가 묻는 다면 단순하게 생각할지도 몰랐다. 권력을 가진 왕이 무엇이 두려워 오랜 사랑을 밀어내고 계속 거부할 이유가 있을지.

권력의 정점이자 귀족들조차 감히 함부로 앉을 수 없는 왕좌. 그리고 오직 왕족만이 머리에 쓸 수 있는 하나 뿐인 왕관. 왕좌에 앉게 되는 왕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하늘의 자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 가질 수 있어도 왕은 결국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왕의 자리이기도 했다.

어째서 역사에 기록된 몇몇의 선대왕들 중, 애정 없는 정략혼인으로 이루어진 왕후들이 아닌 진정으로 정을 나눈 여인이 왕후의 칭호 대신 첩과도 같은 백작부인의 칭호가 내려졌겠나. 그만큼 왕의 반려 자리는 정실의 자리는 하나의 권력이자 왕의 또 다른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이었다. 대귀족가의 공녀가 아닌 이상, 중소 귀족의 공녀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자리. 대귀족가에서 적장자로 공녀들이 태어났다면 이미 그녀들은 정해지지 않은 왕의 반려 후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역사에 기록된 선대왕들의 애정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왕의 반려는 신중해야했고 사랑으로만 맺어지기엔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더더욱 지금의 현왕은 사내가 아닌 여인이었고 왕후로 대신 된 국서의 자리는 역대 가장 중요한 자리이자 미혼의 귀족들조차 가장 탐을 내는 자리이기까지 했다.

어쩌면 목숨까지 앗아갈지도 모를 자리. 또 적장자가 아닌 자격이 되지 않는 다른 사내가 앉았다간 수많은 비난과 끝없는 추문을 남길지도 모를 자리. 정부라는 손가락질도 국서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는 비난도 전부, 헤르세인은 제 이기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그것을 루드비카가 감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국서의 자리에 앉게 되면 분명 그는 메말라버린 시든 꽃이 될지도 몰랐다. 그토록 자유롭고도 화려한 남자가 그 자리에 앉는 다는 건, 그의 자유를 제 손으로 빼앗는 것이자 그의 화려함을 퇴색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그를 밀어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를 또 다시 저로 인해 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

저가 어떤 위험에 닥친다 해도, 제 몸을 던져서라도 그는 또 다시 죽음을 택할 테니까.

미워해도, 증오해도 상관없었다. 이것이 그를 위한 제 선택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한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루드비카를 위해서라면 제 몸이 진흙탕에 진창 구르는 일이 있더라도 피로 얼룩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헤르세인은 그 결심을 무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후회는 없었다. 단지, 제 결심을 이용한 황제에게 미안한 마음 뿐.

“함부로 그대의 몸에 손을 댄 나를 비난해도 좋고,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소. 하지만 그대를 이용한건 정말로 미안하오.”

“그게… 그대의 대답인가?”

“미안하오, 베르디올의 황제.”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루드비카는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이 분노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루드비카는 침묵하는 것으로 제 분노를 달래고 있었다. 그날 그녀에게 제 욕망을 보여준 것이 독이 되었던 걸까? 하지만 루드비카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그날의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다만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욕망을 풀어버렸다면 분명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되었을지도 몰랐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아른아른 기억 속에 스며들었다. 가까이서 맡을 수 있었던 그녀의 채취와 저의 손짓마다 움찔거리며 반응하던 그녀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루드비카에겐 사랑스럽고 애가타고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손짓이 그 행동이 설마, 또 다른 도발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헤세...’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계속 저를 밀어내는 이유 따윈. 하지만 그녀가 저가 아닌 다른 사내에게 그것도 황제에게 입술을 맞추는 순간, 루드비카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기 보단, 입술을 맞추는 순간에도 제 눈을 피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경이로울 따름이었다.

‘그 사내에게 입술을 맞출 만큼, 당신은 그토록 나를 밀어내고 싶은 건가요? 헤세?’

속마음의 질문은 대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머리끝까지 분노가 들끓어 오르면서도 그녀를 향한 완전한 분노보다 그녀의 입술을 앗아간 황제를 향한 분노가 루드비카에겐 더 컸었다. 저조차도 감히 함부로 입 맞출 수 없었던 그녀의 입술. 그런데 고작 얼굴 몇 번 익혔을 뿐인 황제라는 존재가 그녀의 입술을,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그녀의 입술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역시나 네놈이었군. 그 발자국의 소리는. 설마 나를 기다린 건가?”

“이런, 황제폐하 아니십니까?”

황제, 리카르도가 돌아올 방향으로 줄곧 복도에서 기다린 루드비카는 여전히 누구라도 혹할 매혹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리카르도가 먼저 입을 떼기도 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눈 깜짝 할 사이 황제의 멱살을 끌어 강하게 벽에 밀어붙인 루드비카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얼마나 힘이 실렸는지 벽에 등을 부딪쳤을 뿐인데 멍이 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 황제는 살짝 미간을 좁히며 여전히 매혹적이게 웃고 있는, 하지만 반쯤 눈이 돌아버린 것 같은 상대를 향해 대답했다.

“이게 뭐하는 짓이지?”

“뭐하는 짓으로 보이십니까?”

“존중해주려 해도 도무지 존중해줄 수가 없군, 네놈은. 이렇게 황제의 멱살을 함부로 잡고도 무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런 분이 잘도 혼자 여기까지 오셨군요. 호위기사까지 내버려두고. 일부로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 황제폐하께서도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래, 이참에 묻지. 넌 대체 그녀의 무엇이지? 또, 그녀에게 있어 네놈은 무엇이고.”

여전히 매혹적이게 웃고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리카르도의 멱살을 단숨에 놓아버린 루드비카는 한참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입꼬리를 진하게 말아 올리곤 리카르도의 구겨진 옷 주름을 잘 정돈까지 해준 루드비카는 하얀 장갑이 껴진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려 마치 중요한 비밀처럼 제 입술에 바짝 갖다 붙였다.

“비밀입니다. 그걸 제가 말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잖군.”

만족스러운 황제의 반응을 봐서일까. 키득키득 웃음소리를 낸 루드비카는 근처의 창가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푸른 나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덩달아 리카르도도 엉겁결에 나비의 모습에 시선이 따라갔지만 무슨 생각인지 루드비카가 손끝을 움직였고 푸른 나비가 날개 짓을 멈추며 그의 손끝에 내려앉은 모습에 리카르도의 미간은 좁혀져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푸른 나비가 손끝에 앉아 있음에도 그것을 무심하게 보던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나직이 울려 퍼진 건 그때였다.

“궁금하십니까? 그분에게 있어, 내 존재가 무엇인지.”

“...”

“비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나의 여왕께서 나를 밀어낼지라도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은 오직 진심이고 내 전부를 바치는 것뿐이니까.”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리카르도는 알 수 있었다. 그녀라면 몰라도 그녀를 향한 그의 시선은 누가보아도 간이고 쓸개고 전부 다 바칠 정도로 진심이었으니까. 하지만 과연 그것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녀를 향해 맹목적일지 모르겠으나 리카르도가 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것만 같았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망과 집착, 구애, 심지어 욕정까지 보인다면?

그러나 그 속을 꿰뚫기라도 했는지 무심히 나비를 보고 있던 루드비카는 아주 작은 손짓으로 나비를 날리며 진득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정면으로 시선을 부딪친 리카르도를 향해 루드비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속절없이 그 욕망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물론, 그것 뿐 만이 아닌 나는 그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지요.”

“그보다 더 한 것?”

“태어나기를 오만과 고귀함속에 태어난 당신은 모르겠지만 만약 황제폐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받친 그녀에게서 바닥을 기라는 말을 듣고 진흙탕 물에 뒹굴라고 말하면 뒹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딴 말조차 입에 담지도 않겠지. 그리고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야 그딴 말을 함부로 뱉는 사람은 없다.”

“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어디론가 날아갈 거라 생각한 푸른 나비는 어느새 루드비카와 리카르도의 사이를 이제 막 지나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손 끝에 나비를 앉혔던 루드비카의 모습을 리카르도는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날아가는 나비를 하나의 방해물처럼 순식간에 그것을 움켜쥐고 망가트리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매혹적이나 잔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저는 말입니다, 나의 여왕께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그분의 명령이라면 난 모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귀족의 신분임에도 모두가 천인공노할 남창 짓을 내게 명하신다면 나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기라고 명하시면 바닥을 언제든 개처럼 길 것이고, 바닥을 핥으라면 핥을 것이고 내게 심장을 바치라고 하면 내 가슴을 열어 살아있는 심장채로 그분의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다.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더욱이 귀족의 신분이라면 저런 발언은 결코 뱉어낼 수 없었다. 명예도 수치도 전혀 안중에도 없는 발언. 그리고 마치 그녀의 한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루드비카의 발언은 리카르도의 얼굴을 일그러트리기에 충분했다.

“네놈은 사람이길 포기한 건가? 그 어떤 노예조차 네놈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놈은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도 귀족으로서의 명예도 없는 건가?”

리카르도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으나 오히려 루드비카는 리카르도를 이해할 수 없는지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다.

“애초에 내겐 귀족으로서의 명예 따윈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자존심 따위도 예전에 버려 버린지 오래이지요.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내겐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때, 지금까지의 미소를 전부 버린 루드비카는 리카르도의 목을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움켜쥐었다. 손에 힘을 준 순간 금방 꺾여버릴 적당한 사람의 목. 마음 같아선 목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어 꺾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치밀었으나 그가 황제이기에 헤르세인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기에 루드비카는 여전히 그의 목을 움켜쥔 채로 나직이 경고를 했다.

“그러니, 그녀의 입맞춤 한 번 받았다고 우쭐하지 마.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네놈은 내 분노를 모를 테지. 그녀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오로지 내 것이고 내 것일지언정 나조차도 함부로 건들일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 명심해. 또 다시 오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땐 이 목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네놈의 각오인가?”

목을 죄는 답답함은 있어도 워낙 가볍게 움켜쥐었기에 숨 쉬는 것에 별다른 무리가 없던 리카르도는 피식 웃으며 입매를 비틀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눈앞의 그가, 그녀를 향한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누군가 본다면 절절한 애정일지 몰라도 리카르도의 눈엔 그것은 애정으로 보이지 않았다. 추악하게 일그러진 집착이자 도를 넘은 욕망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목줄을 그녀가 움켜쥐고 있다 해도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제어를 잃고 결국 제 주인의 목을 물어뜯을 괴물이었다.

욕심? 안 난다면 거짓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자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리카르도 역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꼭 가져야만 하는 성미가 있었다. 그야 당연하지 않던가. 고귀한 황족의 핏줄로 태어나 황태자로서 차기 황제로서 리카르도가 손에 넣지 못할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제국에서조차 저를 탐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공녀들의 열렬한 고백에도 리카르도는 관심이 없었다. 반려의 자리 따위 언젠가 후사를 생각하면 적당한 가문을 찾아 황후의 자리를 넘겨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말끔하게 바꾼 것이 그녀, 헤르세인의 존재였다. 다른 여인들과 다르게 묘하게 시선이 이끌렸던 그녀. 그리고 그녀와 마주할 때마다 다른 여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예상외의 행동들.

리카르도는 이 감정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끌리는 것은 사실이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 더욱이 아까 전 그녀의 행동이 이기적이었을지라도 리카르도는 잊을 수 없었다. 더 욕심이 생겼다. 어쩌면 그녀만이 제 옆에 어울릴 반려가 아닐까 하고. 그리고 루드비카의 행동으로 인해 리카르도는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그녀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그에게 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선 안 된다고. 이런 사내의 곁에서 그녀는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리카르도는 제 목을 움켜쥔 루드비카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그리고 황제로서의 가장 오만한 미소로 루드비카의 시선을 맞부딪치며 입술을 움직였다.

“비공식이긴 하나, 네놈에게 먼저 선언하도록 하지. 나, 리카르도 칼 라이언 엘레오노르는 정식으로 사브레의 국왕에게 청혼서를 보낼 것이다. 즉, 사브레의 국왕과 혼인을 하겠다는 나의 뜻이자 결정이다.”

“...뭐?”

“물론, 그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녀는 결코 나의 청혼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청혼이 성사된다면 그녀와 나의 혼인은 양국 간의 이득이 될 것이며 동맹국의 오랜 우정이 사브레 왕국의 도움이 되어줄 테니까.”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리카르도와 그런 리카르도를 차갑게 노려볼 수밖에 없는 루드비카. 이미 두 사람의 싸움은 시작되고 있던 것일지도 몰랐다. 대련전이 아닌, 서로를 의식하지 않던 연주회의 그날부터.

긴 테이블 사이를 두고 마주 앉은 각국을 대표하는 국왕과 황제. 그리고 두 사람의 곁에는 중요한 인물들 역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직접 타국에서 발로 뛰는 로렌드와 현재 헤르세인과 함께 왕실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길버트. 그리고 왕국의 치안과 병력을 담당하는 클로드 역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물론 세 사람 말고도 왕실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귀족들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 전의 협상보다는 완전한 매듭을 짓기 위한 자세로 헤르세인은 이번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리카르도 역시 이번 협상을 끝으로 완벽히 마무리 지을 생각인지 두 사람 사이에선 적당히 오고가는 긴장과 더불어 많은 종이 서류들이 오고갔고 이제는 마지막 공식적인 절차를 위한 직인만을 남기고 있을 때였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소.”

반대의 의견이 좀처럼 없어, 이대로 무난히 일이 끝났다 싶은 그녀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리카르도의 제안에 헤르세인은 왕실에서 쓰는 인장을 찍기 전, 어쩐지 계속 저만을 보고 있는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제안이라니, 대체 무슨 제안을….”

“일방적이긴 하나, 공식적으로 사브레 왕국에 나의 청혼서를 넣을까 하오.”

“...청혼서?”

청혼서라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어 헤르세인은 서류에 직인을 찍는 다는 것도 잊은 채, 리카르도의 의중을 살피고자 했다. 어디를 보아도 좀처럼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뜬금없이 제안이라는 말로 덜컥 청혼서를 넣는다는 그의 모습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본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던 전혀 개의치 않은 리카르도는 양손가락에 깍지를 껴 여전히 변함없는 꼿꼿한 자세로 헤르세인을 마주한 채 대답했다.

“그렇소, 청혼서. 그리고 내가 청혼하고자 하는 이는 바로 그대이오. 사브레의 국왕.”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 싶어, 헤르세인은 멍하니 리카르도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한 길버트가 테이블을 내리치고 벌떡 일어난 덕분에 헤르세인은 그때서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리카르도가 제게 말한 청혼이란 뜻을.

“말 그대로네. 사브레의 국왕에게 공식적인 청혼을 하고자하네.”

“...”

왜 갑자기 지금까지 조용하던 그가 이렇게 깜짝 선언을 하는지 헤르세인은 그의 의중이 궁금했다. 그렇지 않은가? 저와 황제 사이엔 그 어떤 접전도 우정 어린 친밀함조차 없었다. 고작해야 어쩌다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몇 번 나눈 것이 전부일 뿐. 그런데 황제가 그것도 본국의 공녀와의 청혼도 아닌, 타국의 국왕에게 청혼을 한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몰라도 헤르세인은 그의 청혼이고 제안이고 거절할 명분은 충분했었다.

“거절하겠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틈도 없이 단칼에 거절하는 그녀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 더불어 며칠 전, 비공식이긴 하나 한 사람에게 선언까지 했던 리카르도였다. 때문에 그 일을 결코 물릴 생각이 없는 리카르도는 사적일지 아닐지 모른 감정을 지우고 청혼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내가 그대에게 청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오? 단순히 반려를 들이고 싶어서? 그런 이유였다면 그대가 아닌 본국의 공녀들 중, 가장 명문가인 공녀를 골라 황후의 자리에 앉히면 그만이오.”

“이유 따위, 궁금하지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소.”

“아니, 그대는 들어야할 의무가 있소. 내가 그대에게 청혼하는 것은 양국 간의 이익이 될 만한 나의 제안이기도 하니까.”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청혼이란 단어보다 양국의 이익이 될 제안이란 말이 하필 그녀를 제자리에 붙잡길 충분했다. 길버트도 클로드도 못 미더운 눈으로 황제를 보고 있으나 자리를 붙잡을 입이 떨어진 이상, 헤르세인은 그 제안이란 것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들어는 보겠소. 그 제안이란 것이 무엇인지.”

만족스러운 그녀의 대답에 리카르도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설명했다.

“말만 청혼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브레 왕국과 베르디올 제국과의 결속이자 혈맹을 뜻하는 바이오.”

“...혈맹?”

“그렇소. 하지만 그전에 7년 전, 몬테올 왕국이 사브레 왕국과의 전쟁도중 왜 후퇴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소??”

이야기 도중, 갑작스럽게 거론된 몬테올 왕국. 헤르세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리카르도를 보고 있으나 그의 말처럼 사브레 왕국과의 전쟁도중 몬테올 왕국이 왜 급작스럽게 후퇴했는지 그 진상을 아는 바가 없었다.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이후 그녀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았었다. 적통의 증명과 왕태자와의 왕위 쟁탈, 그리고 왕위 계승과 엉망진창인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 몬테올 왕국에 신경 쓰기보단 사브레 왕국의 내정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에 헤르세인은 여태까지 왕국 내정에만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설마 다른 곳도 아닌, 베르디올의 황제가 몬테올 왕국 후퇴의 진실을 알고 있다? 어쩌면 베르디올 제국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그 이유를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오.”

“몬테올 왕국은 그대의 왕국과 전쟁 이전, 이미 오래전부터 베르디올 제국에 선을 넘고 있었소.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한두 번 정도는 눈을 감아주고 있었고.”

“그런데 그 선을 계속 넘게 되었고 결국 몬테올 왕국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었군.”

“그렇소,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몬테올 왕국의 수도까지 내 병력을 진군시켰더니 그곳의 국왕이 결국 꼬리를 말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더군. 그래서 몬테올의 국왕은 전쟁 중인 병력들을 전부 후퇴시키고 내게 광산의 절반을 헌납하고 인근 국경을 패쇠하는 것은 물론, 졸지에 왕국의 국경을 옮기게 되는 처지가 되었지. 마음 같아선 속국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한창 정복전쟁을 끝내고 나 역시 제국의 내정을 본격적으로 대신들에게 관리를 맡겼던지라 몬테올 왕국은 그쯤에서 잊게 되었소.”

역시 제국과 왕국의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오히려 현실을 깨닫게 하는 병력의 차이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제국을 함부로 건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헤르세인은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몬테올 왕국을 후퇴시켜준 일은 사브레 왕국으로선 고마운 일이나 아직까지 헤르세인은 리카르도의 의중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를 다시 보게 됐을지라도 청혼, 아니 청혼으로 둔갑된 혈맹의 문제는 다른 것이기에 헤르세인은 다시 이유를 물었다.

“몬테올 왕국 이야기는 이제 알겠소. 그런데 그게 혈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오?”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오. 지도를 펼치면 베르디올 제국의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물론 베르디올 제국뿐만이 아닌 다른 왕국과 또 다른 대륙의 제국.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브레 왕국까지.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선 안 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 기분나빠하지는 마시오.”

“말해보시오.”

“제국과 다르게 왕국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그대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오. 그리고 왜 수 많은 왕국들이 결국 제국의 속국이 되는지 그 이유 또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오.”

그 순간, 굉장히 무례라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길버트와 클로드,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 귀족들까지 주먹을 움켜쥐고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외쳤다.

“아무리 제국의 황제라고 해도! 그 발언 무례합니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국보다 작은 소국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국왕폐하! 더는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당장 베르디올의 황제를!!”

더는 내버려두었다간 총이고 검이고 손에 쥐어 황제를 향해 저격할 것 같은 그들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손을 들었다.

“그만!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아직 황제의 얘기는 끝나지 않았소.”

“하지만! 폐하!!”

“그만하라 했소, 그대들은 지금 내말이 우스운 건가?”

결국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죽일 듯이 황제만 노려보았지만 애석하게도 전혀 그들의 시선에 타격조차 없는 리카르도는 헤르세인에게 고마움을 담은 고개 짓 한 번으로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럼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지.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오. 수많은 왕국들이 제국의 속국이 되고 결국 제국의 완전한 땅덩어리로 흡수가 되는 건, 그만큼 왕국이라는 자체가 황제들의 눈엔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오.”

“...”

“물론, 그러지 않는 황제들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제국의 황제는 그 어떤 왕들보다 가장 정점에 오른 자. 또한 당연하게도 태생적인 피를 물려받은 것인지 황제들에겐 하나의 의무가 있소. 그 의무는 정복전쟁. 땅을 넓히고 왕국들을 하나씩 속국으로 만들어 하나의 대륙을 통일시키고 또 다른 대륙을 진출하고 또 정복하는 것이 황제로 태어난 자의 숙명이오. 하지만 황제와 달리, 왕국의 왕은 그럴 수 없소. 제 나라를 지키는 것도 벅찰뿐더러 애초에 제국과 왕국의 병력차이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말대로 제국과 왕국의 차이는 결국 병력의 차이였으니까. 물론, 왕국의 왕이 명석하고 검술에 뛰어나다면 왕국을 제국으로 만드는 것 쯤은 쉬울지도 몰랐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상이자 이론적일 뿐, 이름난 제국들 중, 왕국에서 시작한 제국들은 대다수가 십 수 년에 걸친 정복전쟁과 승리로 결실된 큰 땅덩어리나 다름없었다.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겠는가. 꿀맛 같은 승리의 뒤에는 언제나 피 같은 손실이 따르는 법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오. 제국도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만 왕국은 그보다 일찍 무너질 수도 더 큰 손해를 입어 다른 제국의 속국이 되거나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오. 그리고 7년 전,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으로 깨달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오.”

그가 말하는 의미는 대충 알 수 있었다. 전쟁은 준비하고 대기하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 그 전쟁이 바로 7년 전, 몬테올 왕국과의 처참한 전쟁이었고 몬테올 왕국이 그대로 후퇴하지 않았더라면 사브레 왕국은 분명 몬테올 왕국에 편입되어 지도상에서조차 없어질지도 몰랐다.

“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베르디올 제국은 사브레 왕국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오. 이렇게 일일이 절차를 따져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 사브레 왕국은 베르디올 제국의 비호아래 성장하게 될 것이고, 신식무기 개발뿐만이 아닌 많은 자원과 인재를 사브레 왕국을 위해 힘쓰도록 할 것이오. 그리고 혈맹을 맺음으로서 사브레 왕국은 그 어떤 왕국이나 제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될 것이오.”

솔직하게 묻고 싶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인 그가 사브레 왕국을 위해 나설 이유도 없었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자원도 인재도 하물며 왕국을 비호해줄 이유조차 그에겐 없었다.

하지만 역시 조건 없는 배품은 없었던 걸까. 리카르도는 가장 진중한 녹안의 눈으로 헤르세인을 보며 ‘황후’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단, 그대가 국왕의 자리를 선위하고 베르디올 제국의 황후가 된다는 조건하에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오.”

“그런 억지가─! 국왕폐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폐하께서 선위를 하고 그것도 제국의 황후가 되는 것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실히, 리카르도는 헤르세인에게 각국의 왕대 왕으로서 청혼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그녀가 황후로서의 전제로 발언한 것들. 그래서 일까. 진중히 헤르세인을 보고 있는 리카르도와 달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악의 눈으로 리카르도를 보고 있었다. 하물며 리카르도의 발언은 함께 온 신하들에게 조차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인지 보좌관이며 기사들이며 당황한 눈으로 본인들의 주군을 보고 있었다.

“국왕폐하!!”

“황제폐하!!”

굴욕감도 치욕스러움도 헤르세인에겐 없었다. 무슨 생각으로 그가 이런 행동을 보인건지 알 수 없으나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기에 헤르세인은 지금의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직 복수로 시작되었던 왕위의 쟁탈. 그리고 그 복수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지금, 솔직히 말해서 헤르세인에겐 왕의 자리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 더더욱 모든 적들의 싹을 뽑아내고 현재 대공의 자리까지 앉아 있는 빈센트의 위치를 생각하면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그리고 지금의 사브레 왕국을 생각하면 리카르도의 제안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닐지도 몰랐다.

하지만, 리카르도의 제안을 덥석 받기엔 또 다시 저를 망설이게 하는 한 사람.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손끝을 움직여 귓불에 걸려 작게 흔들리고 있는 루비 귀걸이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떠올릴 때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망설여지는 제 마음. 끝내 귀걸이에서 손을 땐 헤르세인은 리카르도를 향해 가까스로 입술을 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것이 못 될 것 같소. 하지만 베르디올의 황제. 그대의 발언이 그대의 제국과 완전히 상의된 것이라면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소. 그럼 자리를 파하도록 하지.”

헤르세인의 말이 떨어지자 자리에서 우르르 일어난 귀족들이 서둘러 떠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씩 비워져가는 의자. 그리고 찝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길 망설이던 길버트와 클로드까지 완전히 자리를 떠났을 때, 어느새 홀로 남게 된 헤르세인 역시 이제 막 자리를 떠나려 할 때였다.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리카르도의 진중한 목소리가 다시금 헤르세인을 붙잡았다.

“난 내 발언을 물릴 생각이 없소. 그러니 내 제안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이오.”

그렇게 헤르세인까지 떠나고 리카르도 역시 자리를 떠났을 때, 리카르도의 발언은 순식간에 왕실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리카르도의 발언 이후, 왕실은 물론 수도 전체에 거주하는 귀족들에게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갔다.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가 그것도 왕국의 국왕에게 청혼을 한 것. 물론 발언만 했을 뿐, 공식적인 청혼서가 온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황제의 발언은 파급력이 컸었다.

모두가 황제의 청혼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유일하게 라인하르트 저택만은 다른 세상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현재 루드비카가 이용하고 있는 3층의 침실. 하지만 그 누구도 3층에 접근하는 하녀들은 없었다. 클로드가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 것도 있지만 루드비카를 위한 배려이기도 했다.

하지만 클로드의 배려 덕으로 오랫동안 침실 밖으로 나오지 않은 루드비카는 표정은 무심히 가라앉아 있었다. 얼굴을 가린 손 틈 사이로 음울히 핏빛 눈동자는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또 다른 피에 얼룩질 만큼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바알이 아니었다.

침실 전체를 안개로 삼킨 짙은 암흑. 그리고 형태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사악한 악마마냥 키득키득 웃음소리를 내며 루드비카의 주변에서 맴돌아 속삭이는 바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간사했다.

"황제와 대련했던 그날, 너는 황제를 죽였어야 했다. 하지만 황제를 죽이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황제는 너의 그녀를 계속 욕심내고 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황제의 손에 넘어가는 결말이 되겠지."

“닥쳐.”

"아아, 불쌍하고 가엾은 루드비카. 어쩜 이리도 하늘이 무심할 수 있을까. 기껏 죽음의 땅속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보답을 받기는커녕, 매번 너를 밀어내기만 하는 그녀가 참 밉고 증오스럽지 않나?"

“닥치라고 했어.”

으드득, 이를 가는 루드비카의 낮은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즐거운지 더, 더 깊게 어둠을 뿌린 바알은 칠흑의 어둠 속에 붉은 눈을 빛내며 간악한 뱀처럼 루드비카의 주변에 똬리를 틀었다. 그리고 사냥감의 숨을 조이듯 루드비카의 어깨에 올라타 뱀의 혀로 쉭, 쉭 소리를 내며 날름거리던 바알은 루드비카의 속삭였다.

"정 안 되면 그녀를 탐해라. 그저 살짝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침대에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겨 보드라운 살결을 탐하고 네 욕망이 가는대로 움직이면 그만이다. 그리고 욕정하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전부 다 네가 가진다면 그녀는 더 이상 너를 밀어내지 않을 거니까."

“...”

"이 이상, 네가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지? 루드비카, 과거의 너를 떠올리고 생각해라. 얼마나 오랫동안 네 욕망을 억누르고 그녀를 위한답시고 현자마냥 네게 깊숙이 숨어있는 욕정을 외면할 것이지? 네가 계속 그렇게 배려한답시고 망설인다면 결국 너의 그녀는 완전히 네 손에서 네 시야에서 벗어날 거다. 넌 그걸 바라나? 너의 그녀가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기고 입을 맞추고 후에 다른 사내의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그녀의 모습을 너는 두 눈 똑똑히 지켜볼 수 있나? 그대로 포기할 수 있냐는 말이다, 루드비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 나불거리는 주둥이 닥치라고 했잖아.”

그 순간, 기분 나쁘게 뱀처럼 어깨에 올라탄 바알을 정확히 움켜쥔 루드비카는 손에 힘을 주었다. 만약 보통의 살아있는 진짜 뱀이었다면 온 몸을 비틀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겠지만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일까. 검은 뱀의 형체가 손에 잡혔음에도 바알은 킬킬 웃으며 목숨의 위협 따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뱀의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하나. 네 얼굴, 지금 아주 꼴불견일 정도로 재미가 나는데."

한참 동안 잡힌 손에서 킬킬 웃던 바알은 뱀의 형체를 지우고 검은 안개가 되어 루드비카의 머리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연기를 전부 거두어내고 완전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바닥을 밟은 바알은 루드비카가 걸터앉은 침대에 똑같이 앉아 루드비카 보다 더 긴, 자신의 은발을 쓸어내리며 빙긋 웃었다.

"루드비카, 이건 특별히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지만 언제까지 현자마냥 네가 네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

"저번에 네가 나한테 물었던 말, 기억하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루드비카는 바알에게 물었던 질문은 기억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못할 혼자가 된 장소에서 바알을 불러 물었던 질문을.

"말해,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지."

그리고 바알은 마치 당연하지 않느냐는 무심한 어투로 대답했었다.

"그야 당연히 루드비카 넌, 평범한 인간이 아니니까,"

"...뭐?"

"너의 존재는 이제 보통의 인간이라 정의할 수 없다. 왜냐고? 저번에도 말했다 시피, 넌 나로 인해 다시 태어난 존재다. 너의 흔적이 묻어있는 흙과 너의 뼈, 그리고 나의 피와 인간계집이 널 살리고자 바친 가장 더렵혀진 제물로 너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루드비카. 때문에 네 영혼은 보통 인간들과 다르다. 가장 더렵혀졌으면서도 가장 추악하고 가장 타락한 검은 영혼을 가진 너의 존재. 동시에 네 영혼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인간들보다 절제가 힘들고 네 욕망과 욕심, 욕정, 욕구들이 가장 먼저이지. 거기에 가장 욕망 덩어리라 할 수 있는 타락된 악마의 힘을 쓴다면 네 영혼은 내 힘에 감화되어 보통 인간들보다 배로 감정이 폭발되고 절제하기가 힘들지."

"그걸…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서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어쩌면 당연한 대답을 한 바알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아랫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왜 이제 말하느냐고? 그야, 네 놈은 네 욕망이 최우선이지 않았나? 너는 나에게 어느 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네 마음이 우선이었지. 그리고 악마인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라 생각했나? 착각하지 마라, 루드비카. 난 이제껏 내 눈으로 본 인간들 중, 네가 유독 마음에 든 것뿐이지, 보통 인간들처럼 너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마음 따윈 내게 존재하지 않다."

틀린 말은 없었다. 바알의 말처럼 제 욕망과 욕심이 먼저였지 바알에게 그것을 물어볼 생각 따윈 전혀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악마의 힘을 쓴다는 것은 명백한 자신의 실책일지도 몰랐다. 이 세상에 조건 없는 힘 따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날 이후로 루드비카는 바알의 어떤 유혹을 해도 악마의 힘을 웬만해선 쓰지 않고자 했다. 바알의 조건 없는 악마의 힘을 사용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는 건 쉽지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인식했음에도 루드비카는 다시 한 번 그 힘을 사용할 뻔했었다. 바로, 베르디올의 황제.

헤르세인과 입술을 맞춘 것도 모자라 감히, 그녀에게 청혼을 하겠다는 황제의 선언은 루드비카의 분노를 폭발하기에 충분했었다. 당장 바알의 힘을 사용해 눈앞에서 황제를 죽이려 했었으나 운이 좋게도 황제의 보좌관이 나타난 덕분에 루드비카는 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또 다시 감정을 폭발시켜 제어를 버리고 그것도 왕성의 한복판에서 황제를 죽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 도저히 기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루드비카는 저택으로 돌아와 침실에 처박혀 있게 된지 벌써 이틀이 지난 현재였다.

바알이 왜 다시 지난날 저가 질문했던 그것을 도로 묻는지 알 수 없으나 여전히 기분 나쁘게 웃는 바알의 얼굴을 외면하며 루드비카는 싸늘히 대답했다.

“기억하든 말든, 더 이상 네놈과 나눌 얘기 따위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뭐, 네가 그토록 내가 꺼져주길 바라니 조용히 꺼져줄 수밖에. 하지만 루드비카, 명심해라. 네가 계속 꾸물거린다면 결국, 너의 그녀는 황제에게 영원히 빼앗기고 말테니까."

마지막까지 기분을 퍽 상하게 만드는 바알의 비웃음이 침실 곳곳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바알이 검은 안개가 되어 루드비카의 육체로 스며드는 동시에 침실을 칠흑으로 물들였던 어둠이 완전히 그치자, 눈이 부실만큼 침실은 어느새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도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에 루드비카는 메마른 핏빛 눈동자를 힐끔 움직여 노크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루드비카, 나다. 아직 식사를 안했다면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언제 저녁시간이 되었는지 다시 눈동자를 움직여 창가 밖을 보았을 땐, 이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여야만 할 때. 루드비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기 전, 미소로 덧씌워진 가면을 뒤집어쓰고 이윽고 클로드가 기다릴 문을 열었다.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네요. 그럼 식사하러 갈까요?”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식당은 가을의 날씨처럼 쌀쌀하면서도 고요하기까지 했다. 하녀들은 물론, 집사도 눈치를 보며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요리가 담긴 접시를 날랐고, 루드비카와 클로드는 앞에 놓인 스테이크 조각을 무심히 썰어내고 있었다.

그때, 와인으로 적당히 건조해진 목을 축이고 눈짓으로 하녀와 집사를 식당에서 물린 클로드는 평소처럼 고기를 썰며 먹고 있는 루드비카를 향해 먼저 침묵을 깼다.

“루드비카, 너도 수확제에 참가할 것이냐?”

“…수확제요?”

“그래, 수확제. 표정을 보아하니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확제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수확제는 특별히 귀족들을 위해 폐하께서 사냥대회를 직접 주최하실 예정이기도 하지. 기사 쪽의 임무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네가 라인하르트 가의 일원인 이상, 사냥대회는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수확제는커녕 온통 루드비카의 정신은 헤르세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드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더불어 처음에는 수확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으나 다른 이도 아닌, 헤르세인이 직접 사냥대회를 주최한다는 언급에 루드비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클로드에게로 향했다.

“그래도 정 내키지 않다면 네가 다른 곳에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손을 써보마. 안 그래도 귀족들 사이에선 네 얘기가 아직까진 잠잠하지 않으니 말이다. 너도 이제 막 기사 일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 괜한 집중을 받고 싶지는 않을 테고.”

“…의외네요. 형님께서 이토록 저를 배려해주실 줄은.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참석하라 했을 형님이셨을 텐데.”

루드비카의 말처럼 예전의 저라면 무조건 명령조로 참석하라 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있지만 하나 뿐인 아우의 상처를 알고 있기에 돌이킬 수 없었던 과거를 겪었기에 그때를 계기로 성격이나 사고방식도 유해진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루드비카가 과거와 똑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클로드는 아주 옅게 미소를 그리며 이제는 보기 드문 맞장구까지 쳐주었다.

“그래, 예전의 나였다면 너에겐 배려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런 자리는 참석하라고 했을 테지.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구나. 이제는 너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뿐이다, 루드비카.”

“...”

죽은 아버지에게조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가슴을 간지럽히는 배려이기 때문일까. 아주 찰나의 순간, 루드비카의 미소는 잠시 잃었지만 금방 가면을 덧써 입꼬리를 짙게 말아 올리곤 자연스럽게 질문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다.

“그보다, 폐하께서 사냥대회를 직접 주최하시는 거라면 귀족들 전부 참가하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유도에 클로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해주었다.

“사냥대회에 참가할 참가자 리스트들은 전부 정해졌다. 그레이스 공작가와 네가 알고 있는 대 귀족 가문들. 그리고 베르디올의 황제도 참가하게 될 거다.”

“황제도… 말인가요?”

“귀족들을 위한 사냥대회이기도 하지만, 황제를 참가시킴으로서 사브레 왕국과의 오랜 인연과 동맹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될 테지.”

빌어먹게도 며칠 전, 황제가 선언했던 그 가증스러운 말들이 환청마냥 또 다시 루드비카를 괴롭혔다.

"네놈에게 먼저 선언하도록 하지. 나, 리카르도 칼 라이언 엘레오노르는 정식으로 사브레의 국왕에게 청혼서를 보낼 것이다. 즉, 사브레의 국왕과 혼인을 하겠다는 나의 뜻이자 결정이다."

이대로 황제를 내버려 둘 순 없었다. 어떡해서든 두 사람의 되도 않는 청혼이든 혼인이든 막아야만 했다. 결코 그녀는 황제와 혼인할 수 없었다. 저가 멀쩡히 살아있는 이상, 그녀의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결심한 루드비카는 클로드를 향해 사냥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참석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역시 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형님.”

리카르도와 무기 협상을 끝내고 마지막 남은 직인까지 찍음으로서 베르디올 제국과의 거래는 이미 마친 셈이었다. 물론 리카르도가 제멋대로 선언한 청혼서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한 채, 현재 진행 중이었으나 하루가 다르도록 귀족들에게서 올라오는 상소문들은 헤르세인을 또 다른 피곤으로 몰아넣었다.

“아직도 청혼서에 관한 상소문이 빗발치는가?”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이례적인 일이다보니 귀족들이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황제와 얘기가 진행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저 일방적으로 제안만 받았을 뿐이지만, 확실히 황제의 발언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한지 아직까지도 청혼서에 대한 이야기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황제의 발언은 그의 독단적인 발언에 불과할 뿐. 그날 황제의 주변에 있던 제국인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과 의논된 이야기가 아님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번 입을 통해 나간 이야기는 도로 담을 수 없는 법. 또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과장이 되어 퍼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베르디올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청혼서를 보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그것에 깊게 생각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렇군. 내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면 이 일도 잠잠해지겠지. 그리고 내일모레부터 시작될 수확제를 생각하면 금방 잊을 수도.”

전보다는 줄어든 상소문을 한쪽으로 모아두며 헤르세인은 곧 시작될 수확제에 관한 보고를 듣고자 길버트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협상문제로 한쪽에만 너무 신경쓰다보니 이번 수확제는 급히 준비한 감이 없잖아 있네. 그래도 이번 수확제는 작년에 못한 만큼 크게 진행되겠지만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이겠지. 사냥대회 쪽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 일단은 라인하르트 공작과 함께 경비 쪽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르디올의 황제폐하께서 참가하시는 공식적인 자리다보니 숙련된 기사들을 좀 더 많이 투입시켰습니다.”

“사냥대회 장소는?”

경비만큼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냥대회가 시작될 장소이기도 했다. 덕분에 가장 적합한 사냥대회 장소를 며칠 동안 찾아 헤매던 길버트는 서류와 함께 보고를 올렸다.

“장소는 최대한 수도에서 떨어지지 않은 쪽을 잡으려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너무 없었던지라 수도외곽에서 조금 떨어진 세필린 숲이 그나마 사냥대회에 적합하여 그곳으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여기 서류는 세필린 숲에 대한 지리와 특성들입니다.”

여태까지 세필린의 숲에 대한 기록들과 간간히 멧돼지에 대한 출몰 등 상세히 적힌 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사냥대회에 적합한 사냥목록과 어쩌면 가장 경쟁이 치열할지 모를 멧돼지의 존재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주억였다.

“이정도면 잘 선정했네. 다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의가 필요하겠지.”

“예, 최대한 참가하는 귀족들은 물론 경비 쪽에도 주의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냥 적 지리는 좋지만 하필 강이 근처에 있는지라 혹시라도 비가 오게 된다면 강의 물줄기가 거칠어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르세인은 최대한 강 주변으로 귀족들이 가까이 가지 않겠끔 명령을 전달하며 사냥대회에 대한 안전문제 이야기는 끝을 냈다. 그리고 간략하게 상금에 관한 것과 귀족들의 편의에 대해 이야기를 전부 끝마친 헤르세인은 서류더미 들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내일까지 전부 마무리 시키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게.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경비 문제와 국경의 경비문제 역시 가장 신경써야할 것을 잊지 말게.”

“예, 폐하.”

길버트가 돌아가고 집무실에는 온전히 헤르세인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집무실을 떠나기엔 아직까지 처리해야할 서류들이 책상위로 한가득인 종이더미에 헤르세인은 취짐 하러 가기 전까지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작년에 열리지 않았던 수확제가 개최되었다. 왕실은 물론 수도와 지방 할 것 없이 이미 백성들은 수확제를 맞이하고자 평소보다 활기에 찬 얼굴로 수확제를 즐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식당은 벌써부터 수확제를 위한 특별 요리를 만들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요리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백성들은 그들만의 수확제를 즐기기 위한 준비가 한참일 동안, 수확제를 맞이하는 귀족들 역시 평소와 다른 철저한 준비로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냥대회에서 쓸 사냥용 무기와 사냥복 차림 등등 하녀들과 집사에게 준비시켜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귀족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미혼의 공녀들 역시 만반의 차림으로 제 아버지를 따라가, 신랑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공녀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도회가 아닌 흙 밭과 수풀을 지날 거친 길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녀들의 옷차림은 신중하면서도 우아함과 화려함만큼은 포기할 수 없던 건지도 몰랐다.

요즘 공녀들과 귀부인들에게선 색다른 드레스가 한창 유행하고 있었다. 제국을 통하여 왕국에까지 전파된 드레스는 그녀들이 자주 입던 크리놀린 드레스가 아닌 버슬타입의 드레스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넓게 치맛단이 퍼지면서도 풍성함과 화려함을 겸비한 드레스라 할 수 있는 크리놀린 드레스는 겉보기엔 무척이나 우아하고 화려하지만 무도회를 빼곤 드레스 자체가 워낙 무겁고 입어야할 속옷조차 너무 많았기에 크리놀린 드레스는 점차 손이 가지 않는 드레스가 되어가고 있던 시간의 흐름이었다.

그러다 머나먼 제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온 디자이너를 통해 버슬 드레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유행은 순식간에 퍼져 크리놀린 드레스에서 버슬 드레스로 드레스의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발이 불편하기만 했던 얇은 굽이 있는 하이힐 대신, 적당한 통굽과 종아리나 발목을 감싼 가죽부츠는 발의 편리함을 추구했다. 또 쇄골과 어깨를 드러냈던 크리놀린 드레스와 달리, 목과 상의 전체를 가린 버슬 드레스는 상체의 맵시를 좀 더 드러내게 하되, 목과 가슴 부분의 레이스,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강조점을 옮겨 크리놀린 드레스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우아함과 기품을 겸비한 드레스로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고 있었다.

또한 목을 가려 화려한 목걸이를 걸칠 수 없는 대신 머리장식에 중점을 두고자 화려한 리본과 레이스로 장식된 모자, 그리고 레이스 우산이 현재 보석만큼이나 고가로 거래될 만큼 공녀들과 귀부인들에겐 필수품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덕분에 벌써부터 사냥대회에 마련된 쉼터에는 화려한 모자와 알록달록한 레이스로 장식된 우산을 들고 가주인 아버지를 따라온 공녀들은 저마다 우산과 모자자랑을 하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 그 우산 못 보던 우산인데 어디서 구한건가요?”

“이거요? 저번에 아버지께서 잠깐 외교의 일로 참가하게 되어 다른 왕국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생일선물로 구해주신 우산이랍니다. 너무 예쁘지요?”

“세상에, 너무 예뻐요! 그보다 다른 왕국에서 구한 선물이라니! 너무 부럽네요.”

“에이, 공녀의 모자도 무척 예쁜걸요?”

“어머, 정말요? 사실 이 모자는 말이지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무도회를 몇 번 밟지 못한 젊은 공녀들은 호호호 웃으며, 제각각 자신들이 가져온 우산과 모자를 자랑하기 바빴다. 물론 대다수 공녀들이 그런 것이 아닌 차기 가주의 자리를 압두고 값비싼 드레스 대신 맞춤 사냥복을 입어 사냥대회를 준비하는 공녀들 역시,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며 젊음 후계자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그보다, 얘기 들으셨나요? 이번 사냥대회에 라인하르트 공작님과 라즈니엘 대공 전하께서도 오신다면서요?”

“제가 아버지께 들은 얘기로는 아무래도 이번 사냥대회는 직접 국왕폐하께서 주최하시다보니 대 귀족들은 거의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폐하께 국왕폐하께서 직접 사냥대회에 초대하셨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녀들도 그 얘기 들었죠? 라인하르트 공작님의 동생분이요.”

“동생분이라면 그…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그분 말인가요?”

“어머! 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모든 공녀들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말을 타고 쉼터 주변으로 우르르 등장하는 백색의 제복을 입은 기사들이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들 모두가 말에서 내릴 때, 그중 단연 돋보이는 은발의 사내, 루드비카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띄자 공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혼이 쏙 빠질 것 같은 홀린 얼굴을 하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세상에… 저분이...”

“제복의 모습이며 얼굴이며 저분 좀 보세요. 세상에나… 저런 분이 라인하르트 공작님의 동생분이시라니…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7년 사이, 루드비카의 죽음 이후 이제 막 사교계를 데뷔한 어린 공녀들은 그야말로 지금의 루드비카 모습은 처음 대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미 7년 전, 사교계를 진즉에 데뷔하고 루드비카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는 대다수 혼인을 치룬 젊은 귀부인들은 또 다른 놀라움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보셨어요? 진짜로 라인하르트 공자가 살아있다니….”

“부인, 기억안나세요? 그때 저희들, 분명 공자의 장례식까지 참석했었잖아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너무 믿기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생각해보세요, 장례식까지 치룬 죽은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게 믿어지세요?”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보세요. 머리를 염색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예전의 모습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긴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뭐라고 해야 할까… 유혹적이라 해야 하나…?”

“흠흠, 정확히 관능적인 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거!”

저마다 젊은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크게 긍정을 표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루드비카에게서 떼어내지 못했다.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이 죽다 살아나니 분위기까지 바뀌어 젊은 귀부인들의 눈은 열광적으로 루드비카를 쫓아다니기 바빴다.

하지만 뻔히 시선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로 모른 척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루드비카는 드디어 찾고 있던 마차를 찾아낼 수 있었다. 왕가의 인장이 박힌 단 한 대의 마차. 그리고 문을 열고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 마차에서 내린 헤르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왕폐하께서 납십니다!!”

클로드에게서 손을 떼고 갈라진 인파의 길을 걷는 헤르세인의 모습은 당당하면서도 고아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단순한 흙바닥이었을 텐데 귀족들이 잽싸게 벌린 길로 하여금 준비 된 왕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헤르세인의 모습은 루드비카의 시선을 줄곧 사로잡았다.

평소에 보아왔던 왕의 예복을 갖춰 입은 그녀의 모습.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왕실에서 보던 때와는 달랐다.

종아리를 매끈하게 덮은 가죽부츠와 허벅지의 맵시를 보이는 활동성의 면바지, 그리고 허리에 장식된 가죽벨트와 상체가 움직이기 쉽도록 허벅지까지 절단되어 길게 코트형식으로 만들어진 사냥복은 옷을 입은 주인의 맵시를 살렸고 어깨에 걸쳐진 붉은 망토는 그녀를 기사처럼 돋보이게 하면서도 오직 왕밖에 입을 수 없다는 카리스마적인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늘 보아왔던 그녀의 모습이나, 이처럼 당당하게 왕으로서 걷는 그녀의 모습을 처음 봐서 일까. 루드비카는 줄곧 시선을 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다가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위치임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폐하.’

어느새 왕의 자리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뒤를 돌아 귀족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수확제의 사냥대회는 시작되었다.

사냥대회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귀족들은 모두 들뜬 표정을 하며 각자 지급된 사냥용 무기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 경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사냥감을 시작으로 점차 사냥감의 범위를 넓혀갔고, 또 어떤 이들은 사냥대회의 1등 상금을 노리는지 처음부터 멧돼지를 노리며 작은 사냥감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냥대회는 총 이틀에 걸친 대회. 그리고 사냥대회의 규칙은 쉬우면서도 까다로웠다. 1등이 되기 위해선 가장 많은 사냥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그렇다고 작은 사냥감을 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건 규칙에 위반되었다. 많아야 작은 사냥감은 총 4마리에서 5마리 사이. 그리고 노루나 사슴, 등은 제한은 없으나 그만큼 경계심이 많고 민첩하기 때문에 노루와 사슴은 합산의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사냥감이기도 했다.

그리고 합산의 점수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멧돼지는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히 대회의 등수에 올라갈 수 있으나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냥감이기에 대다수 사냥에 참가하는 귀족들에게는 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사냥감 중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멧돼지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준 까닭은 현재, 세필린의 숲에서 멧돼지는 근처의 민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짐승이기 때문이었다. 수도 외곽 쪽에서 조금 떨어진 숲이라 해도 근처의 민가에 피해를 줄 만큼 예전보다 멧돼지의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고 그 수를 줄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멧돼지가 가장 많이 밀집된 세필린의 숲을 길버트가 선택한 것이었다.

물론 멧돼지뿐만이 아닌 지리적으로나 수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뿐, 사냥대회를 열기위한 그나마 괜찮은 사냥터이기 때문에 어느새 세필린의 숲은 사람들로 하여금 북적이고 있었다.

타앙──!

숙달된 솜씨로 정확히 새 한 마리를 격추시킨 헤르세인은 사냥용 총을 내렸다. 그리고 추락하여 떨어진 사냥감을 향해 다가갔을 땐 이미 새의 숨은 끊어져 있었다. 가죽장갑이 씌워진 손을 내려 가볍게 새의 다리를 잡고 이제 막 걸음을 떼려던 그녀의 앞에 리카르도가 나타난 건 그때였다.

“제법 솜씨가 있군. 이제 한 마리째인가?”

“여기서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는 것이오?”

“어차피 귀족들을 위한 대회일터. 내가 굳이 열을 내며 사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

잡은 새와 총을 담당병사에게 넘기며 헤르세인은 조금 답답했던 가죽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황제를 보며 헤르세인은 그를 무심히 지나쳤다. 처음 대회장에 등장했던 황제의 모습에 수많은 귀족들이 황제를 주목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고 그 주목이 옅어진 지금,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여유를 부리며 제 뒤를 은근슬쩍 뒤쫓는 황제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걷고 있던 걸음을 멈춰 황제를 향해 대답했다.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괜히 이런 식으로 쫓아와서 이상한 소문 같은 것이 퍼지는 건, 난 사양이오.”

“그 정도로 나와 소문이 퍼지는 것이 싫은가?”

“이보시오, 베르디올의 황제.”

“소문은 그렇다 쳐도, 나는 단지 그날, 그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단순한 농담마냥 잊힐 그런 것들이 아닌 나의 진심이길 알아주길 바란 것뿐이오.”

“...”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거부감이드는 건지, 그이기 때문에 거부감이드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분명 황제인 그가 말한 제안들은 사브레 왕국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자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하필 자신인지. 국왕인 자신보다 그에겐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춘 공녀들도 있을 테고, 좀 더 시야를 넓히면 국왕은 아니더라도 황후의 조건에 충족할 왕녀들도 있을지 몰랐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 왜 자신이란 말인가? 이유 따위 그저 단순하게 물어보면 쉬울지도 몰랐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 이유를 묻기가 헤르세인은 어려웠다.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아니, 알고 싶지 않은 황제의 마음을 혹시라도 알아차릴 까봐. 알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알아 채, 그 불편한 마음을 헤르세인은 느끼고 싶지 않았다.

이런 불편한 마음 같은 건, 오직 한 사람이면 충분했으니까. 더 이상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이 지금 헤르세인의 심정이었다.

“사냥대회는 이틀이오. 그때까지 내게 말할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오.”

“확답은 들려주지 않는 군. 좋소, 그럼 이렇게 하지.”

들판에서 나와 리카르도가 숲 쪽에 눈길을 주며 계속 저를 따른 보좌관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보좌관이 내민 가죽장갑을 받고서 오랫동안 맨손이었던 손을 장갑으로 덧씌운 리카르도는 가볍게 사냥용 활을 들고서 저를 빤히 보고 있는 헤르세인에게 대답했다.

“내가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금대신 내가 그대에게 제안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주었으면 하오.”

“이보시오, 베르디올의 황제. 그 얘기는──!”

“난 한번 뱉은 말은 주어 담지 않소. 이미 내가 저지른 일이고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내 성미에 차지 않아서 말이지.”

그리곤 보좌관과 함께 먼저 자리를 뜬 황제를 헤르세인은 뒤쫓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다. 국왕으로서의 체면보다 반드시 1등을 하겠다는 그의 진지한 결심이 헤르세인의 발길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몸 풀기 정도의 사냥을 끝내고 다시 쉼터로 돌아온 헤르세인은 개인 천막으로 돌아가기 전, 빈센트와 마주칠 수 있었다. 본인도 사냥에 참가하여 어느 정도 사냥을 했는지 빈센트의 뒤에는 포획한 3마리의 사냥감을 들고 있는 하인이 있었다.

“폐하!”

“벌써 3마리까지 사냥한 것이냐? 하지만 1등을 하기엔 큰 녀석은 없구나.”

“1등을 생각하고 참가한 대회가 아니니까요. 그보다 폐하께서도 적당한 사냥감을 잡으셨는지요?”

헤르세인은 저가 잡은 새 한 마리를 들고 저녁거리를 만들겠다며 벌써 요리사에게로 간 라즐리를 떠올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새 한 마리는 잡았으니 걱정 말거라. 그보다 사냥만 집중하지 말고 좀 더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의외로 이런 점에는 둔한 걸까.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빈센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작게 콧바람을 내어 웃다가 빈센트의 어깨에 내려앉은 잎사귀를 치워주고자 손끝을 움직였다.

“폐하?”

“하루라도 빨리 네가 혼인해서 내게 조카를 보여줬으면 하는 말이다.”

“폐, 폐하!”

“그래야, 너의 이런 칠칠치 못한 모습도 내가 아닌 너의 반려가 챙겨줄 것이 아니겠느냐.”

고작 나뭇잎 하나 가지고 칠칠치 못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헤르세인의 눈에는 빈센트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아직 제 눈엔 어린 동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주변을 지나치다 눈이 마주친 카리엘노 백작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저를 향해 다가오는 두 사람을 반겼다.

“오랜만이군, 카리엘노 백작.”

“폐하,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카리엘노 백작. 지금의 젊은 그레이스 공작이 아닌, 은퇴한 그레이스 공작의 오랜 친우이자 한때는 중립파에 속한 백작가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 귀족들과 달리 카리엘노 백작은 유독 정치 쪽에는 소극적인 탓에 왕성이나 회의장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치에 소극적인 것과 별개로 연구에 대한 지원이나 봉사, 나라를 위해 힘을 쓰는 일은 적극적이다 보니 은퇴한 그레이스 공작 덕분에 카리엘노 백작과는 어느 정도 안면을 튼 헤르세인은 그와 얘기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다.

“송구할 것까지야. 그보다 백작의 옆에 있는 이는 누구인가?”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둘째 여식입니다. 아르제인, 국왕폐하이시다. 어서 인사를.”

차분한 백작의 음성에 오히려 긴장이 되었는지 흘끔 그녀를 보다가 눈이 마주친 아르제인은 푹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소개를 했다.

“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저는 카리엘노 백작가의 차녀인… 아, 아르제인 슈 카리엘노… 라 합니다.”

아르제인 슈 카리엘노. 헤르세인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풍성하면서도 파도처럼 굽이치는 밤색의 머리칼과 저의 존재로 무척이나 긴장되는지 요리조리 눈을 아래로만 데굴데굴 굴리는 옅은 연두 빛 눈동자는 풋사과처럼 싱그러우면서도 무척 여리게만 보였다. 하지만 긴장을 하고 있음에도 제법 흠잡을 곳 없이 예를 갖춘 모습에 헤르세인은 작게 미소를 그리며 대답했다.

“고개를 들도록, 카리엘노 공녀.”

“…예, 예!”

“올해로 나이가 몇이지?”

“여, 열여덟입니다.”

“열여덟?”

그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여전히 헤르세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정작 그녀의 대답을 들은 헤르세인은 크게 놀란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워낙 다른 공녀보다 체구도 작고 인상이 동글동글하여 나이는 적어도 열다섯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열여덟이라니.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시선이 빈센트에게로 옮겨지고 말았다. 그리고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얼굴을 옅게 붉히며 공녀에게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는 빈센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였다.

“폐하, 긴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자리를 떠나도 되겠습니까? 이제 막 쉼터에 도착한지라 저도 제 여식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사냥을 하려 하는가?”

“예, 가끔씩은 이렇게 딸아이에게 바깥 공기를 쐬어주고자 사냥터에 나가곤 합니다.”

역시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가문이었다. 누가보아도 나서기를 꺼려하고 두문분출하며 저택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 가문이나 다름없으나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욕구를 사냥에 푸는지 꽤나 거친 취미 생활을 가진 카리엘노 백작 가를 엿본 것 같아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센트를 흘끔 보곤 백작에게 대답했다.

“그럼, 백작만 괜찮다면 내 동생을 맡기고 싶네만.”

“폐, 폐하?!”

“폐하, 그 말씀은….”

눈을 동그랗게 뜬 빈센트와 진의를 묻는 백작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전혀 별다른 뜻이 없다는 얼굴로 평소처럼 대답한 것이 전부였다.

“내 동생이 워낙 사냥실력이 좋지 않아 그러니, 이참에 백작 그대가 내 동생의 사냥실력을 길러줬으면 하네. 마침 사냥터에 자주 간다고 하니 백작의 실력은 출중할 터. 그러니 오늘 하루, 빈센트를 그대에게 맡기겠네.”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헤르세인의 표정을 보아서인지, 그 표정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찾고자 함인지 아주 잠깐 동안 백작에게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국왕이 내린 부탁 같으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같은 말. 백작은 이내 차분히 고개를 숙여 헤르세인의 말을 따르고자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공 전하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백작과 공녀가 먼저 자리를 뜨고 아직까지 빈센트가 어리둥절할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헤르세인은 그런 빈센트의 등을 살짝 밀어주며 대답했다.

“그저 백작을 통해 사냥연습을 하는 것뿐이니 잘 연습하고 돌아 오거라.”

“하, 하지만 폐하!”

“설마, 내가 무슨 뜻이 있어 너를 백작에게 부탁했을까봐?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고 돌아 오거라. 이건 명령이다, 빈센트.”

본인이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 헤르세인은 조금 무리하게 빈센트의 등을 떠밀어냈다. 물론, 등을 떠민 것은 저이지만 인연을 쌓는 건 결국 빈센트의 몫. 그것을 오랜 인연으로 만들지 오늘 뿐인 인연을 만들지 빈센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뿐이었다.

빈센트가 백작을 따라 자리를 뜨고 이제 막 개인 천막으로 이동하려던 헤르세인은 마른하늘에서 범처럼 우는 번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시 제자리에 멈춰 하늘을 쳐다보니 여전히 하늘은 맑았지만 저 멀리서 보이는 회색빛의 하늘에 헤르세인의 눈은 가늘어졌다.

“설마… 비가 오려는 건가.”

제법 신중히 날짜를 골라 수확제를 연 화창한 날이었다. 그런데 수확제 기간 동안 비가오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과 달리, 하늘은 얄궂게도 헤르세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점점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결국 한 시간 채 되지 않아, 하늘은 완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이게 되면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십 분을 기다리고, 삼십분을 기다리고 한 시간을 기다려 봐도 비는 그칠 기미가 없어보였다. 또, 얼마나 폭우처럼 쏟아지는지 바깥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내리는 빗줄기에 헤르세인은 결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을 위해, 사냥대회를 중단하겠소.”

조치가 취해지자 귀족들은 하나 둘씩 준비를 하고 마차로 돌아가 각자의 저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창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와중, 여전히 천막에서 대기하고 있던 헤르세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그때였다.

“폐하! 크, 큰일 났습니다! 베르디올의 황제께서!!”

소식은 이러했다. 숲으로 사냥을 나간 황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황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혹은 길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실종된 황제. 황제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기에 헤르세인은 숲에 배치한 모든 병력을 움직여 황제를 찾아야만 했다.

“지금 당장 황제를 찾아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비가 내리기 한 시간 전. 1등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리카르도는 활과 검을 들고서 숲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들짐승의 모습에 기별도 가지 않아 오로지 사슴이나 멧돼지를 노릴 생각으로 리카르도는 숲을 헤쳐 나갔다.

쉬이이익──!

한번 쏘았다하면 백발백중. 오랜만에 잡아본 활임에도 실력은 녹슬지 않았는지 활의 시위를 당길 때마다 리카르도는 정복전쟁당시의 옛 기억을 떠올렸다. 총이라는 무기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무기는 철로 만들어진 검과 나무로 다듬어진 활이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를 활보했었으나 무기가 개발되고 총이라는 것이 손에 익을수록 언제부턴가 리카르도는 손에 익은 검과 활이 아닌 총을 잡고 있었다.

물론, 총이란 것이 워낙 손에 익혀질 것 같으면서도 사격도 까다롭다 보니 집중을 요할 때가 많았었다. 하지만 이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상대의 병사를 제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닌, 멀리서 진두지휘하며 더 이상 무기조차 들지 않았을 때, 제국의 땅은 이미 더 광활해져 있었고 그 이상으로 정복전쟁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국은 어느새 막강해져 있었다.

정복전쟁을 끝낸 그 이후부터 피가 묻은 그 어떤 무기도 손에 쥐어 본적이 없던 날들. 하지만 다시 한 번 잡게 된 활의 무게와 시위를 당길 때마다 집중을 하게 하는 호흡을 오랜만에 느껴보아서 일까. 리카르도는 그 감각이 제법 남다른 것 같아 제 손에 쥐고 있는 활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

“폐하, 여기서 더 깊이 숲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처에 강과 이어진 절벽이 있기 때문인지 라인하르트 공작은 물론 기사단장까지 주의를 단단히 주었습니다.”

제법 엄숙히 빌헬름이 목소리를 냈음에도 리카르도는 말에서 가뿐히 내려, 얼떨결에 사슴대신 잡힌 토끼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떠넘기듯 빌헬름에게 던져 대답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잡아본 활이라 그런지 재미가 있군. 제국에 있을 땐, 활은 더 이상 쓸 만한 무기도, 사냥무기 조차 되지 못했으니 말이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냥대회에서 사냥용 총기를 허용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가하는 귀족들이 많다보니 들판 한정으로 사용허가가 내려졌지만, 숲은 아무래도 패쇄적인 곳이다 숲은 총기사용 허가 대신 활과 검으로 대체한 듯싶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우거진 숲일수록 총기 사용은 위험한 법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맞출 사냥감이 정말로 짐승일지 사람머리일지 분간하기 어려우니.”

토끼를 빌헬름에게 떠넘기고서 다시 말의 안장에 가뿐히 올라탄 리카르도는 말의 고삐를 당기기 전, 저를 계속 쫓아오려는 빌헬름을 보며 쫓아오지 말 것을 명했다.

“이 이상은 따라오지 마라.”

“…예? 하지만, 지금 호위 기사를 전부 쉼터에 두고 저만이 폐하를 호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저까지 물리신다면….”

“깊게는 들어갈 생각은 없다. 그러니 적어도 삼십분 정도, 나 혼자 편히 사냥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라.”

“하지만 폐하.”

“이건 명령이다.”

아무리 제게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라 해도, 그 상관이 황제인 이상 빌헬름이 이길 방법은 없었다. 결국 순순히 물러나겠다는 선택을 하며 완전히 물러나기 전, 빌헬름은 재차 제 주군에게 한 번 더 주의를 남기고자 했다.

“절대로 깊숙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1분이라도 늦으신다면 호위 기사를 대동할 것입니다.”

“1분이라도 늦게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떠넘겨진 토끼를 말에 매고서 조용히 곁을 떠나는 빌헬름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피식 웃다가 완전히 몸을 틀어 비로소 고삐를 당길 수 있었다.

숲의 하늘은 숲 밖의 하늘과 달랐다. 숲 밖의 해가 아직까지 지지 않고 있어도 숲 안의 해는 금방 자취를 감추고 이른 어두움을 가져오는 것이 숲의 시간. 하지만 시간을 경계해야하는 것과 달리, 날씨는 황제인 그 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봐야 했다.

“하필 이럴 때 비가 쏟아지다니.”

그때였다. 먹구름이 낀 하늘에 몰두해 있다가 주변에서 들리는 수풀이 흔들리는 소리에 리카르도는 바로 경계를 태세를 갖춰 곧바로 활시위를 당긴 채로 주변을 탐색했다.

“...”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위를 당긴 리카르도의 호흡은 차분하면서도 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를 당긴 팔이 제법 흔들릴 법도 하건만 여전히 자세를 풀지 않는 리카르도는 이내 제 눈앞에서 흔들리는 수풀을 포착한 순간, 망설이지 않고 시위를 빠르게 놓았다.

꾸에에에엑──!

정확히 수풀을 통과한 화살은 무언가에 명중되었는지 수풀의 안쪽에서 눈살을 찌푸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수풀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예상된 멧돼지의 모습. 하지만 생각보다 멧돼지의 생명력이 질겼는지, 아니면 덩치가 생각보다 거대하여 괜한 화를 돋게 만든 건지, 몸집만큼이나 거대한 송곳니를 가진 멧돼지가 제게 활을 쏜 리카르도를 향해 달려들었다.

“어떻게 되었지? 황제는?”

“송구하오나, 아직 황제폐하를 찾을 수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가. 여전히 비는 쏟아져 내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비가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하늘은 이때만을 기다린 것처럼 천둥까지 내리치자 헤르세인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보고를 올린 병사를 지나쳤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네. 나 역시 황제를 찾아야겠어.”

“송구하오나, 안 됩니다, 폐하.”

“이보게, 라인하르트 공작!”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폐하, 폐하마저 제국의 황제처럼 안위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그땐 이 나라도, 제국도, 서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멀뚱히 지켜보기만 하라는 건가? 벌써 두 시간이 지났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이대로 있다간 강물마저 불어나겠지! 만약 황제가 혹시라도 강에 빠졌거나 위험에 처해있다면 그땐 어떻게 할 텐가? 그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단 말일세!”

“송구합니다, 폐하. 하지만 당장 제국의 황제가 중요할지라도 제겐, 폐하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라인하르트 공작!”

제 앞길을 단호히 가로 막은 클로드와 곁에서 묵묵히 그리고 똑같이 행동하는 길버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결국 그들을 노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클로드가 말한 의미는 머리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마음은 좀처럼 압박감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주변을 맴돌며 실종된 황제의 소식만을 기다렸으나 좀처럼 들리지 않는 황제의 소식은 헤르세인을 더욱 불안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때, 한 기사가 급히 클로드를 찾는지 당장 전할 말이 있다는 바깥의 소란스러움에 헤르세인도 클로드도 밖에서 기다리는 기사에게로 시선이 갈 수 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문이 따로 없는 천막 밖으로 나간 클로드는 혹시 황제를 찾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 서둘러 목소리를 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제국의 황제를 찾은 것이라면….”

“그, 그것이 아니오라… 공작각하. 라, 라인하르트 경이… 실종된 황제폐하를 찾겠다하여, 독단으로 말을 몰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클로드는 물론, 바로 천막 입구의 근처에서 루드비카의 소식을 들은 헤르세인은 당장 이름 모를 기사의 곁으로 다가가 저가 혹시 잘못들은 것이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자 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라인하르트 경이… 독단으로 혼자 숲으로 들어갔다고? 한 치의 거짓 없이 정말로 라인하르트 경이 것이 틀림없는 것이냐?”

“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단장님의 소집명령이 다시 떨어져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라인하르트 경을 발견하게 되어 함께 이동하려 했으나, 무슨 일인지 라인하르트 경이 소집명령에 따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었지?”

“그, 그것이… 어떡해서든 폐하를 아, 안심시켜야 한다고… 찾을 사람이 본인 밖에 없다고… 그리 말했습니다.”

“...”

그렇게 밀어내고 또 밀어냈었다. 어떡해서든 자신과의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두 번 다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에게 상처 될 만한 모진 말을 뱉어내며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기까지 했다. 그런데 저를 위해 움직인다니? 왜, 황제를 찾을 사람이 본인 밖에 없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황제를 찾을 사람은 이 사냥터에 지천에 깔리고도 남은 것이 병사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 그것도 독단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헤르세인의 모든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들었다.

“폐하?”

길버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멍하니 정신을 빼놓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내 아랫입술을 질끈 깨문 그녀는 저와 똑같이 흔들리는 눈을 하고 있는 클로드에게 당장 움직일 것을 명했다.

“라인하르트 공작, 그대의 형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붙잡아야 하네. 빨리… 빨리 붙잡지 않으면...”

“진정하십시오, 폐하. 서둘러 저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기사와 함께 헤르세인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클로드의 모습이 보였으나 헤르세인은 쫓을 수 없었다. 저가 지켜야 할 자리는 오직 이 곳 뿐이기에, 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음에도 위치란 것이 그러할 수 밖에 없기에 헤르세인은 제 옷자락을 움켜쥐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째서… 당신이... 굳이 왜...”

입안에서 수 없이 맴도는 말들. 그리고 자꾸만 피부를 타고 느껴지는 이 불길함은 무엇일까. 그 불길함이 강해질수록 어느새 하늘을 노려보는 헤르세인의 눈동자에는 더욱 짙게 회색빛으로 물드는 먹구름만을 비치고 있었다.

본래는 클로드와 함께 사냥대회를 참석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경비 임무와 황제까지 참가한 탓에 신경이 한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클로드는 상금이 걸린 사냥대회를 포기해 버렸다. 그리고 혼자서도 참가할 의지가 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인파에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예전과 다르게 집중된 이목을 받고 싶지 않았던 루드비카 역시 결국 사냥대회를 말끔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사냥대회에 온 목적은 헤르세인의 얼굴을 좀 더 보기 위함인지 사냥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는 쉬웠고 빨랐었다.

결국 늘 하던 일처럼 경계근무를 서는 기사단으로 돌아가 임무를 받고 다른 기사들과 움직이던 중, 갑작스러운 소집명령과 함께 쉼터로 복귀한 루드비카는 황제의 실종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께서 실종되셨다. 또한 국왕폐하의 하명이 떨어지셨으니 지금 우리들은 바로 수색을 시작한다.”

기사단장의 말을 따라 쉼터에 모여 있던 기사단이 전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 주변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황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수색에 방해를 주는 더 굵어지는 빗줄기에 결국 기사단은 수색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데 이래서 황제를 찾을 수나 있을까?”

모여 있는 기사들이 저마다 하늘에서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보며 상황의 어려움을 토해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가늘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굵어지고 폭우처럼 쏟아지는 모습에 루드비카는 조용히 기사단을 빠져나와 클로드에게로 향했다.

본래라면 저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님을 루드비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황제로 인한 그녀의 관심도 곤란함도 불안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던 루드비카는 황제에 대한 실종 정보를 상세히 알 필요가 있어, 클로드의 천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천막에 도착하기도 전에 근처에서 누군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클로드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상황을 지켜보고자 가까운 천막 쪽에 몸을 잠시 숨겨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라인하르트 공작, 어떻게 되었나? 황제 소식은 아직이나?”

“빗줄기가 계속 굵어져서 수색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네. 당장에라도 다시 수색하는 것이 맞는 일이나 지리 특성상, 숲과 강이 밀접해 있다 보니, 쏟아지는 비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차질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렇군. 일단 폐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니, 함께 가세.”

다른 이와 함께 서둘러 움직이는 클로드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뒤를 쫓아갔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이 루드비카는 제자리에 멈춰 설 수 밖에 없었다. 누가보아도 국왕의 개인 천막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천막이자 병사들의 경비가 삼엄한 곳. 허락을 구하고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가장 평범한 방법이 있으나 그날 이후로, 저를 대놓고 피하는 그녀의 모습을 알기에 루드비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이제 막 등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폐하, 폐하마저 제국의 황제처럼 안위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그땐 이 나라도, 제국도, 서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멀뚱히 지켜보기만 하라는 건가?”

비록 그녀와 멀리 떨어진 거리임에도 상황의 다급함을 보여주듯 다급한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라는 신분이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제 자신을 향한 노기가 섞인 그녀의 외침은 루드비카에게 까지 닿을 만큼 천막 주변을 크게 울리고 있었다.

얼핏 입구를 가로막은 클로드와 다른 이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때를 틈 타, 무슨 일인지 검은 안개로 나타난 바알이 키득키득 웃으며 깊숙이 숨겨두었던 루드비카의 속을 콕 짚으며 말을 꺼냈다.

"황제가 실종 됐다라… 그러면 너에겐 좋은 기회가 아닌가? 황제만 이대로 사라진다면 이젠 너와 그녀의 사이에 방해할 놈들은 아무도 없을 텐데."

“...”

"그러니 루드비카. 황제를 찾지 마라. 이건 너에게 두 번 다시없을 절호의 기회이자 눈엣가시인 황제를 여기서 치워낼 절호의 기회이다."

바알의 말처럼 이 기회는 좀처럼 없을 기회일지도 몰랐다. 눈앞에서 손도 안 쓰고 피를 묻히지도 않고 황제를 쉽게 치워낼 절호의 기회. 그리고 악마의 속삭임 때문일까. 이성적인 판단보다 욕망이 더 앞서고 이기심이 더 생각을 지배해, 루드비카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대답하려던 순간이었다.

“벌써 두 시간이 지났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이대로 있다간 강물마저 불어나겠지! 만약 황제가 혹시라도 강에 빠졌거나 위험에 처해있다면 그땐 어떻게 할 텐가? 그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단 말일세!”

또렷이 들린 그녀의 목소리. 악마의 속삭임에 동조되어 악마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려던 루드비카는 그제야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무리 그녀를 원한다 해도, 욕망보다 이기심보다 이 일은 이성적이여야 했다.

저에게 있어, 황제의 존재는 방해꾼이자 커다란 걸림돌.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황제의 존재는 걸림돌이라 해도 지금당장은 필요한 존재이기에 루드비카는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바알. 네 힘을 써야겠어.”

"설마 황제를 찾겠다는 건가? 이봐, 루드비카. 황제의 존재는 너에게 있어 도움하나 될 것 없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내가 말했을 텐데? 황제가 계속 존재한다면 그녀를 완전히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도 그녀를 빼앗을지 모를 황제를 찾겠다고?"

“네 말대로 이대로 영영 황제를 안 찾는 편이 내겐 더 좋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 욕심보다 그녀의 눈에서 황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꼴은 죽어도 못 봐. 황제 때문에 그녀가 더 곤란해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황제를 찾아 그녀를 안심시키는 편이 더 나아. 그러니 네 힘을 쓰겠어. 네 힘으로 황제를 찾을 수 있겠지?”

"그게 네 선택인가? 뭐… 선택은 자유라지만 결국 루드비카. 넌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상관없어. 내겐 이 일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바알은 대충 어깨를 으쓱이곤 그대로 루드비카의 육체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그러다 타이밍이 좋게도 때마침 한 기사가 근처를 지나가던 중이었는지 루드비카를 알아보곤 바로 근처까지 다가왔다.

“라인하르트 경!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지금 단장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소집하셨네.”

“아무래도 난 소집명령을 따르지 못할 것 같군.”

다시 떨어진 소집명령.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마구간으로 향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기사는 여전히 그를 쫓으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소집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에 대한 처벌이….”

“황제를 내가 직접 찾겠어. 폐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황제를 찾을 사람은 나 밖에 없으니까.”

“혼자 찾겠다니? 이보게 라인하르트 경! 자네 제정신인가?! 아무리 그래도 찾을 사람이 어떻게 경 밖에… 이, 이보게 라인하르트 경!”

가장 날쌘 말을 끌고나와 단숨에 안장 위로 올라탄 루드비카는 이내 고삐를 잡고서 기사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양발을 움직여 말의 허리를 쳐냈다.

“이랴!”

달리라는 신호를 알아들었는지 말이 울음소리를 내며 마구간 바깥으로 단숨에 나오자 그 뒤를 다급히 쫓은 기사는 벌써 숲을 향해 달려가는 루드비카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라인하르트 경! 라인하르트 경!”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리카르도는 힘겹게 눈을 떴다. 분명 멧돼지가 달려드는 것까진 기억이 났으나 말이 겁에 질려버렸는지 한참을 달린 것 같았다. 그러다 겁에 질린 탓에 땅을 제대로 못 본 탓일까. 낙마를 크게 한 것인지 운이 나쁘게도 이상한 곳으로 굴러 떨어져 현재 그는 말의 안장이 아닌 물줄기가 세차게 움직이는 강물과 근접한 절벽의 굵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하필 떨어져도 절벽에 매달린 턱에 리카르도는 작게 실소를 터트리며 제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

“이런 꼴을 보좌관이 봤다간 기겁을 하겠군.”

제국의 황제가 그것도 절벽의 굵은 나뭇가지에 아슬아슬 매달려있는 꼴이라니, 거기다 멧돼지로 인한 낙마라 생각하면 더한 실소가 나왔다. 한때 정복전쟁을 하여 많은 왕국들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전성기. 하지만 그 실력과는 다르게 이런 꼴이 되어버린 제 모습이 어이가 없어 리카르도는 연신 실소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있다간 매달려 있다간 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질 터….’

매달려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제 몸을 바치고 있는 나뭇가지가 적당히 굵었기에 망정이지 힘을 살짝만 줘도 부러질 정도의 가는 나뭇가지였다면 눈을 뜨기도 전에 강에 떨어져 진즉에 물살에 휩쓸렸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대범히 움직이기에는 위치가 애매했고 굵은 나뭇가지라 해도, 나뭇가지의 뿌리는 이미 절벽의 절반정도 튀어나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자칫 잘못 움직인다면 절벽에서 떨어지기 딱 좋은 상황.

근처에 누군가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숲속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 리카르도는 혀를 찼다.

소리를 외치기엔 강물의 시끄러운 소리가 목소리는 먹어낼 것이었고 계속 외치기에는 저가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왔는지 쉼터와 떨어져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리카르도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직이 한숨을 토해내려던 찰나였다. 청력이 좋은 탓에 아주 미세하긴 하나, 거친 강의 소리가 주변을 울리고 있음에도 리카르도는 근처에서 들리는 말발굽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도와줄 이들이 온 건가? 아니… 그러기엔 말발굽의 소리가 한 마리 뿐.’

안심도 잠시, 리카르도의 고개를 들어 올려 절벽 위로 모습을 드러낸 한 사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태양으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기 보단 하필 나타나도 전혀 반갑지 않은 익숙히 알고 있는 사내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미간을 좁힐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네놈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필 제 눈앞에 나타난 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루드비카였기에 리카르도는 이젠 미간을 좁히기 보단 묘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루드비카를 봐야만 했다.

“이런 곳에 매달려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곳에 매달려 있을 줄은 몰랐다.”

빈정이 섞인 말인지 진심으로 나온 궁금증어린 말인지 분간되지 않았으나 루드비카라도 나타났기에 안심이 된 리카르도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그를 향해 대답했다.

“도와줄 텐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저를 도와줄 사람이 현재는 루드비카가 유일했기에 개인적인 마음을 떠나 리카르도는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또 한 번 묘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려고 온 것입니다.”

루드비카가 손을 뻗었다. 망설임조차 없이 손을 당연하게 내미는 그 모습에 리카르도는 몇 초 동안 그의 손을 보다가 이윽고 굵은 나뭇가지가 가라앉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맞춰 제 손을 뻗어 루드비카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게 뻗은 손을 잡았음에도 루드비카가 당기는 힘과 달리, 무슨 일인지 아래로 당겨지는 힘에 리카르도는 고개를 내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잠깐 멈추게. 하필 옷이 다른 나뭇가지에 걸려있군.”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군요. 제국의 황제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다시 손을 놓아주게. 어떡해서든 나뭇가지에 걸린 옷을 떼어 내도록 하지.”

“신중히 움직이십시오.”

루드비카가 손을 풀어주자 리카르도는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입고 있는 제복의 재킷을 나뭇가지에서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아주 살짝 움직였을 뿐임에도 오랫동안 그를 지탱하고 있던 굵은 나뭇가지가 힘을 다하고 있는지 절벽에 박혀 있던 뿌리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조금씩 아래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젠장.”

루드비카의 손을 잡고 무사히 올라가려면 아래의 나뭇가지에 걸린 제복 재킷을 떼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재킷을 당길수록 미세한 움직임 하나로 굵은 나뭇가지의 뿌리가 팽팽한 끈이 끊어지듯 힘을 잃기 시작했다.

결국 그 모습이 불안했는지 루드비카가 다급히 다시 손을 내밀어 대답했다.

“이대로 시간을 끌면 강물에 떨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밧줄이라도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급히 오는 바람에 최대한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제 손을 잡으십시오.”

악마의 힘을 이용한다면 더 없이 좋을 테지만 아쉽게도 악마의 힘은 마력으로 정신을 지배하거나 혹은 파괴하는 것이 전부인 힘이기에 현재 루드비카에겐 무용지물인 힘이나 다름없었다. 설사 사용할 수 있다 해도 악마의 존재를 모르는 황제에게 함부로 보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기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지에 대한 변명거리도 루드비카에겐 없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손으로 밧줄대신 황제를 절벽에서 끌어올리는 것.

질긴 넝쿨이라도 있으면 싶었지만 주변에 끌어올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루드비카는 다시금 손을 내려 리카르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군. 내가 이래보여도 귀가 좋아서 그런지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라니… 그게 무슨...”

리카르도의 시선을 따라 물줄기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인 루드비카는 얼굴을 일그러트려야 했다. 요 몇 시간 동안 빗줄기가 폭우처럼 굵어진 탓에 강의 물줄기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유속이 빨라진 것과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산사태로 무너진 거대한 나무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서둘러야 했다.

“하필 타이밍이 이럴 때….”

“그보다 옷에 걸린 나뭇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대로 있다간 우리 둘 다 떠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방금 보았지 않은가?!”

“젠장!”

떠내려 오는 나무를 악마의 힘으로 사용해 부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으나 우드득, 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쩌적, 하고 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본 루드비카와 리카르도는 동시에 기가 막힌 표정을 하며 서로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사이좋게 떨어질 것 같네요.”

우드드득하고 부러진 굵은 나뭇가지와 흙을 쏟아내며 루드비카가 버티고 있던 땅이 무너진 절벽. 그리고 두 사람은 이내 빠르게 쏟아져 내리는 강물에 깊숙이 떨어지고 말았다.

혼자 황제를 찾겠다며 숲으로 들어간 루드비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황제가 실종 된지 몇 시간이나 흘렀는지 이젠 시간조차 세지 않았다. 먹구름으로 가려진 하늘은 먹물이 스며든 것처럼 어두워졌고 먹구름 사이로 은은히 떠오른 달이 비쳤을 때, 헤르세인은 그제야 저녁이 지난 깊어진 밤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직도 두 사람을 찾지 못했는가?”

“송구합니다, 폐하.”

그렇게 쏟아져 내리던 비가 그치고 또 다시 비가내리기 전에 서둘러 수색작업을 명령한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황제와 루드비카의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나 전혀 들리지 않는 그들의 소식에 마음은 조급해져갔고 헤르세인은 이내 제 손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루드비카….’

그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일 먼저 황제의 생사가 우선임을 상기해야하면서도 이성과는 정반대로 제 감정이 루드비카만을 떠올렸다. 결국 마음도 정신도 피로해진 탓일까. 헤르세인이 제자리에 주저앉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라즐리가 서둘러 헤르세인을 부축했다.

“폐하!”

“...”

무언가를 꾹 참듯, 아랫입술을 깨물며 주먹까지 움켜쥐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위태롭기까지 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라즐리는 헤르세인을 부축하고 천막으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이려 했으나 멀리서 다급히 뛰어오는 한 기사의 모습에 라즐리도, 헤르세인도 시선은 한곳으로 향했다.

“폐하!”

라즐리가 부축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헤르세인은 휘청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일으켰다. 그리고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은 기사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이지? 설마… 황제를 찾은 건가?”

“그것은 아니지만 숲 속에서 말 한 마리와 강가에서 또 한 마리의 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말의 주인은? 주인인 두 사람은 어찌 되었지?”

다급히 묻는 그녀의 물음에 기사는 눈치를 보듯 끝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다.

“소, 송구하오나… 두 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기사는 헤르세인에게 한 자루의 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어 확인한 헤르세인은 기사가 왜 제게 검을 보여주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곧바로 검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기사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숨을 덜컥 들일 킬 수밖에 없었다.

“그 검은 라인하르트 경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뭐… 라고?”

“그리고 그 검이 발견된 장소가… 절벽이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검 한 자루. 그리고 절벽이 무너진 곳. 이 두 가지를 듣자마자 머릿속은 하나의 그림처럼 헤르세인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아니야…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라즐리와 기사를 밀치고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것일지 모를 검을 들고서 몇 발자국 나아갔지만 끝내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떡해서든 일어나고자 다리에 발에 힘을 주었지만 손에 잡힌 검이 두 눈에 들어올수록 헤르세인의 눈가는 어느새 물기가 고여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처럼 뜨겁게 떨어지는 눈물방울.

또 다시, 저 하나 때문에 그를 죽음에 몰아넣은 것이었다. 살아 돌아온 그를 위해 밀어내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건만. 결국 그를 다시 죽음에 밀어놓고 말았다는 강박이 상처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 했다.

“당장… 당장 모든 병력을 이용해 라인하르트 경을 찾아라…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찾아라… 당장 찾으란 말이다!!”

눈을 떴을 때, 루드비카는 제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주변을 둘러본 순간 숲과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 떠밀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엉망진창이 된 몰골과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현재 루드비카에겐 무기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저처럼 똑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황제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황제의 곁으로 다가가 털썩 앉았다.

“서로가 꼴이 말이 아니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살았다. 네가 내 손을 놓았다면 아마 이렇게 숨이 붙어있진 않았겠지.”

“...”

낯간지럽게 인사를 하는 황제의 모습은 적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진심인지 절벽에서 보았던 얼굴보다 피로에 절어있는 지금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입을 다물었다.

달이 뜬 밤하늘. 아직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으나 아까보다는 가늘어진 빗줄기에 루드비카는 이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있다간 체온이 내려가 병 걸리기 딱 좋으니 말이지요.”

“같은 생각이다. 그럼 각자 서둘러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지.”

각자 쉴만한 장소를 찾다가 성인 남성 두 명이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 동굴이 발견된 덕에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동굴에 자리를 피고 앉았다. 동굴에서 마련한 마른 나뭇가지. 그리고 리카르도는 익숙하게 주변에 있던 부싯돌로 불을 지펴 작은 모닥불을 만들었다.

타들어가는 모닥불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카르도는 체온 유지를 위해 젖은 제복은 물론 상의를 전부 벗어 모닥불 근처에 옷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펼쳐놓았다. 그리고 저처럼 상의를 전부 벗는 루드비카를 볼 수 있었다. 모닥불 근처에 옷을 펼쳐 놓고서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가는 말은 없었다.

“...”

“...”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 그러다 오랜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건 리카르도였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이라면.”

“언제부터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된 거지?”

루드비카는 무심한 눈으로 리카르도를 보았다. 어째서 그걸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눈짓이기도 했지만 끝내 제자리로 시선을 되돌렸을 때 루드비카는 제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있는 오랜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그녀를… 헤르세인을 만나게 되었던 그날.

한창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봄기운처럼 따뜻함의 온기가 만연했던 따사로웠던 그날.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자 저 혼자 정원의 나무 위로 숨어 연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그날.

하늘의 짓궂은 장난인지 귀걸이 한 짝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줄 알았으나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루드비카는 가장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한 겨울 같으면서도 푸름의 눈동자에 아무 것도 담겨 있지 않던 텅 비어진 눈동자. 하지만 제 모습을 비추는 그 눈동자가 너무나 맑아 저가 나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모른 채 엉덩방아를 찧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 번 태양빛에 가려진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루드비카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어쩌면 그날이 저가 깨닫지 못한 진정으로 첫눈에 반한 계기일지도 몰랐다.

"실례지만, 이름!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귀걸이를 찾아주신 보답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절 도와주신 분의 이름을 알아야 할 것 같군요."

"이름 따위 없어. 당신에게 들려줄 이름도 없고. 그러니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보답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처음이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고 알아내고 싶은 것도. 그리고 호기심이 간 것도. 또, 그녀의 웃는 얼굴을 한번이라도 보았으면 했던 과거의 마음.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았지만 저 하나 때문에 늘 웃지 못 할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라리기까지 했다.

너무 오랜만에 떠올린 기억이어서 일까. 루드비카는 괜스레 쓰라린 마음을 억누르며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입술을 떼었다.

“비밀입니다.”

“또 비밀인가? 뭐… 예상은 했다.”

“그럼 그쪽은 어떻습니까. 폐하께 향하는 감정이 사랑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랑이라… 솔직히 나는 내 감정을 모르겠군.”

그게 무슨 말이냐며 루드비카의 눈이 흘긋 옮기자 타고 있는 모닥불에 줄곧 시선을 주고 있던 리카르도는 피식 웃고는 벽에 등을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나는 네놈처럼 사랑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감정이다. 확신된다 싶으면서도 어쩔 때는 또 확신되지 않는…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만 분명한 건, 그녀가 탐나고 욕심난다는 사실이지. 그런데 이것을 과연 남들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분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면 포기하십시오. 탐내지도 마시고 욕심조차 갖지 마십시오.”

“반대로 진심이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가?”

“설령, 그 감정이 진심일지라도 포기하십시오.”

“왜? 너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가?”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 머릿속과 마음은 오직 저만의 존재라고 외쳤지만 입술 밖으로는 솔직하게 토해낼 수 없었다. 루드비카가 줄곧 침묵으로 입을 다물고 있자,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던 리카르도는 눈을 떠 그를 보았다. 모닥불에 비치는 루드비카의 붉은 눈은 석류석처럼 빛이 났지만 어딘지 모를 음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음울함이 분위기를 처연하기까지 해, 리카르도는 저를 향한 비난인지 루드비카를 향한 비난인지 모를 자조적인 입꼬리를 올렸다.

“네놈도 나도… 그녀에게 단단히 얽매인 것 같군.”

“...”

“잠깐이라도 눈은 붙이도록. 날이 밝는 대로 여기서 나가야 하니.”

그리곤 정말로 눈을 감아버려 잠을 청하는 리카르도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그를 흘긋 보다가 이내 동굴 밖에 뜬 초승달을 볼 수 있었다. 검은 먹구름에 은근히 가려져 있으나 달의 후광이 얼마나 빛이 나던지 먹구름에 가려져 있음에도 제 빛을 발하는 달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여전히 떨어지는 빗방울의 소리. 그리고 모닥불의 소리. 깊은 밤에서 새벽까지. 또, 동이 트는 그 순간까지 루드비카는 오랜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새벽이 지고 날이 밝았다. 마치 어제의 날씨는 거짓이었던 것처럼 빗줄기는 많이 그쳤으나 아직까진 옅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곧 개어질 예정인지 점점 옅어지고 있는 먹구름의 틈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어 아직까지 잠에 빠져 있던 리카르도를 깨웠다.

“…아침인가?”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 전 잠에서 깨어났는지, 아니면 잠에 들지 않았는지 루드비카는 이미 바싹 마른 흙투성이의 제복으로 갈아입고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언제 꺼졌는지 모를 모닥불과 다 타버려 재 밖에 남지 않은 흔적들. 리카르도 역시 다 마른 제복을 걸쳐 입고서 자리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보다 여기가 정확히 어느 쪽인지 알겠나? 우리가 강물에 떠밀려 내려온 것을 보면 한참 내려온 것 같은데….”

동굴 밖으로 나온 리카르도는 밝아진 주변을 탐색하며 자신들이 있는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당연히 멀리 떨어진 곳이나 예의상 가까운 곳임을 대충 짐작하며 대답하리라 예상했으나 오히려 이곳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듯 쉽게 대답하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리카르도는 의심쩍은 눈으로 그를 볼 수밖에 없었다.

“많이 떠내려 오긴 했지만 눈앞의 강을 건너게 된다면 쉼터로 가는 길은 쉬울 것입니다.”

“쉼터를 찾을 수 있다고? 그보다 강을 건넌다니?”

여전히 의심이 되었으나 이제는 손가락으로 친절히 목적지를 가리키는 루드비카의 행동에 리카르도는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저길 보십시오,”

“...”

“어디선가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강물에 떠밀려 내려온 나무들 덕에 강의 유속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있었던 곳은 폭포와 밀접한 곳이라 수위가 깊고 유속도 빨라 떠밀려 내올 수밖에 없었다면 이곳은 수위가 높긴 하지만 유속도 느려서 수영을 잘만한 다면 건너기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또, 폭포도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어제보단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루드비카의 말처럼 강 쪽에 시선을 옮긴 리카르도는 반대편 강가에 뿌리 채 뽑힌 나무들이 빼곡히 쌓여있는 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절벽에서 내려다보았던 좁으면서도 유속이 빠르고 거칠었던 강과 달리, 이곳은 시야가 트일 만큼 넓으면서도 잘만 수영한다면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위치 덕에 리카르도는 고민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쉼터로 가는 길이 쉬울 거라 단언하는 거지? 그리고 절벽에 매달려 있던 나를 어떻게 한 번에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왜 지금에야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걸까. 만약 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자연스럽게 물어봤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물어볼 기회는 사라졌고 어제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기엔 감성적인 모닥불조차 잿더미로 남은지라 리카르도는 의문만 남긴 채 루드비카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싹 말라있던 제복이었으나 다시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두 사람은 다시 쫄딱 젖을 수밖에 없었다. 유속이 느린 덕분에 두 사람은 무리 없이 수월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강가에서 나와 물을 무겁게 먹은 상의를 다시 벗어 대충 옷을 짜고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래도 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고생할 것 같군.”

비가 쏟아져서인지 여기저기 엉켜있는 넝쿨이며 수풀이며 시야를 가리는 나뭇잎들의 모습에 리카르도가 이내 혀를 차버렸다. 거기에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시야를 방해하는 나뭇잎도 문제지만 풀들이 억샌 탓에 손으로 치워내도 오히려 팔에 힘이 더 들어가는 덕분에 리카르도는 오랜만에 공복인 채로 훈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앞서 걷던 루드비카도 마찬가지인지 어깨를 주물이며 동의하듯 대답했다.

“고생 좀 하겠지만 계속 나아가다보면 쉼터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 잘 따라오십시오. 특히 이런 숲속에서 길을 한번이라도 잃게 된다면 방향감각이 둔해져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테니….”

선택지는 없었다. 언제까지 수색대가 자신들을 찾을지 기다릴 수는 없는 법. 리카르도는 이윽고 루드비카가 앞장서서 걷는 것을 시작으로 이윽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빗방울이 옅어진 아침. 그리고 해가 높이 뜰수록 오전의 시간은 점점 오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을 새며 단 한 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던 긴 시간들. 밤을 샌 흔적을 보여주듯 붉게 충혈 된 눈과 눈 밑으로 검게 드리워진 옅은 그림자가 헤르세인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들리지 않는 그들의 소식. 이미 날이 밝아진 현재, 헤르세인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자꾸만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마음과 점점 더 불안 증세를 보이는 떨리는 손짓. 입술은 이미 메말라 버린지 오래였다. 혀로 아랫입술을 축여도 입술도 입안도 바짝 마른 사막처럼 모래를 곱씹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목구멍은 커다란 돌덩이에 꽉 막혀버린 것처럼 말조차 쉽게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이 상태로 기다리길 얼마나 지났을까. 헤르세인의 모습이 너무도 위태로워 보였던 탓일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라즐리가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다.

“폐하,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시는 게 어떠십니까. 폐하께서 명령하신대로 기사님들도 병사들도 최선을 다해 두 분 모두를 찾고 계시니 염려마시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십시오.”

하지만 라즐리의 걱정과 달리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둘 중 누구라도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잠에서 조차 악몽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난 절대로 눈을 붙이지 않겠다.”

“폐하….”

너무나 단호하면서도 예상된 대답이기 때문이었을까. 라즐리는 헤르세인의 곁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었다.

어느새 시간은 오전에서 오후로 접어들고, 아직도 숲 속 주변으로 한창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고 있을 때, 무슨 일인지 다급히 병사 한명이 넘어지듯이 달려와 빠르게 소식을 전달했다.

“폐, 폐하! 제국의 화, 황제폐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병사가 가져온 소식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황제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루드비카의 소식이 제일 듣고 싶었던 헤르세인은 거의 자리에서 뛰쳐나와 병사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 다급히 물었다.

“그는… 라인하르트 경은 어찌 된 것이냐! 경은 무사한 것이냐?!”

언뜻 들으면 황제보다 기사의 생존을 더 궁금해 하는 국왕은 모습은 이상해보일지도 몰랐다. 그 어떤 왕이라도 하물며 일개 병사조차도 언제 왕국을 꿀꺽 집어삼킬지 모를 제국의 황제가 더 큰 존재이다 보니 황제의 안위를 더 우선시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황제의 안위보다 제 나라의 기사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안위를 다급히 묻는 그녀의 모습은 왕국만을 생각하는 참된 국왕과도 같아 병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엄숙히 대답했다.

“예! 라인하르트 경께서도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께서 이곳으로 오고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말이 가장 안심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었기 때문일까. 병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자리에 무너지듯이 털썩 주저앉은 헤르세인의 모습에 라즐리가 외쳤다.

“폐, 폐하!”

그토록 오랫동안 벌벌 떨었던 손의 떨림도 진정되지 않던 감정도 헤르세인은 힘겹게 숨을 토해내는 것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불안에 떨었던 탓에 아직까지 미미하게 남아있는 손끝의 떨림이 진정되지 않아 헤르세인은 제 손을 꽉 붙잡았다.

“무사했던 거야… 그 사람은…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이 울림이 이토록 감격스러울 줄이야. 그러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과 별개로 두 눈으로 직접 얼굴을 봐야 완전한 안심이 될 것 같아 헤르세인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세워 라즐리에게 고했다.

“직접… 내가 직접 얼굴을 봐야겠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걸어가 헤르세인은 숲의 입구 쪽에서 수색작업을 종결하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사들 틈에서 익숙한 은발머리와 붉은 눈동자를 본 순간, 헤르세인은 잽싸게 뒤를 돌아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정말로 살아있어… 살아 돌아 와줬어….’

하마터면 눈물을 떨어트릴 것 같아 헤르세인은 억지로 제 감정을 죽이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 싶었을 때, 헤르세인은 다시 입구 쪽을 몸을 돌려 어느새 제 눈앞에 멈춰 선 두 사람을 마주할 수 있었다.

“마중까지 나올 줄은 몰랐군.”

“...폐하.”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떨어진 목소리. 하지만 유독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면 착각일까. 그러나 루드비카가 아닌 리카르도에게 시선을 줄곧 향한 헤르세인은 이젠 기쁨보단 비난과 힐난을 담은 눈빛으로 목소리로 리카르도를 일갈했다.

“난 분명 경고했었소, 베르디올의 황제. 하지만 그대는 나를 포함하여 그대의 사람도 왕국의 모든 이들도 곤란하게 만들었고 피를 말리게 했지.”

“미안하오, 변명하진 않겠소.”

“실망이오, 베르디올의 황제.”

강하게 실망이란 언급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실망보단 이렇게 소리를 외침으로서 방금 전까지 불안에 떨었던 나약함과 이런 사태를 일으킨 분노를 토해낸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보니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더 실감되어 헤르세인은 나직한 한숨과 함께 피곤에 절은 눈가를 만지며 누그러진 목소리로 다시금 대답했다.

“실망은 했으나 그대의 몰골을 보아하니 고의로 일으킨 일은 아닐 터. 그러니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이 일은 묻어두겠소. 그리고...”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헤르세인은 결국 저를 줄곧 보고 있는 루드비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붉은 눈을 보고 있자면 저를 향해 하고픈 말들이 많은 것 같았지만 헤르세인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한 루드비카를 향해 전처럼 똑같이 리카르도보다 더한 차가움으로 그를 비난했다.

“라인하르트 경, 그대는 독단으로 부대를 흩트리고 이곳에 있는 기사들과 병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알고는 있겠지, 그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예, 폐하. 저 역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폐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사직을 가진 기사라면 무궁무진 할지도 몰랐다. 이렇게 또 다시 목숨을 걸고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닌. 헤르세인은 리카르도처럼 몰골이 엉망인 루드비카를 다시 보았다. 하루 사이에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진흙탕에 한바탕 구르기라도 한 것처럼 온통 흙투성이인 그들의 모습에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다시 루드비카를 외면하며 이윽고 자신의 결정을 토해냈다.

“한 달 간, 그대의 봉급을 기사단장에게 감봉하라 이를 것이며 그대의 독단으로 기사들과 병사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한 달 동안 자택에서 근신할 것을 명한다. 또한 그대의 근신이 끝나는 즉시 기사작위를 박탈하도록 하겠다. 이건 명령이다.”

“...”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헤르세인은 더 이상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숨을 고르게 뱉어냈다. 그리고 곁에서 놀란 눈을 하고 있는 라즐리에게 헤르세인은 왕성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

“왕성으로 돌아가겠다.”

“예? 예, 폐하.”

라즐리가 서둘러 마차를 부르자 준비할 것도 없이 마차를 타고 헤르세인은 완전히 왕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루드비카와 리카르도의 실종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나름 철저한 준비를 했으나 귀족들의 이목을 이끈 사냥대회는 다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고자 완전히 중지가 되어버렸다. 그것에 불만을 갖은 귀족들도 있었으나 황제의 실종 사건이 귀족들 사이에선 알음알음 퍼진 덕에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난다면 병력의 손실도 커, 대다수의 귀족들은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다.

리카르도의 실종 사건 이후, 어느새 수확제의 마지막 날. 각자 다양하게 수확제를 즐기고 있을 동안 근신 명령이 떨어진 루드비카는 저택의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가끔씩 클로드가 노크를 하며 걱정이 담긴 진중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네긴 했으나 짧은 이야기만 형식적으로 오고갈 뿐, 루드비카의 헛헛한 마음까진 닿지 못했다.

"기사직 박탈이라… 근신이 끝나고 완전히 박탈된다면 앞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떻게 볼 생각이지?"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조용히 꺼져.”

"그렇지 않은가? 기껏 그녀를 위해 네 스스로가 위험에 뛰어들었는데 정작 너에게 온건 어떤 보상도 없는 기사작위 박탈이라니. 어리석은 루드비카, 그러니 내 말을 들었어야지. 황제 따위, 네 손으로 돕게 된다면 너에겐 이득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거지?"

“...”

바알의 말처럼 정말로 자신은 깨닫지 못한 것일까? 하지만 그저 몸이, 마음이 그녀를 위해 움직였을 뿐. 황제를 구한 일에는 일말 후회는 없었다. 멀쩡히 살아 돌아와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황제가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그녀의 낯빛이 밝아졌음을 볼 수 있었으니까.

물론, 그녀의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으킨 일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미련조차 없이 제게서 등을 매정히 돌린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루드비카는 그제야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이 시야가 트이듯 전부 보이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저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는 이곳에 없다는 것. 저가 기억하는 그녀는 7년 전, 상처받고 한 없이 여렸던 여인이 아닌, 그저 군주로서의 한 사람일 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왕의 모습.

그 모습을 억지로 외면하고 그녀가 뱉어낸 모진 말들을 듣지 않으려 했으나 다시 한 번 제게 등을 돌린 그 모습을 본 순간, 완전히 깨닫게 된 건지도 몰랐다. 정말로 그녀의 마음에 자신이 들어설 곳이 없음을. 그리고 그녀의 입술은 더 이상 제 이름이 불릴 리가 없음을.

“이제 당신의 마음에 완전히 내가 없는 건가요. 헤세...”

허공을 향해 나직이 뱉은 물음. 그러나 돌아올 대답도 목소리도 없었다. 살아있는 심장이 고스란히 뛰고 있음이 느껴지는데 심장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그대로 뜯긴 것처럼 아프기만 했다. 처음 각오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그녀가 저를 끝까지 밀어내도 어떡해서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란 개념은 루드비카의 확신을 불확신으로, 또 마음을 요동치는 파도처럼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저가 움직이는 일들 모두, 그녀를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녀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마음은 물밑처럼 쏟아지는데,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강렬함에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다니. 자조적인 웃음이 세어 나온 루드비카는 이내 얼굴을 일그러트렸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전부 끝날 줄 알았는데… 나는 결국 그때도 지금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거야...”

황제와 함께 실종 되었던 그 날, 루드비카는 모닥불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그 날의 일을 떠올렸다. 황제에게 그 누구보다 단호히 그녀를 사랑하지도 마음조차 품지도 말라고 했던 경고의 말.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을 들어야하는 건 황제가 아닌, 제 자신일지도 몰랐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 이런 말이었던 걸까. 콩깍지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를 향한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진심이 그녀에게는 저라는 가시가 손끝에 박힌 고통처럼 잊을만하면 다시 박히는 처치곤란의 가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건지도 몰랐다.

“헤세...”

아주 어렸을 적, 어머니인지 기억나지 않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았다. 첫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왜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지 신기하면서도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루드비카의 입가는 어느새 씁쓸히 웃고 있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받쳤던 첫사랑. 두 번 다시없을 거라 생각한 인연. 하지만 달콤했던 행복은 불행이 되었고 루드비카에게도 헤르세인에게도 서로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이 남은 과거의 인연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사랑을 증명할수록 되돌아오는 건 상처뿐인 그녀의 불행. 어쩌면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 오랜 인연을 끝내야 될지도 몰랐다. 처음으로 그것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인연. 하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만은 영원할 것이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도 사랑을 속삭일 수 없어도 제 마음은 7년 전 그녀에게 전부 내어주었으니까.

“...결심했어.”

"무엇을?"

“그녀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하기로. 그리고 멀어지겠어. 그저 멀리, 아주 멀리서 지켜보고 가끔씩 그리워만 할 거야.”

"어째서?"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순간, 그녀에겐 온통 고통과 상처로 되돌아왔으니까. 하지만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녀의 것이야.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도 그녀는… 헤세는… 두 번 다시없을 내 일생의 마지막 사랑이니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루드비카의 결심을 들은 바알의 표정은 처음 소환되었던 그때와 똑같은 가장 진중한 표정이었으나 바알은 끝내 대꾸할 수 없었다. 루드비카의 결심이 너무나 완강한 것도 있지만 마치, 악마의 힘이 정화된 것처럼 가장 맑은 눈으로 눈을 뜨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수확제가 마무리 되어가는 노을이 지는 저녁. 그리고 남들과 달리 휴식조차 없이 집무실에서 여전히 업무를 보던 헤르세인은 어느새 달이 뜬 남색의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비가 올 요량인지 어제와 다르게 수놓은 별을 가린 하늘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창가에서 물러나 라즐리를 불러들였다.

“오늘 업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다.”

“그럼 바로, 침실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를...”

라즐리의 말이 끝나기 전, 손을 들어 잠시 이야기를 제지시킨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전에 잠깐 산책 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다. 요즘 도통 일 때문에 몸을 못 움직여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더 걸을까 한다.”

물론 오래 산책하기에는 곧 비가내릴 예정 같아 헤르세인은 짧게 끝낼 요량으로 집무실에서 나와 산책로가 있는 레인 궁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려던 찰나였다.

“폐하?”

“레인 궁 말고, 본궁에서 가까운 산책로로 가자꾸나. 레인 궁까지 가기에는 오늘 따라 유독 거리가 멀구나.”

라즐리도 결국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헤르세인이 먼저 앞장서서 걷자, 그 뒤를 따라 시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인 궁 말고도 본궁에는 가장 큰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정원이 가꾸어져 있었다. 하지만 본궁의 정원은 크기도 크지만 워낙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닿는 곳이다 보니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위치라 헤르세인은 본궁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 쪽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기고자 이제 막 벽이 없는 외부 복도의 모퉁이를 꺾을 때였다.

“...”

“...”

왜 하필 마주쳐도 이때 마주치게 된 걸까. 헤르세인은 살짝 입술을 벙긋이다가, 이내 그의 품에 안긴 작은 상자를 볼 수 있었다. 기사들이 흔히 쓰는 도구들이 담긴 상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지 하필 마주친 방향이 서로 엇갈렸던지라 헤르세인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폐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난, 할 얘기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렇습니다.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폐하.”

“...”

왠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무엇일까. 하지만 평소 보았던 모습이 아닌, 너무나 진중히 그리고 차분히 저를 보며 간곡히 청하는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즐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물려라. 그리고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을 들이지 마라.”

“예, 폐하.”

시녀들은 물론,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기사들까지 전부 물러나자 헤르세인은 벽이 없는 외부 복도에서 빠져나와 고요한 정원의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지 저벅저벅 움직이는 느릿한 발소리에 어느 정도 맞춰 걸었다 생각한 헤르세인은 제자리에 멈춰 나직이 입술을 뗐다.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지? 일부로 자리까지 만들어주었다. 그러니 내게 대답하라. 경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폐하께서 명하신 기사작위 박탈을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는 대로 이곳을 떠날까 합니다.”

기사작위 박탈을 받아들인다는 말까진 알아들었지만 그 뒤의 목소리를 헤르세인은 저가 제대로 들은 건지 의아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이곳을 떠난다는 말이 도무지 머리가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쐐기를 박아버리듯 이번엔 정확히 들린 루드비카의 차분한 목소리가 헤르세인의 호흡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니… 신중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존재가 얼마나 폐하께 많은 폐를 끼치게 했는지...”

“...”

“7년 전,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누구보다도 기뻤습니다. 다시, 당신을… 폐하를 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7년이란 또 다른 시간이 저를 촉박하게 했고 더욱 미치게 만들었지요.”

“...”

“제가 알고 있는 폐하는 그대로인데 저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제가 모를 공백이 저를 낄 수 없게 만들었고 제가 폐하를 원할 때마다 폐하는 저를 밀어내셨지요. 처음엔 이해보단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폐하의 곁에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폐하의 눈이 차갑고 제게 뱉어내는 말들이 가시 같을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욕심이 지나치게 생겼고 어떡해서든 폐하의 눈에 띄기 위해, 폐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원망을 받더라도 폐하를 향한 제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저를 밀어내는 폐하가 이제는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일지도 몰랐다. ‘원망’ 그가 저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했다. 그만큼 어떡해서든 제 곁에서 밀어내려고 했으니까. 전부 그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후회? 당연히 있었다. 그저 눈을 딱 감고 그를 받아들이면 쉽게 끝날 일을 먼 길을 돌고 돌아 오직 밀어내는 것에만 급급했으니까. 하지만 저에게 있어, 그건 최선이자 최선의 선택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또 다시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다시 저 하나 때문에 죽음을 겪는 일을 어떻게 다시 겪게 한단 말인가. 운명인지 하늘이 제게 내린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제 존재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기라도 하는지 결국 하늘은 선택한 것이었다. 어머니도, 얼굴 한번 못 본 아버지도 외가도, 친가도 전부. 거기에 그토록 사랑했던 한 사람까지, 하늘은 결국 제 행복을 바라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먹물색의 하늘에서 한 방울씩 물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이 두 방울, 세 방울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어깨를 적신 물방울은 한줄기의 빗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한참 동안 비 내리는 빗속에 서 있던 헤르세인이 나직이 입술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원망스럽단 건가?”

왜 이토록 제 눈물처럼 얼굴을 적시는 빗방울이 차갑기는커녕 뜨거운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차마 뱉어내기 힘들었던 말. 하지만 뱉어내야만 했던 제 속마음. 한편으론 제 물음에 그대로 그가 고개를 위 아래로 움직일 것 같아 헤르세인은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외면하기 전에 일말의 망설임 없이 차분히 대답하는 루드비카의 음색은 원망이 섞인 대답이 아닌, 저를 향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요, 끝까지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늘 제 중심은 폐하였고, 폐하가 저를 밀어냄에도, 폐하의 가시 같은 말들이 제 가슴을 할퀴었음에도, 저는 그럼에도 폐하뿐이었으니까요.”

“대체 왜… 내가 뭐라고...”

저도 그도 과거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다. 불꽃이자 불같은 그리고 활활 타오르고 순식간에 꺼져버린 사랑이었으니까. 또, 서로에게 상처만으로 남게 된 그런 사랑이었으니까. 그가 제게 준 것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저는 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사랑만 받았지 어떻게 베풀어야할지도 몰랐고, 과거의 자신은 정말로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루드비카는 모든 것을 받은 그때처럼 다정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리색과 눈동자색만 다를 뿐이지 그때와 전혀 변함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제게 미소를 그리고 있어 헤르세인은 눈을 뗄 수 없었다.

“폐하를 알게 됨으로써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저만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

“하지만 이젠 제가 폐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존재자체가 이젠 폐하께 방해일 뿐이지요. 과거에도 지금도… 폐하를 마음에 품은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하를 마음에 품음으로서 폐하의 가슴에 상처를 준 제 존재를 이젠 제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겠다고?”

“예, 제 존재는 폐하의 곪고 곪을… 평생 낫지 않을 상처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는 저로 인한 고통도 상처도 또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빗물로 적셔진 땅에 그가 한쪽 무릎을 꿇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려 마주친 루드비카의 눈빛엔 두 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가 짙게 묻어져 있었다.

“폐하의 기사로 남고자 했으나 결국 제 존재는 폐하의 손에 상처만 낼 뿐인 손잡이 없는 검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러니 폐하, 이제 두 번 다시 저 같은 손잡이 없는 검을 잡지 마시고, 그 손에 어울릴 검을 잡으시어 이 나라를 굳게 다스리옵소서. 그리고 두 번 다시 저 같은 사내를 만나시어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저는 폐하께서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

“짧았지만 폐하의 기사가 다시 될 수 있어, 저는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겁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루드비카는 그대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끝으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한발자국,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정말로 이젠 이곳에 아무런 미련조차 없이, 저에게 조차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무거워 헤르세인은 고개 짓도 입술조차 함부로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런 미련 없이 제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론 제 화를 돋게 만들었다. 그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밀어내고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가 또 다시 제 시야에서 사라지려하고 있었다.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 말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음에도 또 다시 제 눈앞에서 떠나가겠다는 그 말이 가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연이란 것이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없던 것이었을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량하기 짝이 없었다. 제 자신이 그토록 밀어냈음에도 정작 그가 스스로 떠나기를 택했을 때, 이기적이게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니. 헤르세인은 자조적인 웃음이 세어 나왔다.

‘잘 된 거잖아, 네가 원하던 선택이었잖아. 그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았잖아. 그러니 잡으면 안 돼. 또 다시 내 욕심을 부린다면 저 사람은 또 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붙잡으면 안 된다는 이성이 제게 속삭였다. 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잡으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저로 인해 불행해지게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이별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일방적으로 밀어내고 서로에게 상처뿐일 외면과 이별이 과연 서로에게 깔끔하고도 미련 없는 이별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애초에 이별은 그때뿐이었다. 서로에게 상처뿐이었던 이별과 제 마음조차 전하지 못했던 온갖 미련덩어리뿐이었던 그날의 처절했던 이별.

‘사실은 바랐잖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길 누구보다도 바랐잖아.’

왕은 욕심을 가질 수 있으나 개인 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가질 순 없었다. 인간적인 감정조차 비칠 수 없었다. 왕은 늘 고독해야하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위치에 군림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왕이 아닌, 그저 여인으로서의 제 자신은 어떠한가. 사람이기에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했다. 사람이기에 외로웠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될 것을 알기에 붙잡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욕심이 생겼다.

그가 아니면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하나 뿐인 제 옆자리. 그리고 저가 아닌 누군가 그의 옆자리를 차지 앉는 다는 것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인연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자신은 어떠한가. 예전엔 꿈도 꿀 수 없던 권력도 창고는 차고 넘칠 재물이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상황은 과거와 달랐다.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얌전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아닌, 한 발 앞서 일을 해결하고 제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걸까?

‘예전과는 달라… 내 뜻대로 이젠 마음껏 할 수 있어. 이제 모든 것을 안 놓아도 될 만큼 욕심을 부려도 되잖아. 고작 한 사람 뿐이잖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욕심을 내도되는 거잖아….’

그가 점점 멀어져 갔다. 욕심과 이성의 싸움. 하지만 결국 쌓이고 쌓인 욕심을 이성은 이길 수 없던 것일지도 몰랐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완전히 눈에 담은 순간, 지금까지 팽팽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그녀의 억눌렸던 욕심을 전부 터트리게 만들었다.

“멈춰… 멈추라고! 당장 멈추란 말이야!!”

간절하고도 절박한 외침. 그가 걷고 있던 걸음을 멈춰 흔들리는 눈을 하며 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나아가 거칠게 빗물을 지나쳐 마침내 루드비카의 앞에 멈춰선 헤르세인은 그의 팔을 꽉 붙잡아 지금까지 뱉어낼 수 없었던 제 속의 울분을 뱉어냈다.

“아니야… 사실은 당신이 곁에 있어주길 바랐어… 그러니 가지마….”

“...”

“당신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내 눈앞에서 떠나겠다니? 내가 밀어낸다고 다시 떠나?”

“...”

“당신은 바보야? 내가 밀어내도… 당신은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떠난다고? 내가… 내가! 지난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한줄 알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만을 기억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화보다 더 한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끓어올랐다. 그를 밀어낸 건 정작 저였음에도 욕심이, 이기심이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었다. 그래서 더 거칠게 멱살을 잡아 당겨 감정은 더 한 폭발을 일으켰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했는데! 당신이 제 멋대로 황제를 찾겠다고 숲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아니길 바랐어! 그런데 당신이 실종되었다고 했을 때… 내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또 다시… 당신이 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또 다시 나로 인해 당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난 이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떠나겠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제 멋대로야? 내가 어떤 심정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가…!!”

“...폐하.”

“아니잖아… 당신이 나를 불러야할 이름은 그게 아니잖아!”

“...”

“난… 당신의 헤세잖아….”

사실은 폐하란 호칭보다도 그가 애칭을 불러주는 쪽이 더 가슴이 떨리고 좋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 이제는 아무래도 좋았다. 폐하라 불리는 것보다 이제는 이름이로, 애칭으로 그가 불러주길 바랐다. 떠나지 않길 바랐다. 밀어내려 애를 썼음에도 그가 떠나겠다고 결심했을 때, 헤르세인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그를 밀어내려 해도, 결국 그를 온전히 밀어낼 수 없음을.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지 알아, 하지만 가지마. 내 곁을 떠나지 마…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루카...”

“헤세….”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루카….”

숨이 막히도록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품에 안겼다. 더 이상은 서로가 떨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듯 서로를 단단히 옭아맨 양팔은 누구라도 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의 품을 그리워하며 마침내 찾아낸 것이었다. 향기도, 품도, 애정도, 온기도, 과거에서부터 변하지 않던 인연을.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바깥에 있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이끌림에 따라 국왕의 침실이 아닌, 손님을 위한 침실 중 가장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비에 홀딱 젖어 추위에 떠는 그녀를 위해 욕조에 충분히 뜨거운 물을 받은 루드비카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나직이 대답했다.

“욕조에 물을 준비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전에 어서 몸을 데우세요.”

다정히 그녀를 욕실의 문 앞까지 이끌어준 루드비카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밀어주며 이제 그만 욕실의 문을 닫으려 했지만 덜컥 문을 잡는 손짓에 루드비카는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옮겨야만 했다.

“가지마.”

“폐하…?”

“말했잖아,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문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 마디와 그의 옷깃을 잡은 또 다른 가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마치 제 마음 같으면서도 깊숙이 억누르고 있는 욕망을 흔드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어색한 미소를 지우고 담대히 물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건가요.”

“...”

“제가, 이 욕실이란 선을 넘고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선을 넘고 당신의 곁을 떠나길 원치 않으신 건가요? 말씀해주세요,”

헤르세인은 입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낸 결론이었는지 이내 고개를 느릿하게 움직인 그녀의 결심에 루드비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잡고 있던 문에서 그리고 루드비카의 옷깃을 아슬아슬 잡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나뭇잎이 떨어지듯 살며시 떨어져 내렸다. 동시에 구두 굽의 소리가 한발 물러나고, 또 한 발 물러났을 때, 욕실의 은은한 촛불이 헤르세인을 비추었다. 촛불의 노을빛과 그림자로 음영 사이, 저를 마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

루드비카는 그녀가 서 있는 욕실을 향해, 방금 전까지 넘을 수 없던 경계선을 완전히 밟아 앞으로 나아갔다. 유독 크게 들릴 만큼 달칵, 하고 완전히 닫혀버린 욕실의 문. 이제 그 누구도 뒤늦게 도망갈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각. 또각.

한발자국, 두발자국, 루드비카가 다가올수록 헤르세인의 호흡은 조금씩 가빠져갔다. 저가 어떻게 숨을 토해내고 있는지 모른 채, 온전히 그에게 시선을 빼앗긴 헤르세인은 어느새 제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는 뜨거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헤세.”

촉촉이 젖은 루드비카의 낮은 목소리가 욕실을 울렸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 욕망에 그녀가 놀라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루드비카는 이성을 억제하며 이윽고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던 뺨을 지나 그녀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왕관을 벗겨낼 수 있었다. 가벼우면서도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개감이 실린 은색의 왕관.

그리고 왕관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하나씩 루드비카는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제 손으로 벗겨내기 시작했다.

풍성하면서도 비에 홀딱 젖은 겉 드레스가 루드비카의 손에 천천히 벗겨졌다. 떨리면서도 섬세히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그 손끝에는 상당한 힘이 실려 있어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단추 하나하나를 풀어낼 때마다 루드비카는 애를 먹어야 했다.

하지만 속 드레스까지 벗겨지고 마지막으로 속옷만이 남게 되었을 때, 루드비카는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칼을 제 손 끝에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제 입술을 맞추고는 훌쩍 안아 올렸다.

그리고 몇 발자국 채 가지 않아, 욕조 앞에 멈춰선 루드비카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욕조 속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본래라면 바로 몸을 일으켜야 했으나, 여전히 상체를 숙인 채로 미동조차 없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마치 헤르세인을 제 양팔에 가둬 좋은 것처럼, 또는 유혹하는 이처럼 습기에 젖어가는 거울은 그렇게 또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루카.”

“…예.”

“떠나지마.”

“그것이 당신의 바람이라면.”

그녀를 양팔에 가둬 놓은 채, 상체를 조금 더 숙여 욕조 속으로 무릎을 집어넣은 루드비카의 행동은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바짝 입술을 가져가 솜털이 솟아날 만큼 달콤히 또 은근히 그녀를 유혹했다.

“…또 무엇을 바라십니까.”

뜨거우면서도 열망 적으로 귀를 데운 그의 속삭임. 그 속삭임만으로도 낮선 감각을 불러일으켜 헤르세인은 제 몸이 살짝 떨리고 있음에도 뜨거운 물에 젖은 양손을 들어 올려 이윽고 루드비카의 양 뺨을 붙잡았다. 그리고 간절하고도 갈망이 섞인 목소리가 온전한 속박을 바랐다.

“완전한 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도 완전한 당신의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그것을 바라십니까.”

“응… 간절히 바라.”

“헤세….”

“…루카.”

조금씩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져갔다. 뜨거운 습기가 피부를 데우고 있음에도 서로의 호흡이 부딪칠 만큼 얼굴이 가까워졌을 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두 사람의 입술은 격렬히 부딪치면서 서로만을 탐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음에도 매달리듯 그의 상체를 절박하게 끌어안은 헤르세인의 손끝은 절절하고 오랜 그리움에 목말라했다. 하지만 그녀보다 더한 갈증으로 욕조에 물이 넘칠 만큼 그녀의 입술만을 탐하고 허리를 끌어안은 루드비카의 정념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새는 오후로 접어든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짹짹 지저귀며 먹이를 찾는 날개 짓을 하고 있었다. 한참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떠들고 움직이며 사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동안, 처음으로 오랫동안 잠에 빠져 있던 헤르세인은 가까스로 눈을 뜰 수 있었다.

“으음….”

유독 눈이 부시는 햇살. 그리고 눈을 떴을 가장 먼저 보인 옆자리. 언제나 눈을 뜰 때면 그녀가 누워있던 옆자리는 늘 비어져 있었다. 혼자서 쓰기에 침대가 넓은 탓도 있었지만, 반려가 아닌 그 누구도 국왕과의 침소를 함께 할 수 없기에 헤르세인은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제 시야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옆자리에 익숙한 한 사람이 저와 똑같이 누워 있는 것을 본 순간, 헤르세인의 눈은 점점 크게 떠졌다.

“잘 잤나요?”

“...”

“아침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대로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

“좋은 아침이에요, 헤세.”

오직 저가 눈 뜨기만을 기다린 부드럽게 휜 눈웃음. 그리고 햇살처럼 따뜻이 걸린 미소. 처음에는 그 모습이 눈부신 햇살 때문에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시력이 돌아오고 온전히 그가 눈에 담긴 순간, 헤르세인은 비로소 알아볼 수 있었다.

“...루카.”

따뜻한 이불 속에는 여전히 헤르세인도 루드비카도 서로의 몸을 맞대고 있는 맨몸이었다. 하지만 서로를 끌어안고 있음으로서 온기가 나누어졌음을 알아챈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는 루드비카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낮선 처음인 상황들. 눈을 뜨자마자 그가 제 옆에 누워있는 것도, 그와 함께 열락의 밤을 보낸 것도 깊게 잠이든 것도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헤르세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 눈이 갈팡질팡 하고 있음에도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루드비카는 여전히 엄지손가락으로 뺨을 어루만진 채, 나직이 입술을 떼었다.

“많이… 아팠나요?”

조심스럽게 상태를 묻는 루드비카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있었다. 그러나 처음 생소하게 겪었던 아픔과 달리 언제부턴가 쾌락과 열락에 빠져들어 그에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린 새벽녘의 일이 떠오른 헤르세인은 잽싸게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반말인지 존대인지 모를 그의 목소리가 들린 동시에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과 다르게 어느새 허리를 은근히 쓸어내리는 손짓이 헤르세인을 다시 민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은근하게 쓸어내리던 뜨거운 손길이 정확히 척추를 타고 골반의 중심 부분을 꾸욱 누르자 생각지 못한 허리의 고통에 헤르세인은 작게 신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아!”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왜 거짓을 말하세요?”

그야, 당연하지 않는가.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그에게 매달려 저도 모를 낮 뜨거운 신음을 토해낸 것이 저였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 난지도 몇 시간 전이거늘, 어떻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와 어제 저지른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나 괜스레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것이었다.

살짝 뺨을 붉히며 헤르세인이 시선을 피하자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새로운 애정을 샘솟게 해, 루드비카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아 입술을 떼었다.

“어젯밤의 일… 후회하나요?”

“아니… 후회하지 않아. 그럼 당신은? 후회해?”

똑같이 돌아온 그녀의 질문에 루드비카 역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뻤어요. 당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당신을 이해하고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분명, 어젯밤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준 뜻깊은 날이니까.”

“루카...”

“몇 번이나 말해도 부족하지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요, 헤세.”

손을 뻗어 그가 제 뺨을 어루만지듯 헤르세인 역시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만지기까지 상당한 근육통이 일어났지만 턱에 힘을 주고 오직 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까. 손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그의 뺨이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자신의 열을 녹이는 온기와도 같아 헤르세인은 옅게 미소를 그리며 똑같이 대답했다.

“나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 루카.”

쾌락과 열락에 젖어 사랑을 고백했던 어젯밤과는 온기가 다른 고백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그를 마주하고 손바닥을 통해 스며드는 온기가 가슴까지 닿았을 때, 헤르세인의 눈가는 붉게 충혈 되면서 어느새 물기에 젖어들어 눈물을 떨어트렸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아요.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면 내 가슴도 아프니까.”

“흑… 루카… 흐윽...”

“울지 마요, 나의 헤세. 나의 여왕. 나의 영원한 지지 않는 꽃.”

손끝을 움직여 그녀의 눈물을 훔치고 닦아내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눈가에 입술을 지그시 맞춘 루드비카는 미소를 덧그리며 다시 입술을 내리눌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잦아지고 끌어안고 있는 상태임에도 미동이 없었을 때, 이상함을 느낀 루드비카는 슬쩍 상체를 움직여 헤르세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헤세?”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약간은 몽롱함에 취해있던 그녀의 모습이었음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눈물과 함께 열이 퍼지기라도 했는지 힘겹게 숨을 헐떡이며 이제는 식은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다급히 상체를 세워 이마에 손등을 가져다 대보았다.

“갑자기 열이 왜… 헤세, 내 말 들려요? 헤세?! 정신 차려 봐요! 헤세!!”

이마에서 펄펄 끓기 시작한 열. 그리고 가빠지는 호흡. 점점 상태가 좋지 않게 변한 헤르세인의 모습에 두고 볼 수 없던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눕힌 채로 대충 옷을 걸쳐 입어 침실을 나섰다. 그리고 저가 헤르세인과 함께 밤을 보냈음을 이미 눈치 챘는지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녀장 라즐리를 본 순간, 루드비카는 서둘러 그녀에게 향해 외쳤다.

“당장! 궁정의사를 부르게! 지금 당장!!”

“찬 기운에 감기가 걸리신 것도 있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피로가 누적된 탓에 열과 증상이 듯싶습니다.”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을 내리는 해열제를 복용하시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몸이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분간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또 시녀장께서 최대한 폐하께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잘 드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무사히 진료가 끝나고 궁정의사가 침실에서 완전히 물러났을 때, 현재 침실에 있는 건 세 사람이었다. 의사가 처방한 해열제를 먹고 곤히 잠든 헤르세인과 곁에서 물수건을 들고 있는 라즐리. 그리고 드레스 룸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온 루드비카까지. 정확히 세 사람, 아니 멀쩡히 서 있는 두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을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어젯밤 이후로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일찍이 느낀 라즐리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자 루드비카에게 고개를 숙여 물러나고자 했다.

“그럼 저는 나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라즐리가 자리를 비키고 어느새 다시 아까와 상황이 비슷해진 루드비카는 옅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고 있는 헤르세인의 곁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제 눈엔 가늘기만 한 그녀의 손을 잡아 손끝에 입술을 맞춘 루드비카는 근심이 절절히 담긴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 대답했다.

“헤세… 아프지 마요. 내 눈엔 당신은 늘 강인해보이지만 그 속은 유리처럼 너무 깨지기 쉬워, 당신이 늘 다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언제나 늘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해요.”

“…루… 카….”

저가 나오는 꿈이라도 꾸는 걸까. 악몽인지 아니면 단순한 꿈일지 알 수 없으나 어느새 손에 힘을 주어 제 손을 생명줄 마냥 꽉 붙잡는 힘이 느껴져 루드비카 역시, 지지 않듯 제 손에 힘을 주어 손을 놓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의 곁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을 테니까… 당신의 곁을 내가 지켜 줄 테니까… 그러니 헤세, 아프지 마요. 응?”

애틋하고도 절절한 바람이 그녀의 꿈속에 닿은 걸까. 그녀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풀리자 루드비카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제 뺨을 묻었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여 맥박이 뛰는 그녀의 손목에 입술을 누른 루드비카는 어서 이 하루가 지나고 그녀가 안정된 눈을 떠주길 바랄 뿐이었다.

저 멀리 볼 수 있을 만큼의 미세하게 열린 문틈이 소리 없이 닫혔다. 혹시나 싶어 왔지만 역시나. 헤르세인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으나 이미 그녀의 침실에 익숙히 보이는 은발을 본 순간 리카르도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물러나기 전, 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녀장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마치 그 자리는 저가 끼어야할 자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같음은 물론,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보이지 않은 무언가의 눈치가 얼굴을 찔러 리카르도는 피식 세어 나오는 웃음과 함께 자리를 완전히 떠나야 했다.

“폐하,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제국의 많은 신하들이 폐하께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린다라….”

저를 위로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충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 분간되지 않으나 둘 중 무엇이라도 거짓으로 느껴지진 않았다. 빌헬름의 말처럼 제국에서 저를 기다릴 신하들이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가. 물론 진정한 충심을 가진 자들이 전부라 할 수 없으나 제국을 오래 비워두는 건 결국 타국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제는 정말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별개로 미련처럼 이곳에 계속 남고 싶은 이유는 물론 단 한 사람 때문일지도 몰랐다. 제 욕심대로 가질 수 없는 여인. 아무리 욕심이 나도 저를 향한 감정이 눈곱만큼 보이지 않는 그 시선을 생각하면 이제는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까지 했다.

‘정말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건가? 내가 낄 틈조차 없는 건가?’

가질 수도, 하물며 제 마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이 리카르도만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 벽이 어떨 땐 저조차 넘을 수 없어 괘씸하기까지 했으나 어쩌면 이미 깨달은 건지도 몰랐다. 그 벽은 저가 절대로 넘을 수도 깨트릴 수도 없음을.

“황제폐하.”

“...”

진중하고도 충의가 담긴 빌헬름의 단호한 목소리가 결국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바라보게 하던 리카르도를 일깨웠다. 만약 빌헬름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 벽을 다시 한 번 넘기 위해 헛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황제폐하’라는 무게감의 단어가 끝내 리카르도를 완전히 선택하게 만들었다. 저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그녀를 가질 수 없음을. 오직 그녀가 선택한 사내만이 그녀를 온전히 가질 수 있음을.

“제국으로… 돌아가겠다.”

“예.”

“국왕이 눈을 뜨는 대로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약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분을 평생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리카르도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를 만남으로서 제 자신도 유일하게 가질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너무 유난이야. 내가 크게 병든 것도 아니고….”

헤르세인은 제 얼굴가까이 내밀어진 묽은 수프가 담긴 은수저를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병이 걸렸거나 그렇다고 미동조차 할 수 없는 병자도 아닌데 저를 보살핀답시고 이제는 식사까지 떠먹여 주려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몇 수저라도 먹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지 루드비카 역시 물러나지 않을 기세로 여전히 수저를 들고 있었다.

“저에게 있어 폐하는 현재 병자입니다. 그리고 유난이래도 상관없어요. 이 수프를 다 먹기 전까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니 어서 아─ 하세요.”

“…입맛이 없어, 그리고 정말로 더는 못 먹겠어.”

고작해야 다섯 수저. 헤르세인은 정말로 입맛이 없어 더 이상 루드비카가 내민 수프를 먹고 싶지 않았다. 물론, 입맛이 없는 것도 있지만 7년 전 이후로 한 번도 걸리지 않던 감기에 지독히 걸리고 나니, 온 몸이 무거워 무언가를 입에 넣고 먹기보단 그저 눕고 싶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왕실의 정무를 생각하면 그냥 눕기에는 밀려진 일들이 많아 헤르세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국 이불을 걷어내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루드비카는 접시와 수저를 내려두고서 서둘러 헤르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아 말렸다.

“안 됩니다. 적어도 며칠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셔야 해요.”

“그러고 싶지만 내겐 해야 할 일들이….”

“폐하. 아까 궁정의사가 왔을 때, 제대로 안 들으신 거지요?”

“...아니.”

목소리는 상냥하나 짐짓 표정은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슬쩍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루드비카의 말처럼 다시 그녀를 찾아온 궁정의사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했다.

"이런 말, 주제넘게 감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줄 아오나 폐하께서는 이번 기회에 몸을 편히 하시고 건강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또한 체력도 좋지 못하시니 체력을 기르시고 이번 기회에 식단을 새롭게 바꾸셨으면 합니다."

"…체력? …식단?"

"예, 체력 보강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최대한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하시고 숙면 역시 충분히 취하십시오. 또한 산책도 틈틈이 하시어 체력을 기르십시오. 지금까지는 정신력으로 버티셨을지 몰라도 몸은 한계가 다다르면 정신력으로조차 버틸 수가 없습니다."

궁정의사의 말처럼 피로가 축적될수록 헤르세인은 쉬기보단 일이 밀리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했었다. 결국은 정신력 싸움이라 생각했지만 의사의 말처럼 정신력 싸움과 달리 몸이 한계에 다다르면 그녀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체력이 바닥난 약해진 몸이었다. 결국 몇 번이나 궁정의사가 당부를 하며 물러갔으나 그 이야기를 바로 곁에서 들은 루드비카가 이렇게 지나치도록 행동하는 건 당연하지도 몰랐다.

“궁정의사의 말처럼 폐하께서는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키세요. 그리고 끼니도 매번 거르시니 이렇게 몸도 많이 상하시지요. 그러니 폐하, 일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번 한 번만 푹 쉬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가 간청하겠습니다.”

“...루카.”

격렬하고도 서로의 격정적이었던 며칠 전의 밤. 온 몸의 근육통을 쑤시던 아픔도 있었으나 한번 마음을 털어놓게 되어서 일까. 그날 이후로 바뀐 것이 있다면 봇물처럼 터지듯 애정을 갈구하고 또 사랑을 속삭이는 루드비카 일지도 몰랐다. 거기에 라인하르트 가로 돌아가기는커녕 감기에 걸린 이후로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결국 한 발 물러서야 했다.

“그럼, 오늘만… 정말로 오늘만 푹 쉬고 내일부터는 움직일 거니까.”

“네, 정말로 오늘만 푹 쉬고 그 다음부턴 폐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녀가 다시 침대에 도로 누워버리자 루드비카는 비로소 만족의 미소를 그리며 추위를 타지 않도록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이마에 손을 얹어 미약한 열을 확인한 루드비카는 남겨진 접시를 치우고자 이제 막 자리를 떠나려 할 때였다.

“루카.”

“예, 폐하.”

“폐하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둘이 있을 때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 올려 퉁명한 목소리를 낸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작게 웃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불 끝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 조심스럽게 끌어당긴 루드비카는 살짝 입술을 맞추며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네, 헤세.”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줘….”

루드비카가 어디에도 갈 수 없도록 손을 맞잡은 헤르세인의 손끝에는 미약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 힘조차 오직 저만을 원하고 저를 속박하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하나하나,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다 입술을 맞추며 성스러운 기사처럼 맹세했다.

“당신이 잠에 들고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바람이라면 무엇이든. 나의 연인을 위해.”

그저 단순히 곁을 떠나지 말라는 하찮은 말이었음에도 굳건히 맹세한 루드비카의 모습이 흡족했던 걸까. 어느새 온전히 눈을 감아 편히 호흡을 하며 잠에 든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상체를 움직여 그녀의 이마에 제 입술을 맞추었다.

“잘 자요, 헤세.”

그녀가 아픈 건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하고 마음이 풍족하고 충만한 때가 있었던가? 바라건대 루드비카는 이 행복이 부디 짧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다.

지독하게 앓던 감기는 궁정의사가 심열을 기울여 처방해준 약 덕분에 헤르세인은 말끔히 나을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곁을 떠나지 않는 루드비카가 있었으나 오히려 그가 곁에서 도와주고 또, 묵묵히 한명의 기사처럼 자리를 지켜주는 덕분에 업무는 늘 그렇듯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인해 헤르세인은 당황한 표정을 처음으로 그에게 드러내고 있었다.

“돌아가겠단… 말이오?”

“그렇소. 어차피 왕국과의 협상은 끝난 지 오래 이고,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오래 있을 이유도 없지 않겠소.”

“...그렇군.”

“왜? 내가 떠나니 갑자기 아쉬워 졌는가?”

아쉬운 건 아니었다. 황제의 얼굴이 익숙해진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익숙해졌기에 그가 떠난 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랐다.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떠나려는 그런 존재. 그렇다고 친한 것은 아니나 악연 아닌 악연 같지도 안은 그의 존재. 어쩌면 이 감정이 그의 말처럼 아쉬운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상대는 단순한 신분을 가진 이도 아닌 무려 제국의 황제. 설령 진심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헤르세인은 그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기로 생각했다.

“아쉽지는 않소. 다만….”

“다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 그대가 황제가 아닌 나와 이해관계가 맞을… 동료로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황제가 아닌 그를 생각해보았다. 적당한 신분과 언제든 외교를 교류할 수 있는 위치로 왕국을 자주 드나드는 그런 인연을 새롭게 맺은 동료의 모습. 하지만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 결코 불가능한 일임을 알기에 그의 성격을 떠나 황제가 말한 협상에서 있던 일들은 헤르세인의 생각을 좀 더 넓히기에 충분했다.

또한 황제는 결코 제 나라에서 움직일 수 없는 법. 지금쯤이면 제국에서도 그를 걱정할 신하들은 넘칠 것이었다. 왕은 결코 혼자만의 몸이 아닌 나라 그 자체이고 왕의 어깨엔 수많은 짐들이 짊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황제와의 만남은 오늘이후로 영원히 끝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을 읽어낸 것일까. 피식, 하고 입꼬리를 보기 좋게 끌어올린 리카르도는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입술을 떼었다.

“혹시 아오? 이 만남으로 영원히 끝이 아닐 수도 있을지. 하지만 그대의 말처럼 만약 내가 황제가 아닌 그대와 눈높이가 맞을 적당한 신분이었다면 그대는… 다른 사내가 아닌 나를 온전히 봐주었을까?”

“그게 무슨...”

“이곳에 온 이후로 그대를 쭉 보았지만 사브레의 국왕은 의외로 이쪽의 눈치가 둔한 것 같더군. 내가 그대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

이내 다시 팔짱을 풀어 헤르세인에게 손을 내민 리카르도는 옅게 미소가 그려졌으나 가장 진중한 얼굴로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다.

“아직까진 나는 내 감정에 확신하지 못했소. 그리고 오늘도 그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

“...”

“하지만 그대가 욕심이 나고 내 감정이 그대만을 향해 닿고 있다면 분명 이 감정은 틀림없겠지. 그거 아시오? 그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황제의 진심을 그대가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란 것을.”

“이보시오, 베르디올의 황제. 나는….”

“그대를 좋아했소.”

“...”

“하지만 그대가 바라지 않는다면 이 마음은 내 기억 속에만 넣어둘까 하오. 내가 고백한다하여, 내가 원한다하여 그대는 내 곁에 올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 이런 내 마음이 기특하다면 악수라도 해주는 게 어떻소? 곧, 그대와 나 작별할 사이인데.”

살짝 고개를 숙이니 아직까지 그가 내민 손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는 이별만을 위한 악수. 그리고 어쩌면 형식적인 절차뿐일 악수의 행례. 헤르세인은 손을 들어 저보다 큰 그의 손을 맞잡았다. 맞잡은 손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맴 돌았다. 그 온기가 온전히 감싸졌을 때, 리카르도는 천천히 위 아래로 맞잡을 손을 흔들었다.

“우리의 협상은 오래 유지 될 것이오. 누군가가 이 협상을 가지고 제국 쪽의 손해가 아니냐고 묻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협상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을 것이오. 이건 그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기 위한 내 작은 마음이기도 하니. 그럼, 이만 가보겠소. 그리고 그대를 만나 나름 즐거웠소. 사브레의 국왕, 헤르세인.”

저조차도 아직 그의 이름을 편히 부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제멋대로 부른 이름임을 알고 있음에도 처음이자 마지막 인연이기에 그가, 제게 큰 선물을 주고 갔기에 헤르세인은 목소리를 내는 대신,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배웅했다.